

건축사

2001 11 vol. 391

칼럼 _____ 건축계의 앞날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기획연재 _____ 중국 건설시장의 현황과 전망(1)

특별기고 _____ 프랑스 건축사제도의 어제와 오늘

건축기행 _____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8)



여름철 냉방은 물론 영하 15°C 혹한기 난방까지!

에너지 절약형 LG 인버터 냉난방기

LG 인버터 냉난방기, 이렇게 인정받았습니다!

- LG인버터 냉난방기는 조달청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제품으로 2001년 8월부터 전국 학교 및 관공서에 보급 중입니다
- 전국 초, 중, 고교에 2000년 12월부터 시범 설치 운영 중입니다
- 국책연구 (00.12) 인 '학교건물의 에너지절약형 냉난방시설 모형개발' 에서 인버터 사이클 및 스크롤 압축기 기술이 표준냉난방기로 채용되었습니다

정부기관 인증 및 규격획득

KT (Excellent Korea Technology) 마크 획득 LG전자의 인버터 신기술이 과학기술부와 한국 신기술을 겸용함으로써 기존의 우수성 및 저용량 신화성품 인증을일괄 취득

한국 밀레니엄 상품선정

LG전자의 환경지향 인버터 신기술이 산업자원부의

인정명 번호 1099년 한국 인민-민 대를에 선정되었습니다



K S규격 획득

(K S규격은 국가공인 KS 시험 인증을 통해 유급과제 충족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LG 인버터 냉난방기, 이래서 더 좋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인버터 냉난방으로 전기료 걱정이 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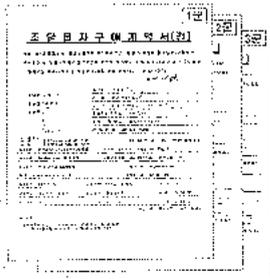
최첨단 절전인버터 회로 및 국산 고효율 스크롤 압축기로 냉방은 28%, 난방은 32%의 절전효과가 있습니다. (저사 3.5 미터 정속형 히트펌프 대비, 저사 시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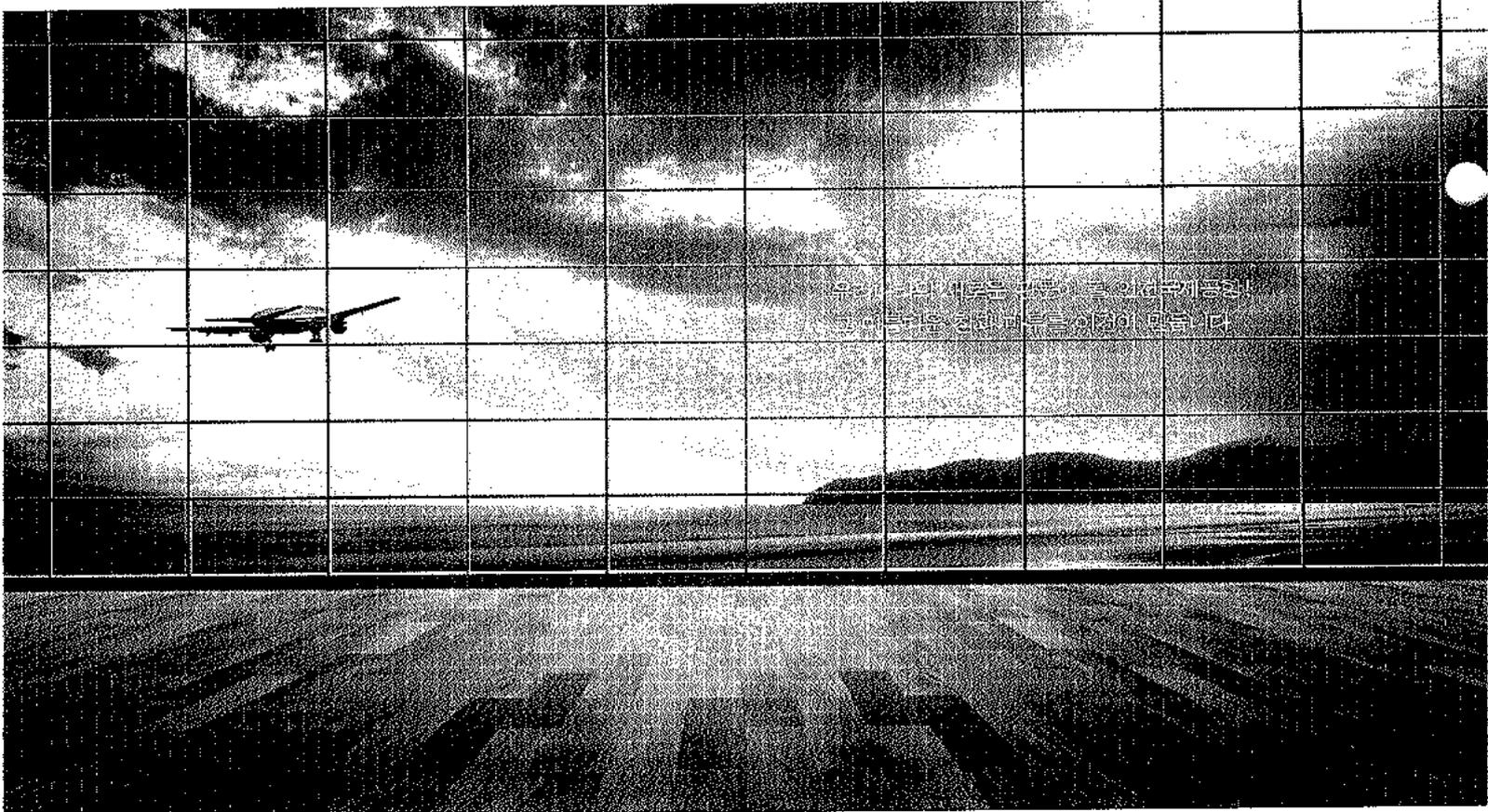
영하 15°C의 추운겨울에도 43°C의 따뜻한 난방을!

인버터기능이 있어 추운겨울에도 고온풍난방이 가능하여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중앙공조 대비 초기 투자비용 34% 절감!

학교건물의 에너지절약형 냉난방 시설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 중앙냉난방 (냉온수기 방식 + FCU)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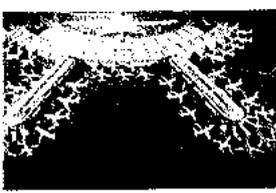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새로운 공항이 곧 인천국제공항이
될 것입니다. 멋진 부분을 아낌없이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첫인상 이건 창과 마루

그 나라의 첫 느낌은 공항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저 아름답다고만 해서 365일 바닷바람속에서 있을 인천국제공항의 창과 마루가 될 수는 없습니다.
평균 400KG/M²의 사상 유례 없는 풍압을 견디고
폭풍우에도 배수가 확실하며 부식 걱정이 없는 창,
바쁘게 들어오고 나가는 하루 수백만 인파의
발걸음을 견뎌낼 수 있는 튼튼하고 강한 마루만이
영종도에서 아름답게 손님들 맞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서도 한국을 기억하게 할 아름다운 창과 마루 -
지금 이견창호와 이견마루의 기술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조화된 전통적 이미지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인의 기품과 포용력을 상징하는 인천국제공항 아력타이널

이견창호  **이견마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루
 이견창호 이견마루 서울 영등포구 영등동 4가 2번지 신동빌딩 TEL. 02)2007-2200



ISO 9002

UL 마크

한국소방협회

국내 최초 난연성 인테리어 신소재
실용신안 등록 제 0218326호
특허유권 제 2000-30867호
특허출원 제 2000-20453호
신용신안 출원 제 2000-36132호

안타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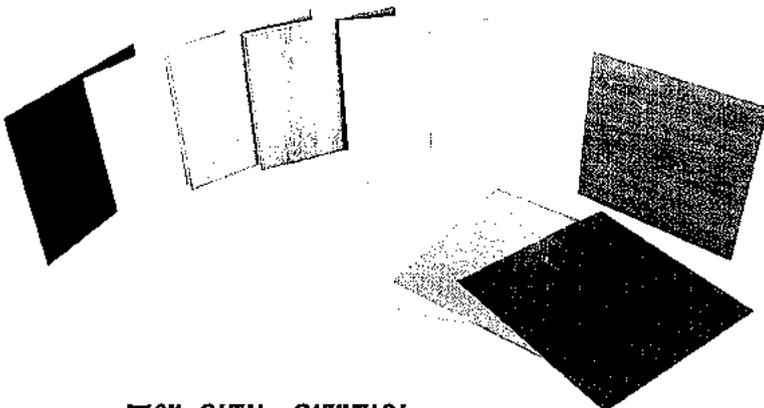
난연 1·2등급 / 방염성능 검증
소방시설 완비증명

이전 소방법이나 건축법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난연·방염재 사용 의무화!”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공포 : 2001. 3. 20 / 시행 : 2001. 5. 20
소방법 제1조, 동시행령 제1조

500여종의 다양한 무늬와 칼라로 무한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창출하십시오



불에 안타는 인테리어

건축내장 마감재 - 안타민

★규격 : 4×8ft×0.6T(13.1T)

| Antamine의 적용분야 |

- 관광호텔, 콘도, 여관의 일반 숙박시설
- 아파트, 기숙사, 단독 및 공동주택
- PC방, 호프집, 노래방의 위락시설
- 집회, 공연, 예식장의 문화·집회시설
- 종합병원, 학교의 의료·교육연구시설
- 공항, 항만, 여객터미널의 판매·영업시설
- 아동·노인의 복지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발전소, 방송국, 촬영소의 공공용시설
- 사무실, 오피스텔의 업무시설
- 생활권, 자연권의 수련시설
- 기타 다중이용시설

★건축용도 : 벽체, 천장, 바닥면의 실내마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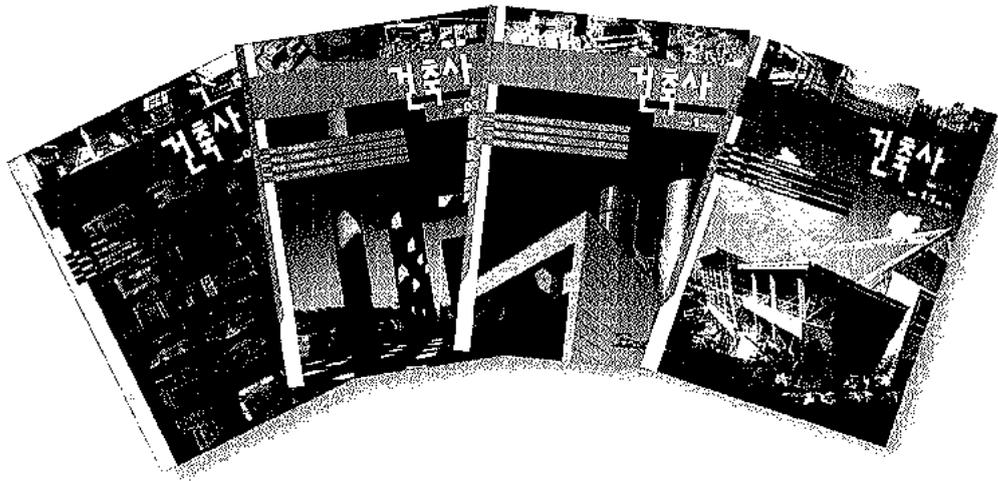


주식회사 서한메라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41-8 (남동공단 165B-6L) TEL : 82-32-815-1674~7 FAX : 82-32-814-4155

<http://www.antamine.com>

대한건축사협회가 발행하는 월간 「건축사」의 광고는
 국내 최초의 건축·건설 전문기획사인
 (주)한마당21이 대행합니다.



〈단위:만원〉

광고 단가표

표지 4면	표지 2면	표지2 대면	표지3면	내지
250	120	120	100	70

월간「건축사」誌는 최고의 권위와 최대의 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가 직접 발행
- 전국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보 (약 50,000명)
-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건축사 약 8,000명)
- 건축관련 단체(협회등) 및 대학교
- 건축관련 정부기관·연구소
- 건축관련회사(건설회사, 자재회사, 정보통신회사 등)



광고문의 _____
 전화 : 02-702-1871~2
 팩스 : 02-702-1873
 (121-05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50
 강변한신코아빌딩 1503호 (주)한마당 21

세 · 계 · 최 · 초 · 의 · 특 · 자 · 모 · 빌 · 로 · 대 · 한 · 민 · 국 · 을 · 대 · 표 · 하 · 는 · 주 · 차 · 기 · 가 · 되 · 겠 · 습 · 니 · 다 .

스카이파크

미니로타리식

SKY PARK

입체주차장치



- 인정번호 대구 제1-15호
- 인정번호 대구 제1-16호
- 실용신안등록 제0190325호
- 실용신안등록 제0190326호

適者生存의 無限競爭時代
“자신있습니다”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세계최초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한 초슬림형”



세계적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접속구동의 新메커니즘

■이렇게 다릅니다.

- 엄청나게 간단해진 구동부 만큼 가격은 대폭 내렸습니다.
- 지상자주식(2.3M×2대=4.6M)보다 좁게 폭(4.57M)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홈페이지 (www.Juchagi.com)에 있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자재정보 (www.Archidb.com)의 '주차'를 검색하십시오.

☞ **자매품** Pit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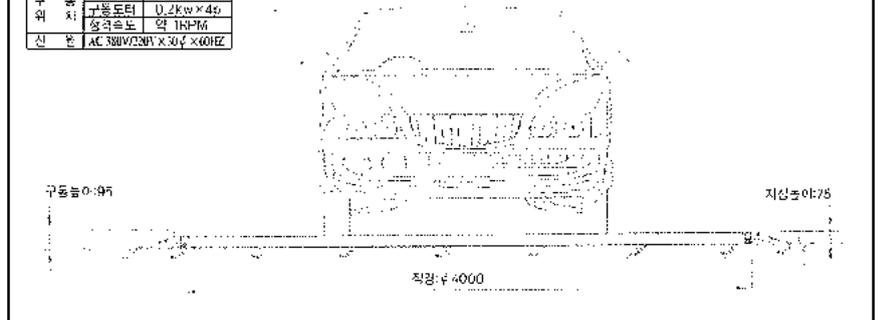
☞ **신제품** 지상설치 턴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자상높이 75mm!

■사양 (뉴그랜저급 진입가능)

모델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最小)	주차기 길이(最小)	소요높이(最小)
SKY PARK-5	5대	4570	6090	6830
SKY PARK-6	6대	4570	6090	7720
SKY PARK-7	7대	4570	6090	8600
SKY PARK-8	8대	4570	6090	9380
SKY PARK-9	9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대	4570	6090	13060

표준 사양	
명칭	스카이파크입체주차기
수용차종	승용차, 승합차
구동방식	전동CHAIN
구동동력	0.2kw×4대
전압/주파수	약 1HP-M
전원	AC 380V/320V×30A×60HZ

실용신안등록 제0233726호



아주 특별한 주차기회사
창공駐車産業
www.Juchag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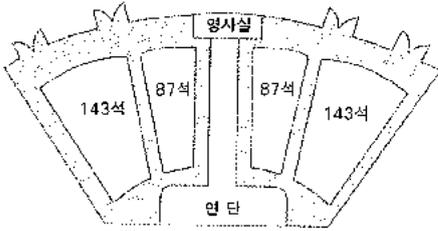
본사·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TEL : (053)956-8838(대) ■P.P : 011-507-8838
 ■전국무료전화 : 080-567-7788 ■E-mail : cgp210@kornet.net
 ■서울A/S센터 : (02)3665-2723 ■부산A/S센터 : (051)784-6721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 대관 안내

대강당

- 기업 및 단체의 정기총회/세미나/강연회/교육/연수 등 대규모 회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면적 : 143평(계단식)
- 수용인원 : 460(좌석수)
- 부속설비 : 녹음/음악/영사실/무대/무대영사막/흑판/OHP/VPM/SP



대강당(460석)

1. 사용료

(단위: 원, VAT 별도)

구분	좌석수	사 용 료	
		기본요금(3시간)	초과요금(시간당)
대강당	460석	330,000	66,000

※ 사용기간 : 하절기(3월~10월)/09:00~18:00,
동절기(11월~2월)/09:00~17:00

※ 회원 및 관련단체와 장기사용

(연 30일 또는 연 10회 이상)의 경우 상기금액의 30%할인

※ 야간 및 토요일 오후, 공휴일의 경우 상기금액의 20%를 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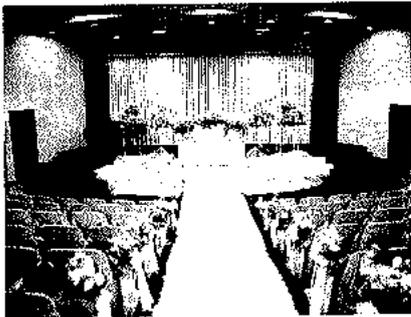
※ 예식행사 : 90,000원

2. 기타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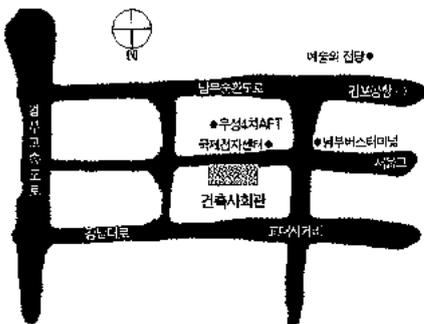
- 신청서 제출시 예약금으로 임대료의 10% 이상을 납부

- 현수막 규격

• 대강당 : (가로) 900cm × (세로) 90cm



약도



대관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건축사회관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
(전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동쪽방향 150m 좌측지점)

TEX : 581 - 5711~4

FAX : 586 - 8823



건축사의 신용, 대출名家의 자존심을 약속합니다!!

보험으로 쌓은 신뢰, 대출로 이어가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희망을 위해
이젠, 보험뿐만 아니라 대출도 삼성생명과 상담해 주세요.

내일을 위한 희망설계 - 삼성생명 대출



신용대출 안내 (무담보 무보증 원칙)

- 대출자격 / 건축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교사, 기타 공무원
- 대출금액 / 1천만원~1억 5천만원
- 예상금리 / 연 7.0%~13.5%
- 기간 / 1년~5년 (수시상환, 연장,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가능)
- 대출기관 / 삼성생명, 제1금융(은행), 제2금융(보험사, 금고 등)

삼성생명대출특선!!



- 경락대금 : 90%까지 대출가능
- 담보대출, 창업자금대출 특별상담
- APT소유자, 구입예정자 : 6.5%~8.0%(10년, 15년, 20년, 30년형)
- APT, 단독주택 등 주거용 전세자금이면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상가, 빌딩 등 임대보증금을 담보(질권설정)로 설정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라이트플러스 대출 : 최저 7.1%
- 스피드 학자금 대출
- 전세 자금 대출

최고액 대출

최저의 금리

삼성생명
Seed Bank

신속한 처리

상담
02-545-8853

삼성생명 정책5부
팀장: 양승영

Tel (02) 545-8853~4
Fax (02) 545-4939
H·P 011-9738-0087



영은 미술관(황일인 작)

17



25



29



칼럼	건축계의 앞날을 위해 논의 되고 있는 이야기들	이정호	14
회원작품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안길원	16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	임장렬	22
	부산해운대 공동체육시설	이영희	28
	대한교원공제회 강원희관	이영희	34
	영은미술관	황일인	40
	만년동 가화빌딩	박영준	46
기획연재	중국 건설시장의 현황과 전망(1)	손종우	52
건축기행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8)	김석환	58
특별기고	프랑스 건축사 제도의 어제와 오늘	송복섭	65
기고	리모델링을 위한 최신 구조 보강 기법 4	이창남	72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임태모	76
	보행방식과 도시건축문화	임창복	79
	충주 국민체육센터 현상설계를 마치고	최재인	80
건축만평		유원재	82
건축마당	건축계소식		83
	현상설계경기		90
	해외잡지동향		98
	리포트(제11차 아카시아 포럼)		104

발행인: 무남용

편집분과위원회: 위원장 / 박영식

위 원 / 김석환, 김수경, 목대상, 최동규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쇄인: 김종식/중앙미술인쇄공사 (02)2269-7619

광고: (주)한마당21 (02)702-1871~2

넓은 보일러실이 필요없는 공간절약형 병렬식 보일러 시스템(PBS)을 아십니까?

보일러 크기 때문에 벽까지 허물던 시절은 이제 옛날!
벽을 따라 폭25cm 내외의 가스보일러를 나란히 설치만 하면 되는
간단한 공사에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해드립니다

난방시공능력	50,000~200,000kcal
온수시공능력	50,000~200,000kcal

설치비 싸고, 난방비 아끼고, 관리사 필요없고!

린나이 병렬식 가스보일러 (PBS)



25,000kcal×3대 병렬

- 시공비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맞춤 제작으로 고성능 보일러를 필요한 만큼만 낼 수 있어 기존의 대형 기름보일러에 비해
가격이 눈에 띄게 저렴합니다
- 연료비가 적게 듭니다**
가스가 기름보다 싸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
하루가 다르기 치솟는 기름값 걱정 안해도 되고 손님 든 방안 선별적으로 보일러를 가동시킬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 수명이 2배는 더 깁니다**
고장찾고 A/S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 대형보일러와 달리 잔고장이 없고 수명이 오래갑니다.
또한 부분가동이 가능해 A/S중에도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어 영입이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 관리기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안전상태를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주는 리모콘으로 실재에서나 카운터에서 편리하게 콘트롤할 수 있어
관리사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보일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27

21

43



Column

Some Discussions for the Future of Architecture	Lee Jeong-Ho	14
---	--------------	----

Works

Support Center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Kyonggi Provinc	Ahn Gil-Won	16
Uijungbu City Arts Center	Lim Jang-Ryeol	22
Haewoondae Sports Facilities	Lee Young-Hee	28
Kangwon Center of Teacher's Mutual Benefit Association	Lee Young-Hee	34
Young-Eun Museum	Hwang Il-In	40
Gahwa Building	Park Young-Jun	46

Serial

The Present and Prospect of Construction Market in China	Son Jong-Woo	52
--	--------------	----

Architecture Travel

The Pleasant Feeling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Kim Suk-Hwan	58
---	--------------	----

Special Feature

The Past and Present of French Qualification System for Architects	Song Bok-Sub	65
--	--------------	----

Feature

State-of-the-art Structural Reinforcing Devices of Remodeling Buildings	Lee Chang-Nam	72
Promoting Strategies for Remodeling	Lim Tae-Mo	76
Pedestrian Methods and Urban Architectural Culture	Lim Chang-Bok	79
Completing the Competition Entry Project for Civil Sports Center of Choongju	Choi Jae-In	80

Cartoon

Yoo Won-Jai	82
-------------	----

Architects' Plaza

Archi-Net	83
Competition	90
Overseas Journal	98
Report(ARCASIA FORUM 11)	104

Publisher: Woo Nam-Yong

Editorial Member: Park Young-Sik, Kim Seok-Hwan, Kim Soo-Kyeong, Mok Dae-Sang,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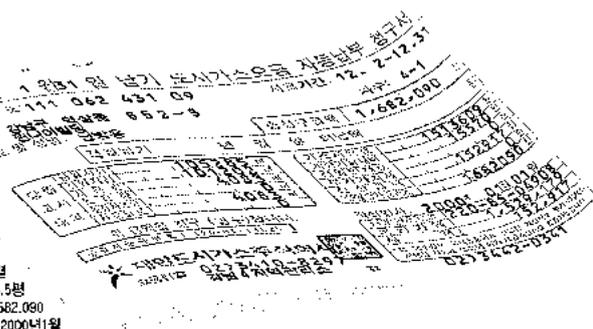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ungang-art Printing Co.)

린나이 병렬식 가스보일러의 경제성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백문이불여일견!
대형 기름보일러에 비해 연비가30%이상 절감되는 병렬시스템의 놀라운 경제성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 서울 옥실동 소재 R사 사옥
- 연면적: 657평 ● 대지면적: 148.76평
- 설치보일러: 30,000kcal 모델 14대 병렬
- 난방면적: 536.5평
- 월난방비: ₩1,682,090
- 사용기간: 2000년1월

시공 사례



150,000kcal 보일러 1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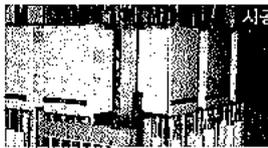
25,000kcal×6대 병렬

경기 유치원(대치동) 교체 시공

99년에 설치한 K사 제품의 누수 및 난방불량 등의 작은 이상으로 인해 린나이 병렬 시스템으로 교체한 사례. 증별 난방 및 온수 수도직결 TYPE으로 설치.



300,000kcal 보일러 1대



25,000kcal×9대 병렬

수녀원(대구) 교체 시공

93년 국내최초로 린나이 병렬시스템을 설치한 곳으로 뛰어난 경제성과 손쉬운 관리로 이 시스템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진다. 난방배관에 증별 LINE PUMP 설치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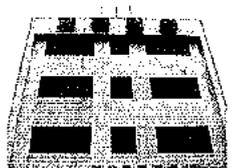
150,000kcal 보일러 1대
70,000kcal 온수보일러 1대



30,000kcal×6대 병렬

상계동 기독병원

지하 및 5층 규모의 병원으로 난방을 라디에이터 구조로 병렬 시공. 온수탱크는 1톤 규모이며, 증별 Line Pump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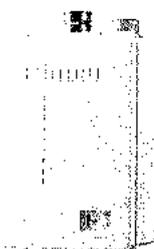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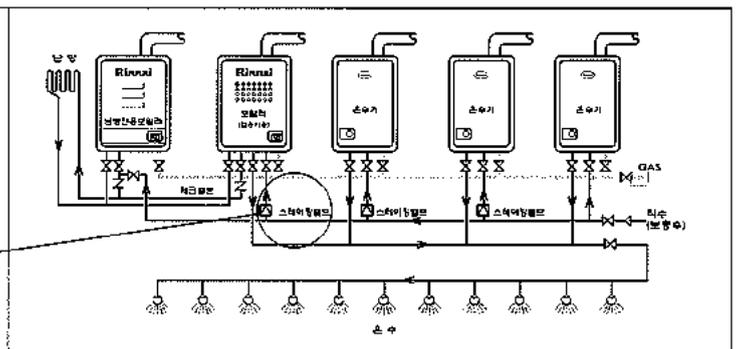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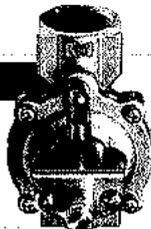


표준 시공 설계도 (난방, 온수 혼용 방식)

- 온수를 다량으로 사용하며, 일부 난방을 사용하는 스포츠 센터, 한식점 등 적용
- 온수 부분은 수도직결 및 Staging Valve(특허)를 적용
- 난방/온수 겸용 보일러는 보충용으로 사용 가능

린나이 코리아 만의 특허기술 '스테이징 밸브'

- 시스템 관련 특허출원
- 외부에서 설정압력을 임의로 조절가능
- 온수탱크 대체가능하며, 획기적인 연료절감 가능
- ※ 수압력 개폐 역할을 하는 밸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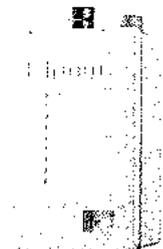


난방전용보일러(병렬전용)
RPB-366SME/F

난방 : 36,000kcal/h
사이즈 : 600(H)×440(W)×285(D)mm

디지털 가스보일러
RB-366SME/F

난방 : 36,000kcal/h
온수 : 36,000kcal/h
사이즈 : 600(H)×440(W)×285(D)mm



순간온수기(RW-16AE/F)

사이즈 : 600(H)×335(W)×160(D)mm
온수 : 16ℓ /분(ΔT: 25℃)

건축계의 앞날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Some Discussions for the Future of Architecture

이정호 / 대구대학교 건축과 교수

by Lee Jeong-Ho

요즈음 같이 건축하기가 힘든 때가 없다고 한다. 건설회사들의 도산이 정치적 부정과 경제적 부실의 대표 격으로 “이 화면은 특정사실과 관계없음”이란 자막도 없이 TV에 그 흔한 화장품 선전광고처럼 등장한다. 그것을 보는 우리들도 무언중 공감, 혹은 불감증으로 그냥 보아 넘긴다. IMF때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이 건축계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이나 교수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으려 한다. 건축인들의 모임에서도 더 이상 일에 대해 묻는 것은 실례이다. 현재로서는 건축인들에게 꿈과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그냥 연명하고 있는 듯 하다. 그래도 여전히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건축과는 높은 점수가 요구되는 인기학과다. 그들의 기대와 바람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대학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걱정이 앞선다. 옛말처럼 나면서 자기밥그릇은 타고난다는 말을 믿을까? 정부가 시행하는 많은 문제해결책에 불만을 가진 각 집단들의 목소리가 연일 지면을 장식하지만 건축인들은 조용하다. 점잖게 참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한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보다 나은 앞날을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 좋은 게 좋다는 정도를 대충대충, 두리뭉실 혹은 개인간의 인간적 친분관계로 처리하는 사고방식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 건축계 전체의 앞날을 위한 마음으로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 판에서와 같은 물통순서, 나누어 먹기 혹은 적당한 안배와 같은 관행은 이제 그만 하자. 부정의 온상처럼 잘못 알려진 이미지를 이제 그만 벗어 던져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최근에 대구지역에서는 건축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관련된 여러 분야의 사람들간에 활발한 논의가 일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현상공모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모색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를 찾아서 앞으로 적절한 시행방법을 모색하려 하고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책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부의 관청이나 기관에서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지켜지는 보수적이고 경직된 사고에 의해 처리되는 현상공모의 시행방법과 그 선정과정 그리고 당선작에 대한 실시설계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지금 이대로 그냥 두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수의계약기준을 최소한으로 해야한다. 과거보다 훨씬 많은 현상공모가 열리지만 균등한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 듯 하다. 지금처럼 일이 없을 때 누구나 쉽게 참가할 수 있게 하여 오히려 더 좋은 작품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한다. 그를 위해 현상공모시행에 필요한 사전지침과 프로그램 발주처, 준공 후 사용자집단 그리고 출품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준비팀(위원회)을 만들어서 안을 내고 공모의 전과정을 준비, 관리하게 해야한다.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 첫째, 심사위원을 지금처럼 학계위주에서 탈피하여 건축의 다양한 관련분야에서의 전문가(앞에서 말한 이용자대표까지를 포함)를 엄선하고 사전에 명단을 관련자 전원에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심사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며 심사의 전과정이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예를 들어 예비심사의 경우 심사대상이 많은 경우 비디오 녹화나 인터넷을 통한 의견개진내용을 공개하는 등-특히 당선작을 정하는 최종심사에서는 출품자 전원의 제한 공개설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여기서 심사위원과 출품자간에 질의응답 혹은 토론의 여부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의 결정권은 심사위원이나 출품자가 아닌 준비팀(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적용에서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시간과 제반 경비인데, 그것은 건

축계의 앞날을 위해 봉사하는 심사관련자들의 마음가짐과 당선작에는 주지 않는 상금부분을 활용하면 쉽게 해결될 것이다. 큰 대의명분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셋째, 출품자들이 프리젠테이션에 최소한의 경비가 들도록 하여야 하며 정직한 표현이 되도록 해야한다. 건축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표현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프리젠테이션에 수 천만원의 돈이 들어간다면 가난한 건축가는 결국 참가기회도 얻지 못한다.

넷째, 정말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건물을 제외하고 경력의 기준을 일부 특정인들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초, 중등학교가 사전에 경력이 없다고 설계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건물인가?

다섯째, 당선작의 결정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그 작품이 완공될 때까지 관련자들의 참여가 직,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들어보면 어떤 관청이나 기관에서는 당선이후 이리저리한 간섭과 감으로 당선작의 원 의도가 심하게 변질되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항해서 싸우는 작가정신이 분명 필요하지만 한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건축의 특성상 부분적으로 불가피한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공모의 관련자들이 지속적으로 완공 시까지 참가하여 도와준다면 그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와 같이 기성건축가를 상대로 한 현상공모 외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이 미래의 건축가로의 올바른 길을 교육하기 위한 장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심사의 공정성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일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이 주제전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졸업작품을 출품하기 때문에 교내전과 거의 동일한 작품이 반복 출품되므로 창의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수상작도 그 권위나 가치가 떨어져 기성 건축인 뿐 아니라 일반대중에게도 외면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된다. 이런 현상은 건축인 스스로의 위상과 작품의 가치를 퇴락시키는 것이며, 또한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일인 일 작품으로 해야한다. 협동작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는 교육의 과정 중에 얼마든지 시행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을 위한 공모전의 성격에서는 개인의 역량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기성건축가들이 서울 혹은 외국과 협동작업을 통한 현상공모에 출품하는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이름만 빌려주고 경비만 부담하는 콘소시엄은 건축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거기서 우리의 후배 건축인들이 무엇을 배우게 될까? 요령과 재주로 명예와 돈버는 것 뿐일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건축인들의 설계 영역의 확대이다. 익히 알다시피 건축은 과거에는 모든 디자인의 통합체로서 소위 종합예술이라 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영역이 세분화되면서 건축가가 실내디자인이나 가구디자인을 하면 마치 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되었다. 거품경제시대에는 건축만으로도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많이 변했다. 지금의 시대에 우리 건축인은 리노베이션과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개념과 경관계획개념을 도입한 설계에 대해 공부하고 작업해야한다. 어쩌면 교량이나 도시환경시설물과 환경조형물에 이르기까지의 전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계해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 이외에도 디자인캠프나 아카데미의 참가를 설계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견해와 건축인들이 치르는 일련의 행사들을 건축인 만의 행사가 아닌 관계예술인과 대중들이 함께 공유하는 장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으나 이것은 추후 또다른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릴까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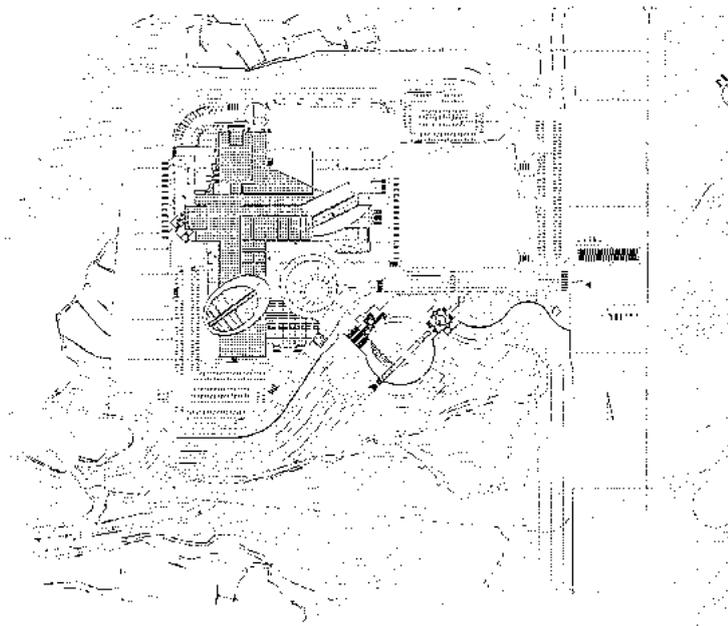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Support Center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Kyonggi Provinc

안길원 / (주)부영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Ahn Gil-Won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111-1번지 외 31필지
대지면적	100,089㎡
건축면적	10,079㎡
연 면 적	47,697㎡
건 폐 율	10.07%
용 적 륜	30.66%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상 16층, 지하 3층
외장재료	T3.4알루미늄 쉬트패널, T24컬러복층유리, 메탈패널
주차대수	631대 (육외 329대, 육내 302대)
냉 난 방	FCU + VAV
설계책임	안길원, 원성재
설계담당	유승열, 홍원기, 임기환, 박형석
협력업체	동양구조(구조), 세익설비(기계), 동호기술단(전기), 한림조경(조경), 세광ENG(토목)



배치도

배경

경기도 중소기업의 요람이 될 이 프로젝트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기획하여 시행한 사업이다. IMF체제에 돌입하면서 무엇보다도 벤처산업의 육성은 국가적인 당면 과제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한 분야임엔 틀림없다.

이러한 정책적인 배경에서 발주된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입하는 설계자로서 정리해야 할 요소가 있는데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그때까지 국내에는 사례가 없던 창업보육시설인 중소기업지원 시설에 대한 이해였고 둘째, 자연녹지로 있는 대지의 아직 개설되지 않은 계획도로와 계획대지의 지반고와 기존 도로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시설을 보유하는 경기도의 자부심과 보육시설의 입주자가 느끼게 될 편안함이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어떤 모습으로 담겨질 것인가 하는 것이 셋째였다.

대지와 프로젝트가 주었던 과제들

도로 레벨과 대지경사의 현격한 차이, 대지 내 급경사 재단시설과 부대 시설의 기능상 분리와 단계별 건설 대안, 재단시설 내의 복합적 기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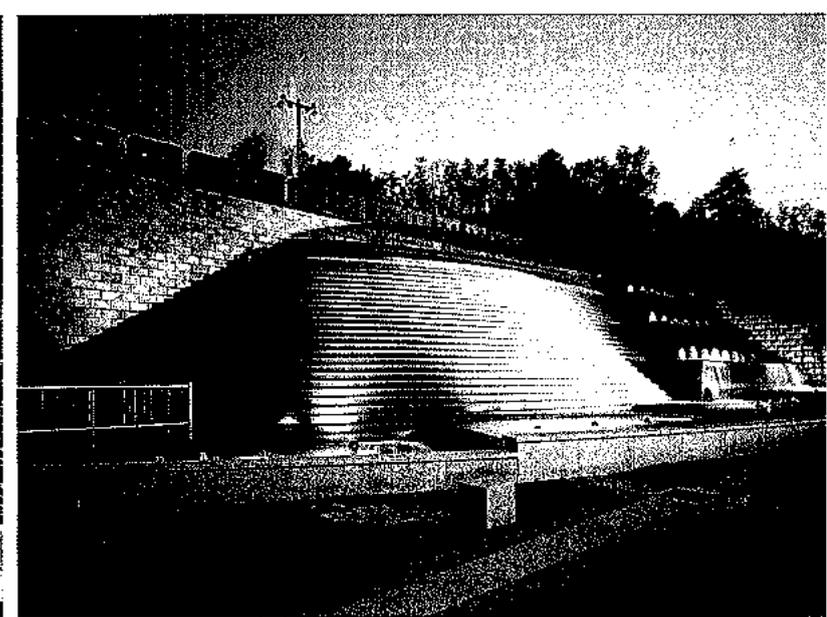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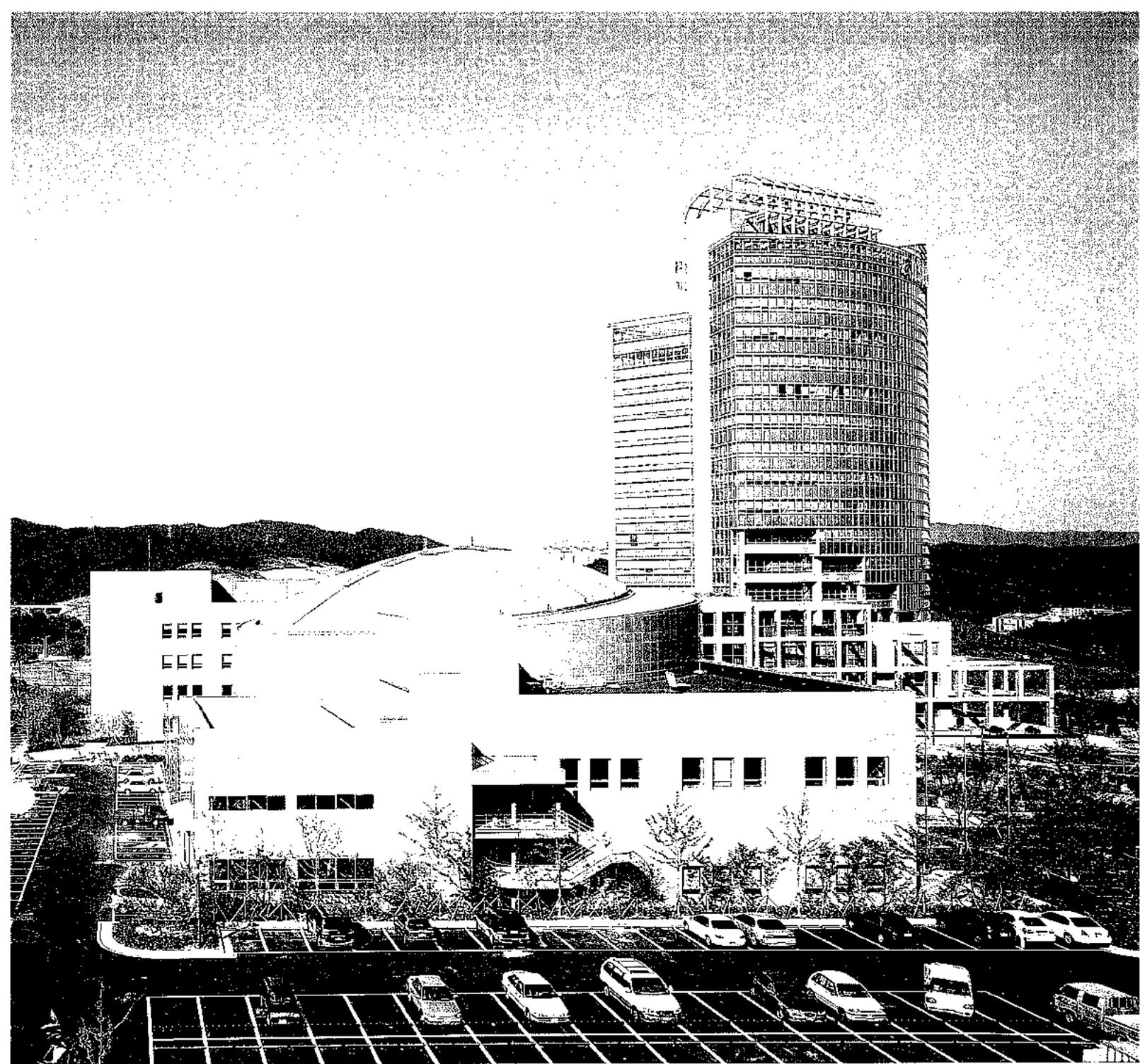
수용, 첨단시설 이미지의 구현과 지원센터로서 상징성 등이 이 프로젝트를 풀어가는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제한 조건들에 대한 디자인 해결은 단순성에서 복합성으로의 전환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원경과 근경

풀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대안과 평가 속에서 전면부 남측면을 시민광장으로 하고 경사가 완만한 북측면에 건물을 배치하여 대지의 경사를 이용하는 계획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다. 이는 장래 개설될 계획도로에 는 전면을 향하고 기존의 수원과 수지를 연결하는 도로에는 등을 대고 앉은 모습을 하고 있다. 전면도로에서는 근경으로 자리하고 통과도로에는 원경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다.

매스의 구성

건물 매스에 대한 해결로서, 단순한 매스에 의하여 기본의 축을 설정한 후 기능에 따라 형태가 변경되는 다비전의 개념이 아닌 에디션의 개념으로 건물의 매스를 구성하였다. 재단시설의 건물매스는 단순한 직사각형의 매스를 ─ '자' 형태로 교차시키고 이렇게 형성된 건물 매



스를 대지의 경사에 따라 배치하고 50m 도로변에 2단계 개발의 부대시설을 브리지를 통하여 연결하였다.

슬리트와 보이드 - 공간의 유연성

8m X 8m 모듈의 큐빅 프레임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4개층 오픈의 아트리움, 서큘레이션 그린스페이스 등은 건물 내 복합기능이 각각 분리되고 연결되는 순환기능을 갖는다. 또한, 8m X 8m 큐빅 프레임구조는 유리로 마감하여 외부의 자연환경이 건물 내부까지 인입되는 투명성을 부여하고 차후의 증축 및 내부공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통의 기린의 형태를 반영한 타원의 원통형 매스는 국제회의의 시설로서 거란 형태의 내부공간기능과 메탈 프레임과 유리로 마감된 서비스 시설이 교차되어 슬리트 스페이스와 아트리움의 보이드 스페이스가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사선과 비정형

기존의 건물디자인에서 보여졌던 마이너한 코어 스페이스를 건물 매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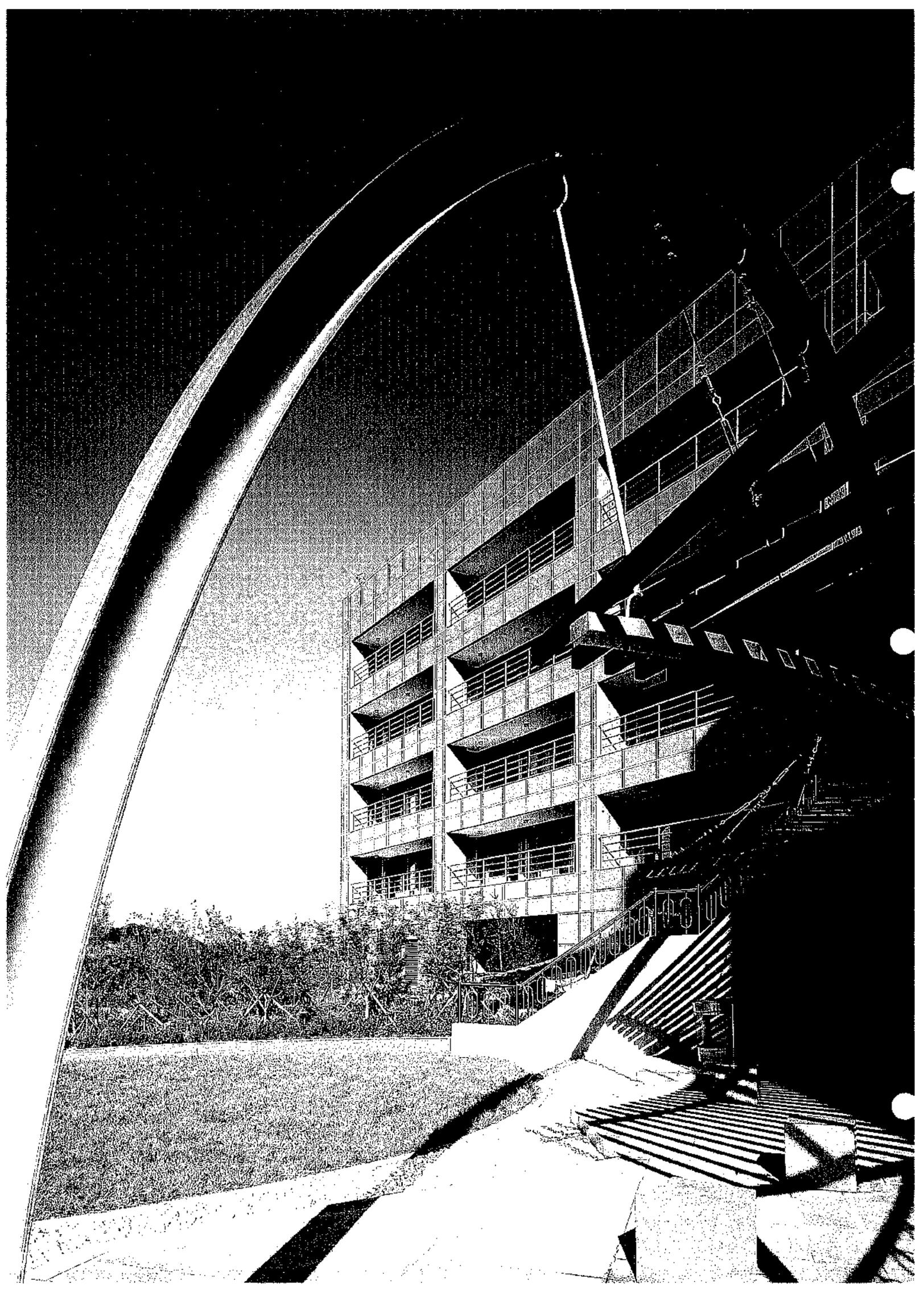
변화요소로 활용하면서 아이코닉한 역할과 동적 느낌을 갖도록 건물축에 변하는 사선으로 배열하였다. 국제회의시설, 코어스페이스와 같이 동서의 축에 따라 사선 배치된 지원센터의 오피스타워는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에 각각 그린 룸 및 휴게발코니를 설치하여 입면 형태에 변화를 주었다. 이는 비정형의 메인 타워가 전면 도로에 대하여 점잖게 비켜선 모습으로서 기존에 보이온 경직되고 획일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한층 더 성숙한 자세의 건축 배치를 보여주려 한 의도와 연관되어 있다.

외부공간의 감동 - 화성의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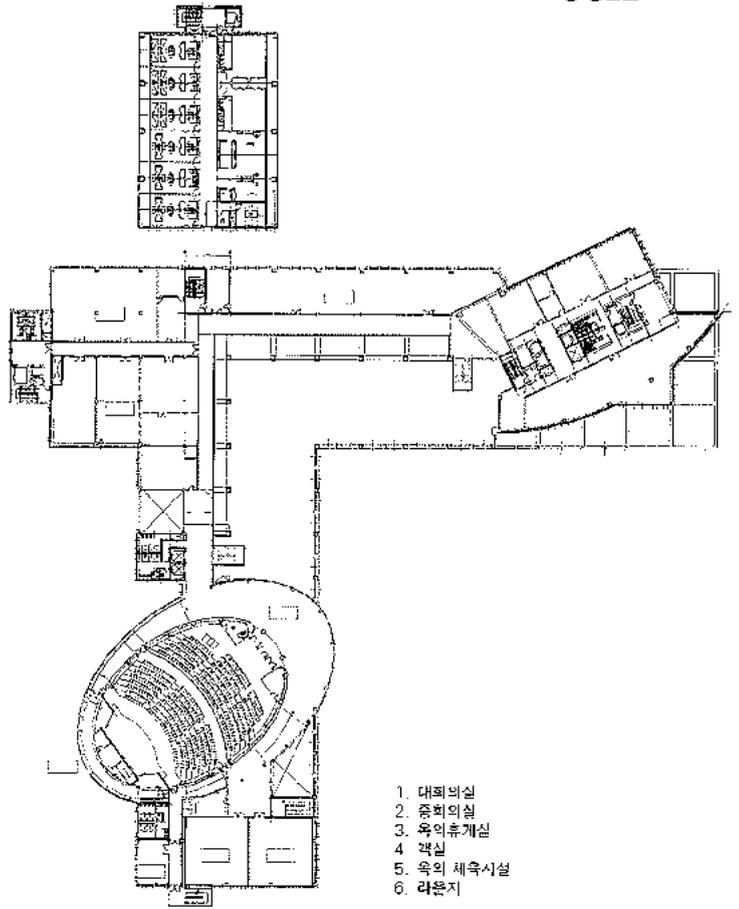
상징광장은 크게 상부의 대형 연꽃을 중심으로 한 광장부와 중앙광장 방향으로 형성된 벽천부, 진입광장과 연계된 효의 광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세부 디테일에 있어서는 수원성의 성벽을 일부 차용하여 지역적 기억에 의지하였다. 기존의 수림과 조경수목이 어우러진 조경공간은 점면광장을 통하여 선광장으로 흘러서 지하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있으며, 이는 입주할 전문분야 벤처기업인들에게 무한한 에너지와 풍부한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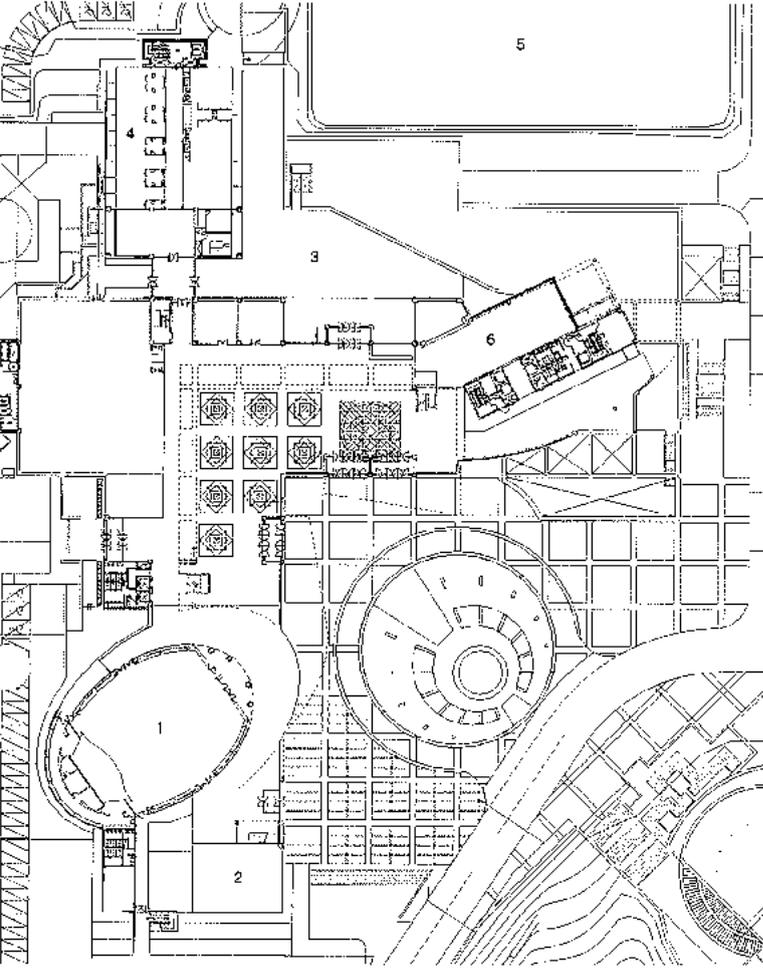


10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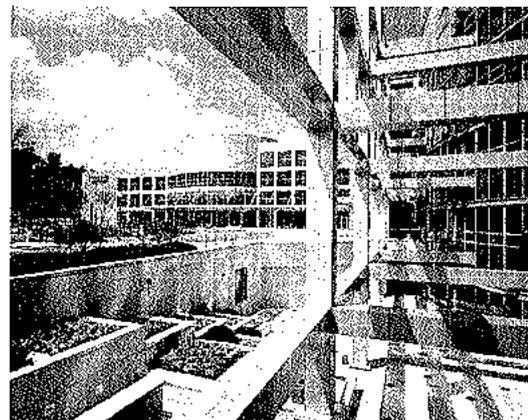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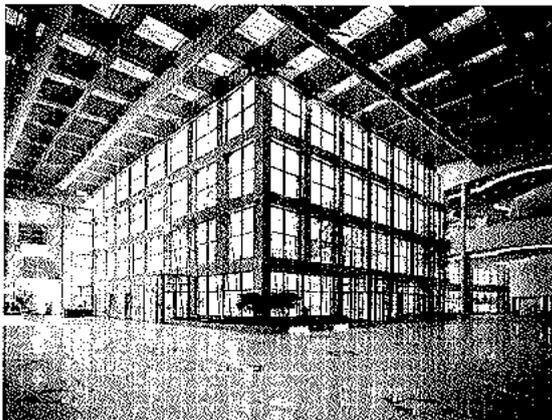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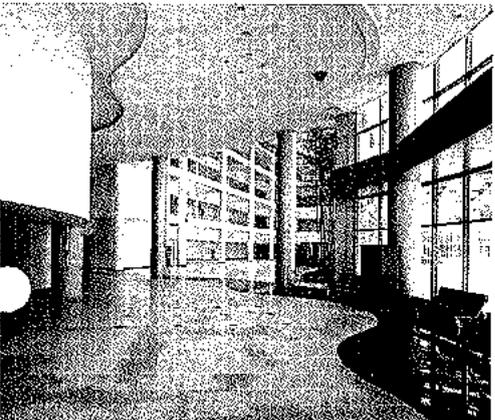


- 1. 대회의실
- 2. 상의회의실
- 3. 총의무개실
- 4. 객실
- 5. 주차 세차시설
- 6. 라운지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

Uijeongbu City Arts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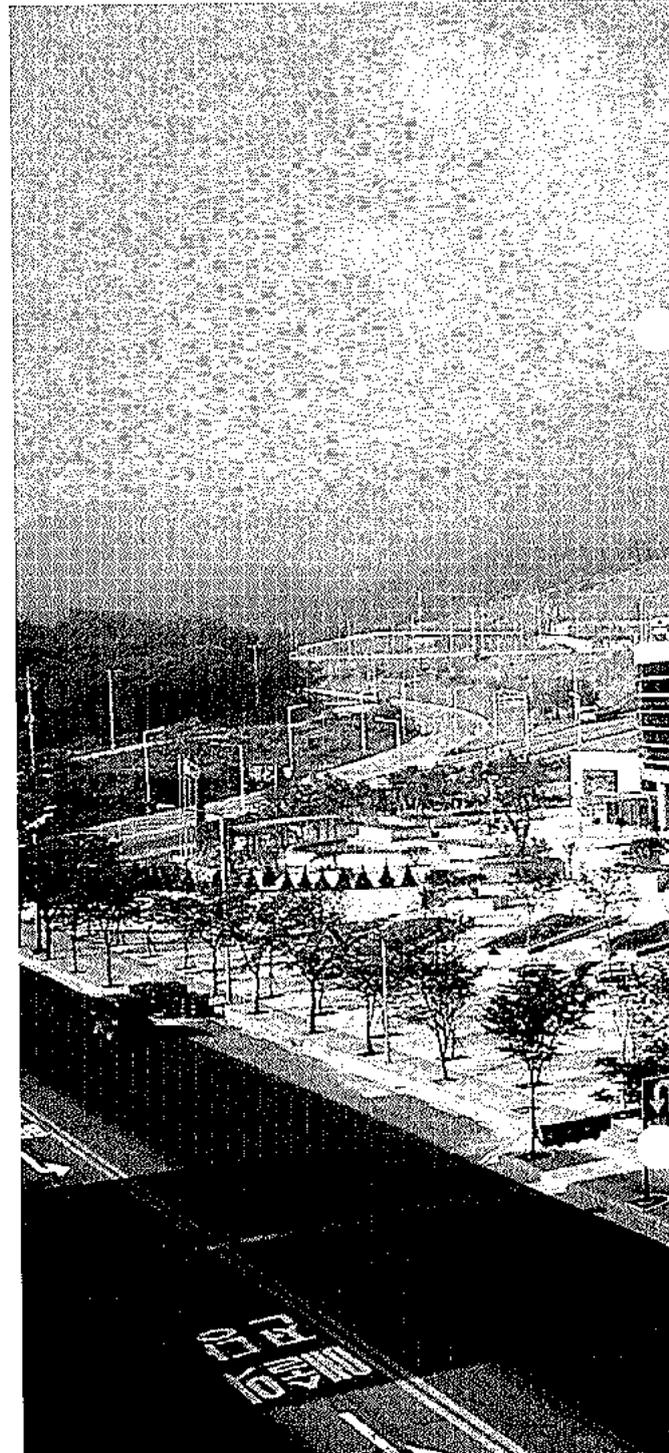
임장렬 / (주)성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im Jang-Rye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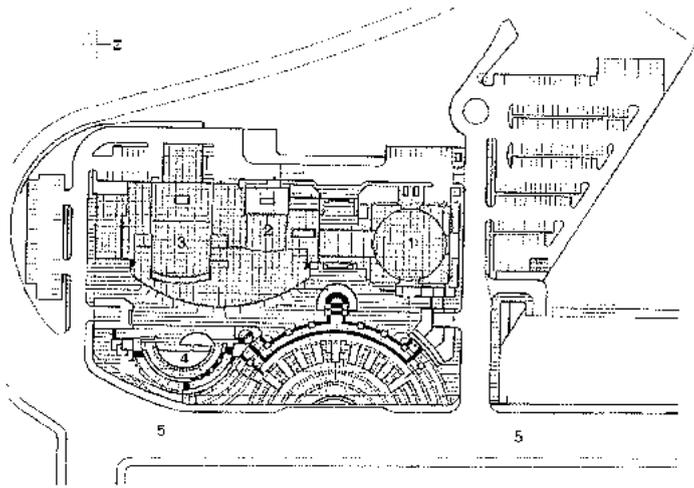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351-1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40,273.00㎡
연 면 적	22,273.05㎡
건축면적	7,086.00㎡
건 폐 율	17.59%
용 적 륜	28.93%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일부철골조)
외부마감	THK30 화강석버너구이, THK24 절러복층유리
설계기간	1993. 12~1994. 12
사공기간	1995. 12~2000. 12
구조설계	강봉현구조사무소
토 목	(주)호산ENG
기 계	명성기술사사무소
전 기	김산기술사사무소
조 경	도화종합기술공사
무대설비	(주)다이공전, 영화조명, 아이테크
시 공	(주)태영

의정부의 랜드마크적 역할과 진정한 시민의 문화창달, 여가선용의 장으로서의 상징성, 친근감을 갖는 민주적 건축으로의 이미지 연출, 건축물의 예술성 및 실용성, 시설이용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야외공연장 및 휴식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수용되게 하여 즐거운 교류가 이루어지고 쾌적한 공간이 형성되도록 계획을 하였으며, 시민의 심신단련 및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Open Space의 확대로 접근의 용이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문화예술활동의 중추적 공간인 공연장, 전시장, 향토시료관, 회의장 등을 상호 유기적이고 복합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기존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려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의정부 지명 유래와 연계하여 의정부 특징과 상징성을 살리는 조형미를 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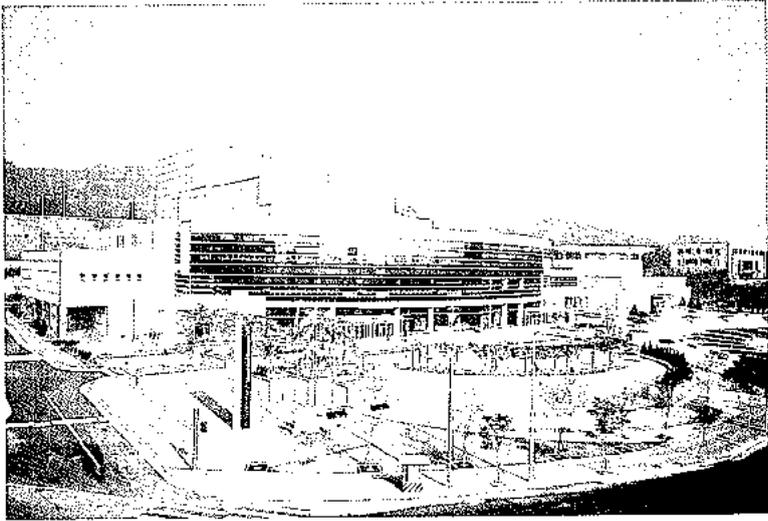
배치도

그리고 각 기능의 분리를 통한 독립성 확보와 상호 연결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융통성 및 가변성 부여로 장래의 공간변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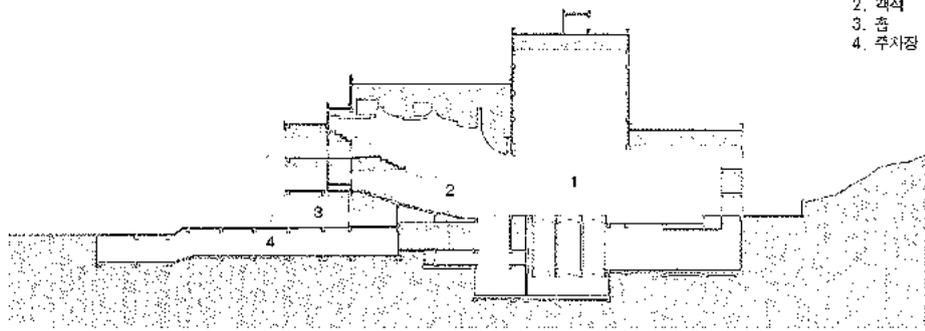
내, 외부공간의 원활한 동선연결과 융통성있는 공간배치로 대지 전체가 문화적 체험공간으로 인지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대지 이용과 건물구조의 합리화로 유지관리비 절감, 에너지 절약 등 경제성을 고려하였다. ㉑

- 1 전시장
- 2 소강당
- 3 대강당
- 4 수공간
- 5. 전면 30m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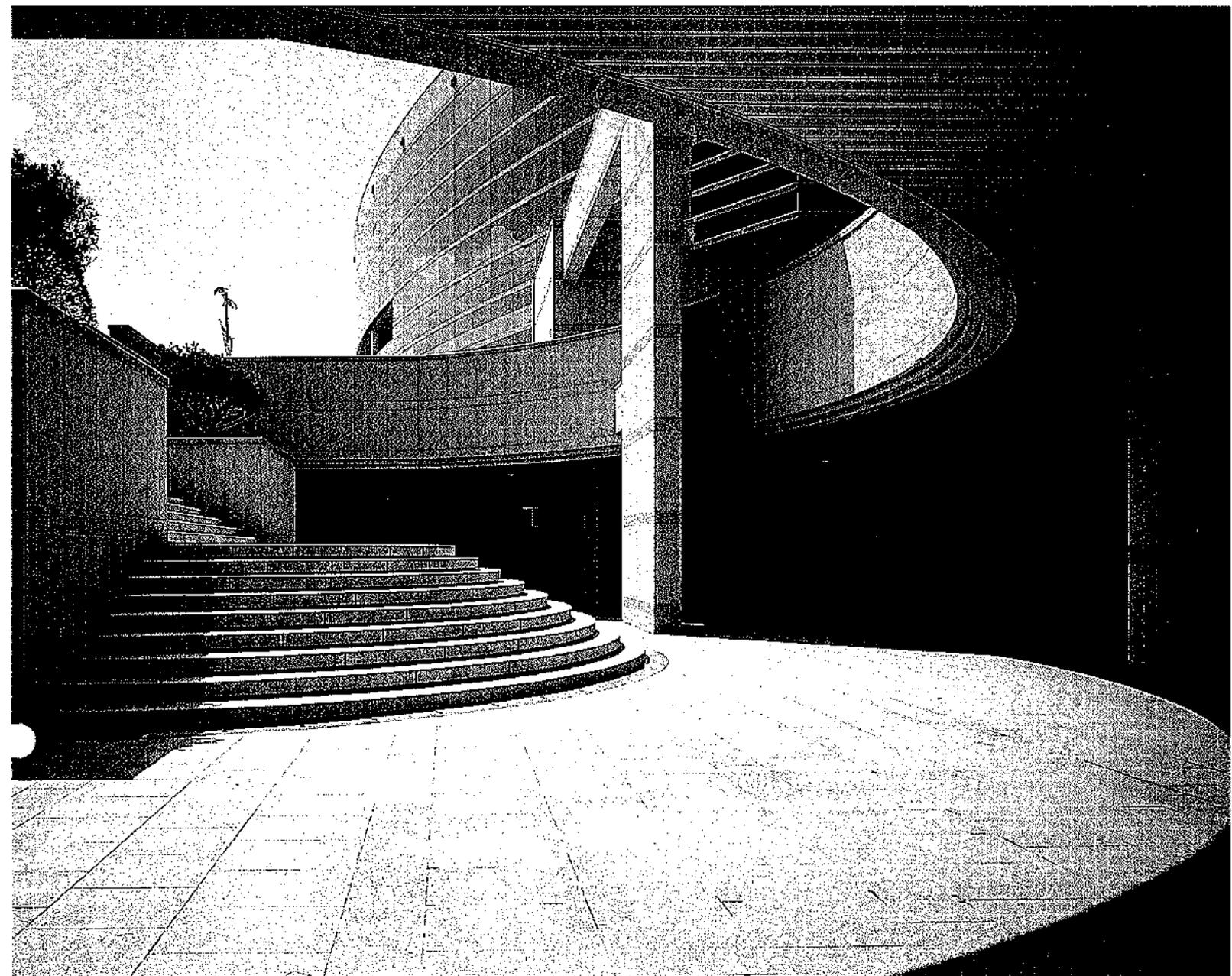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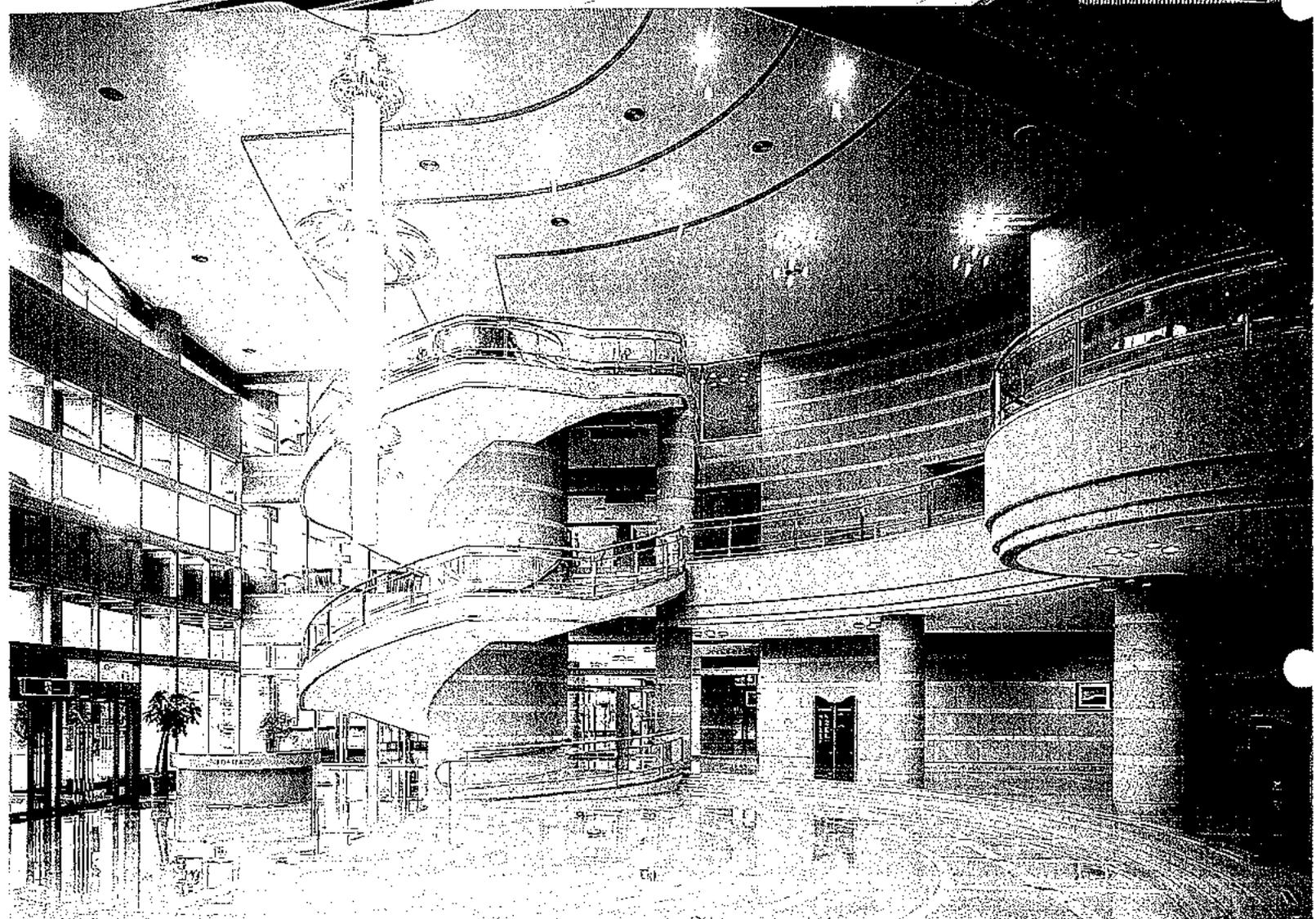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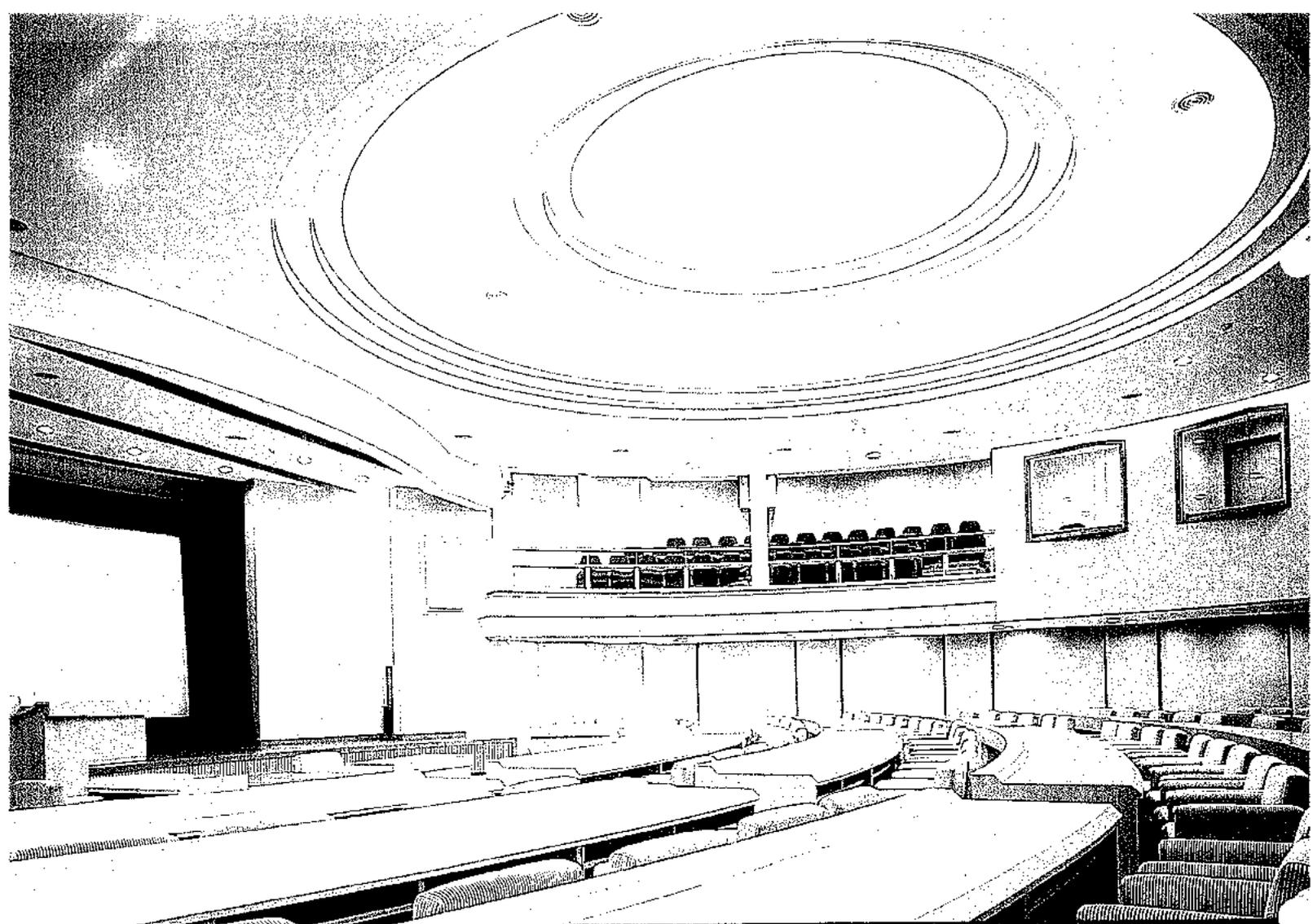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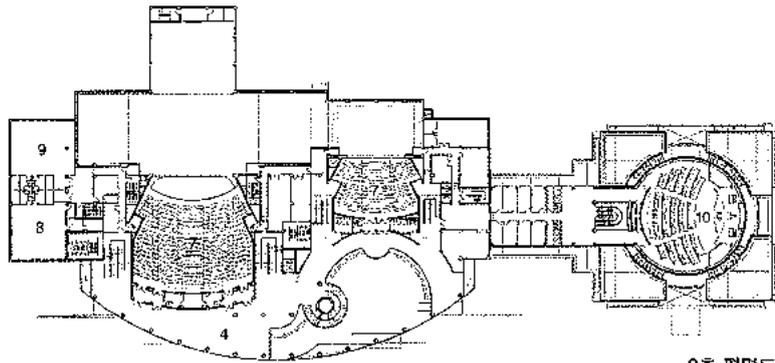
- 1. 무대
- 2. 객석
- 3. 층
- 4.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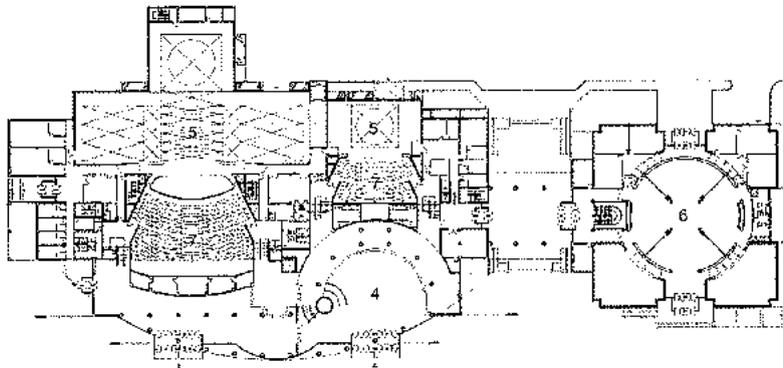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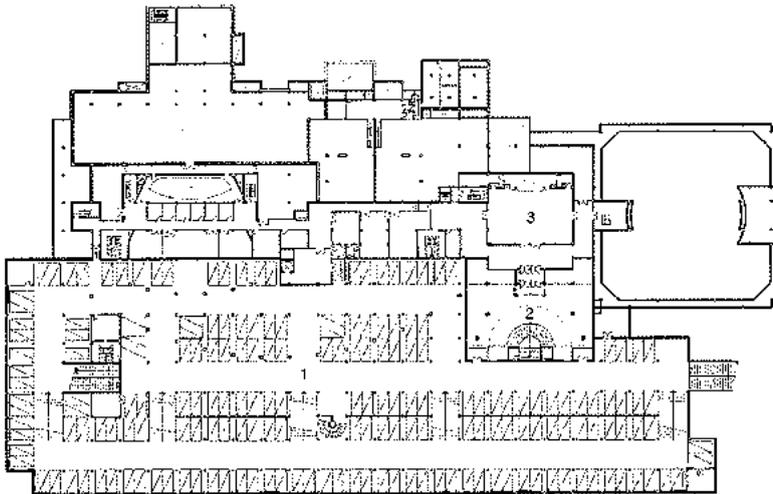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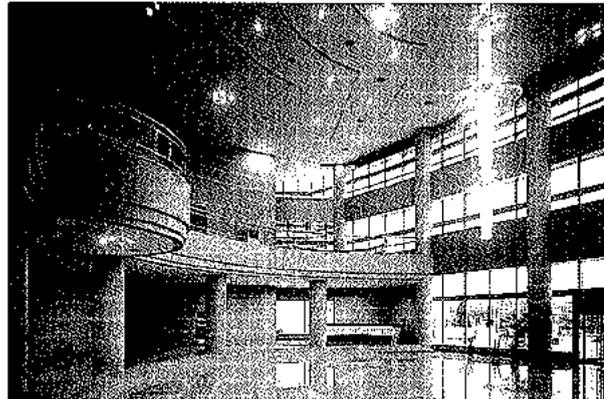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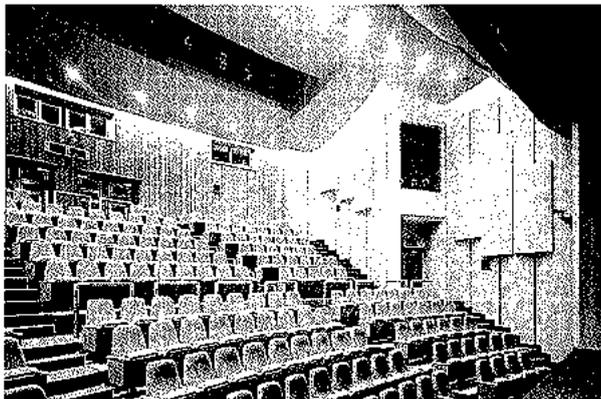


1층 평면도



1. 주차장
2. 서극
3. 입회 및 다목적홀
4. 로비
5. 무대
6. 전시실
7. 객석
8. 오케스트라연습실
9. 무용연습실
10. 태피리실

지하층 평면도



부산해운대 공동체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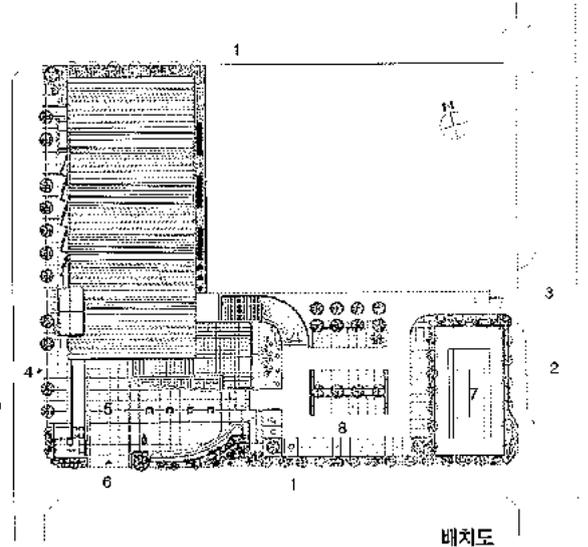
Haewoondae Sports Facilities

이영희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ung-Hee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 해운대구 좌동
 용도 체육시설
 연면적 11,094㎡
 규모 지하2층, 지상4층

1. 8m 도로
2. 20m 도로
3. 차량진출입(주진입)
4. 주진입(보행자)
5. 점면광장
6. 부진입(보행자)
7. 테니스 코트
8. 옥외주차장



배치도



해운대 교육청 공동 체육시설은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형성, 경제성 및 효율성 있는 시설 제공, 21세기를 대비한 진취적, 현대적인 이미지 창출을 목적으로 계획 하였다.

해운대 신사가지 지역은 지리적으로 부산 동단에 위치하고, 도시계획 구역으로서 방사형 도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초중 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산재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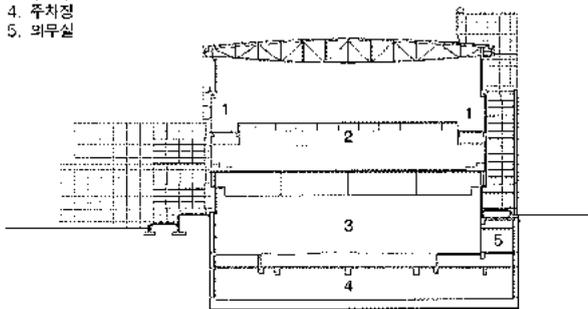
대지 현황으로는 대지가 동서 방향으로 3m기량의 경사를 이루며 대지 주변의 남측과 서측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차량 출입이 불가하다. 또한, 대지 서측에는 2차선 국지도로가 있고 대지 동측에는 4차선 보조 집선도로가 있고 대지 북측은 일방통행 도로를 사이에 두고 상가 건축이 길게 늘어서 있다.

공동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은 운동시설 부분, 관리문화시설부분, 출입구출 부분, 동선부분으로분리하였다. 분리된 프로그램은 각각 형태적으로 다른 매스로 표현되며 그들의 조합으로 전체가 구성되도록 계획했다. 운동시설들의 사이에 출입구 출을 계획 하여 창조감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동선부분들은 전면도로에 근접하도록 배치하여 개방적인 이미지를 부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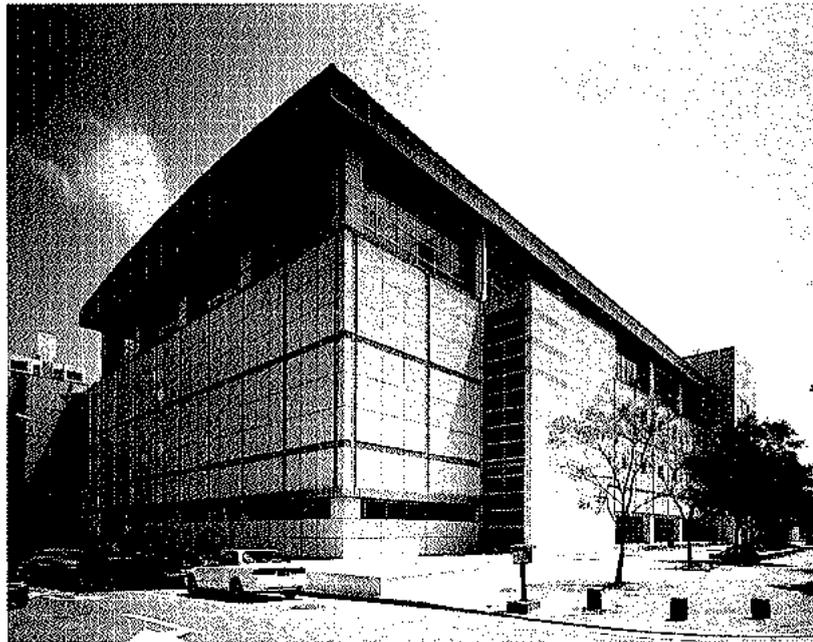
입면계획은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의 장으로써 역동적이고 경제한 이미지 추구하였고, 투명성 확보로 내외부 공간의 기능 표출과 구조의 명쾌한 표현 및 내외부 공간의 연계성을 주는 동시에 도시의 야경에 활력을 줄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지붕은 날렵한 곡선 형태를 도입으로 체육시설의 활력성을 표현하였다. 재료사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유지 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규격화 하여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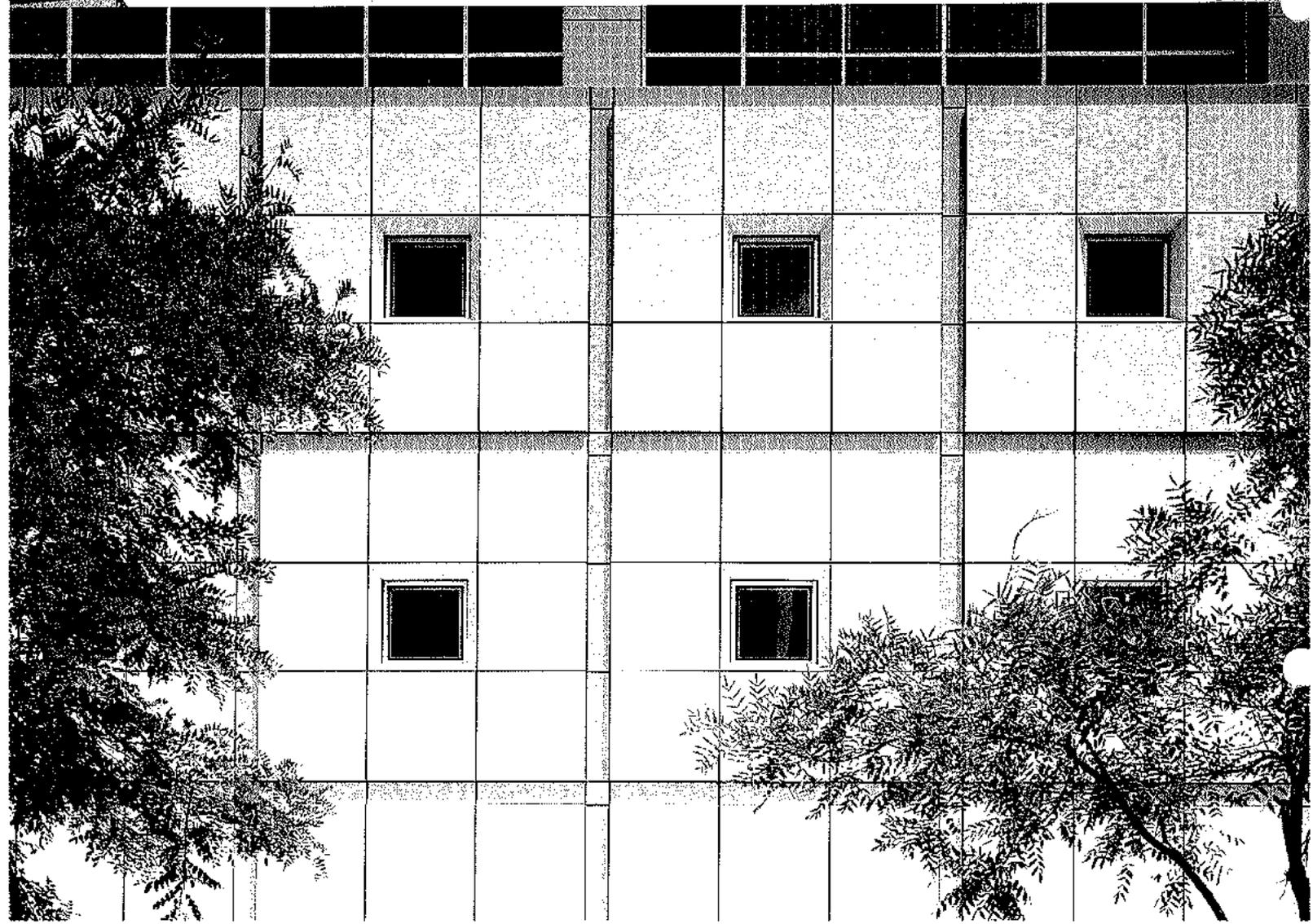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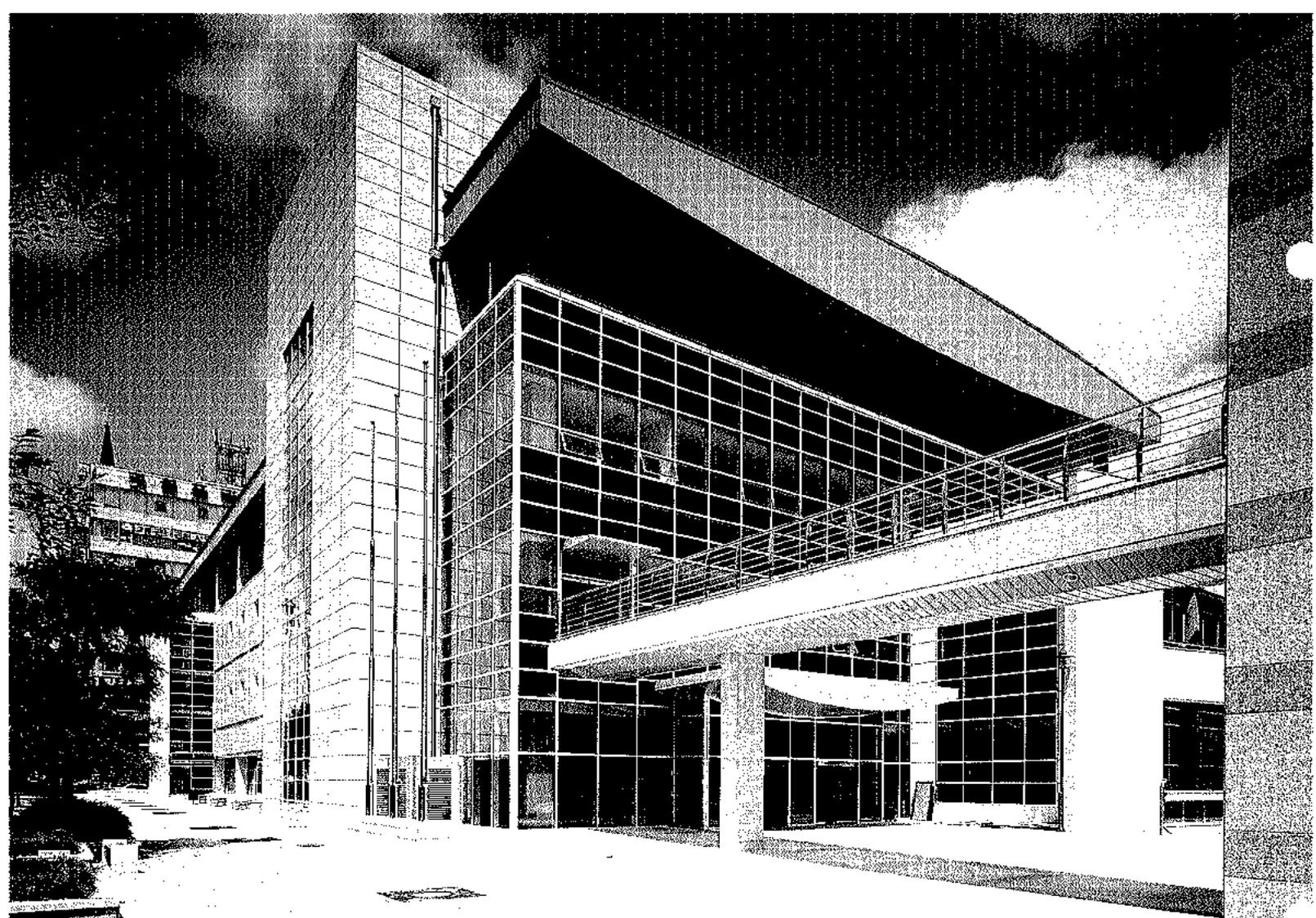
구조계획은 2층 체육관 바닥은 철골조립보로 설계하고, 체육관 지붕은 CT형강 TRUSS구조로 계획 하였으며, 소체육관 및 문화교실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 리멘구조로 계획하였다. 수영장 부분 지하층 외벽설계는 수영장 바닥부분에 FRAME를 설치하여 외벽 수평보 + 상하 지지 스티브 형식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기초형식은 지반에 지지 연속 기초 형식으로 계획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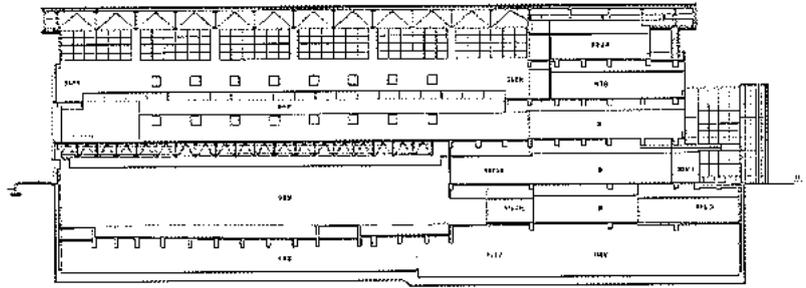
- 1. 중길트랙
- 2. 체육관
- 3. 수영장
- 4. 주차장
- 5. 의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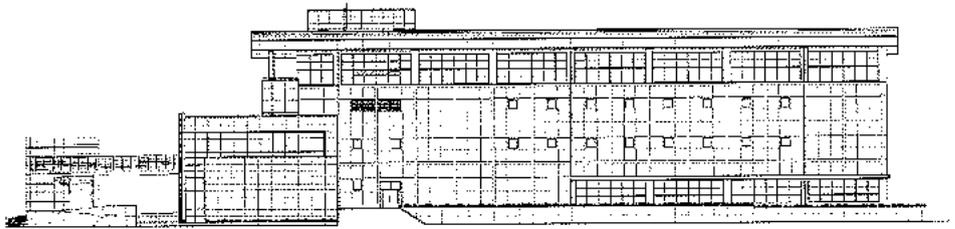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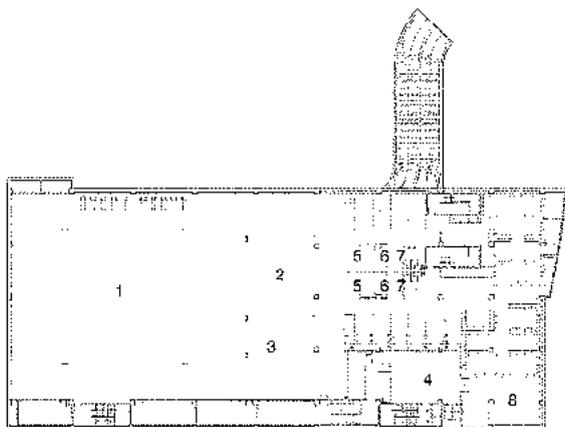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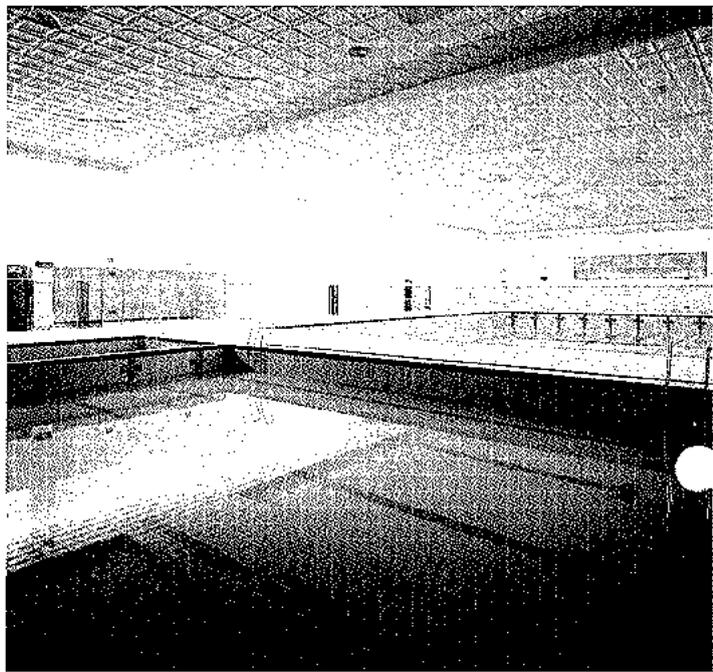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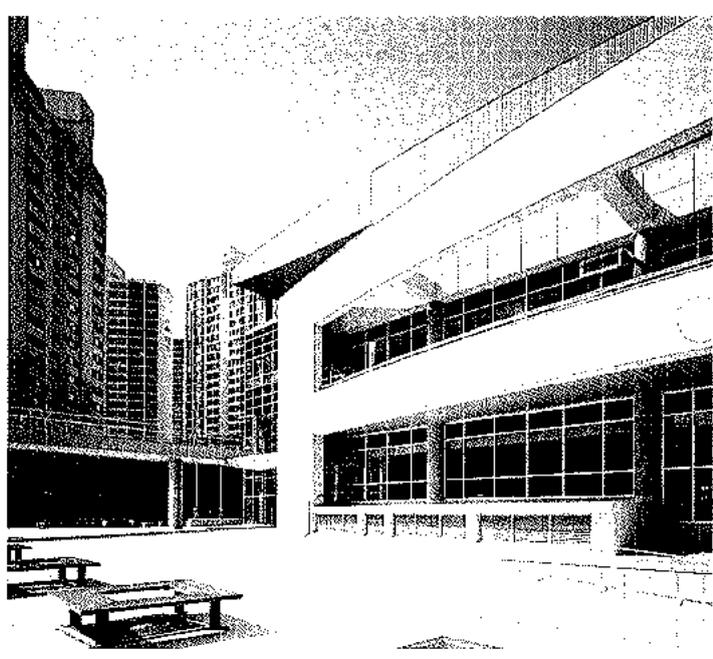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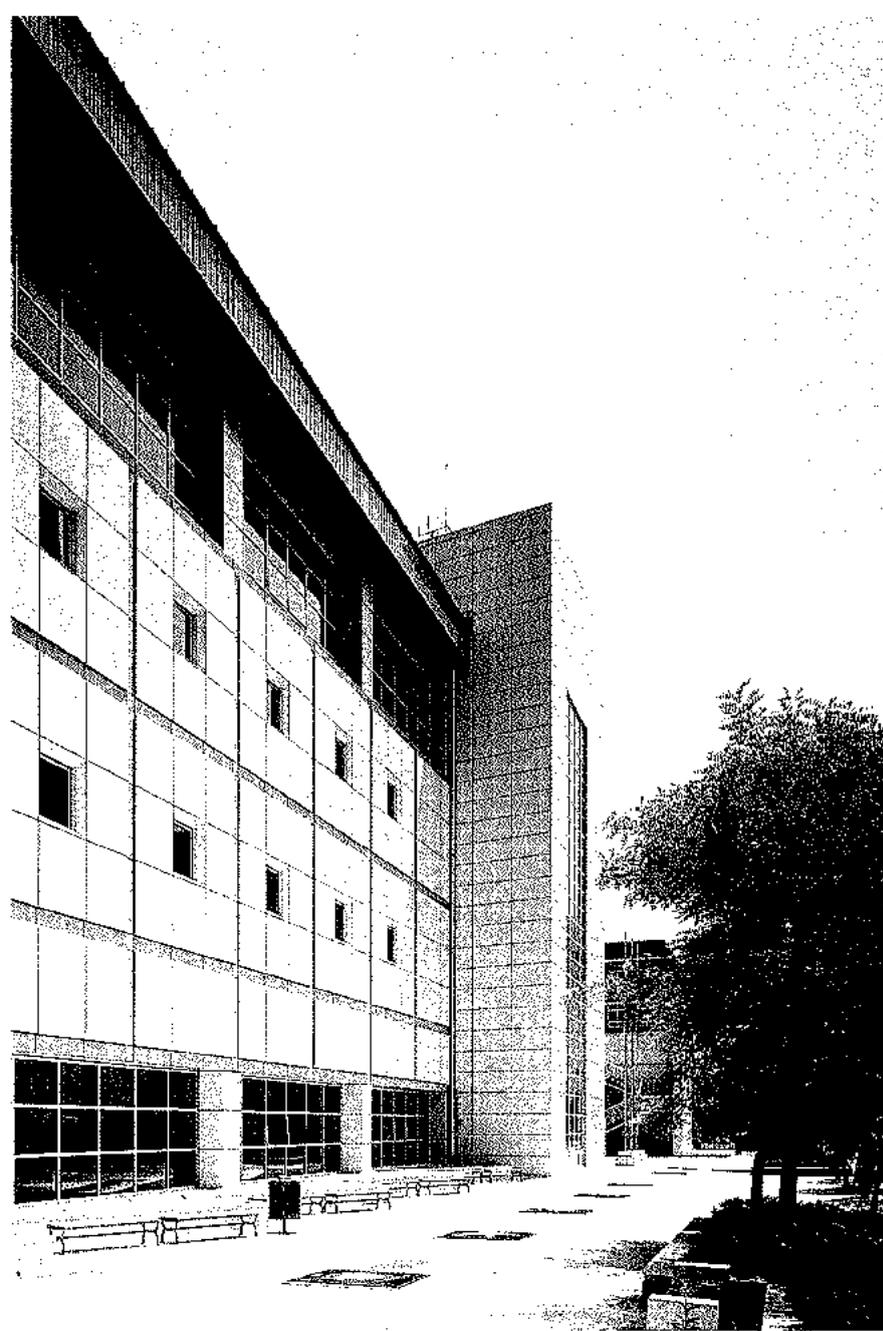


청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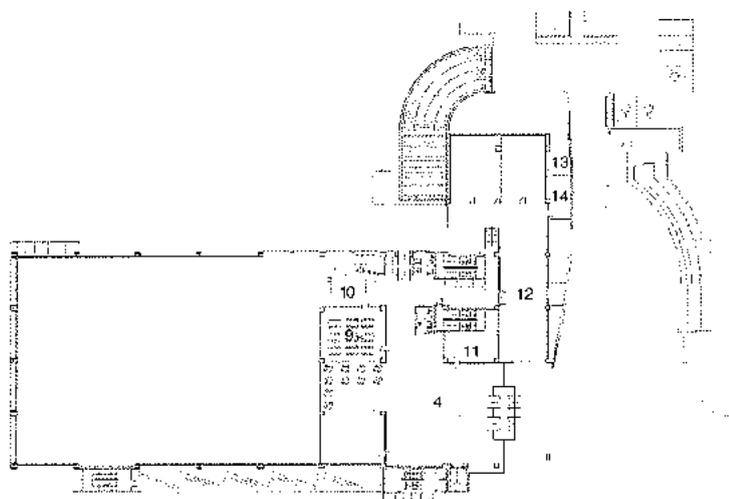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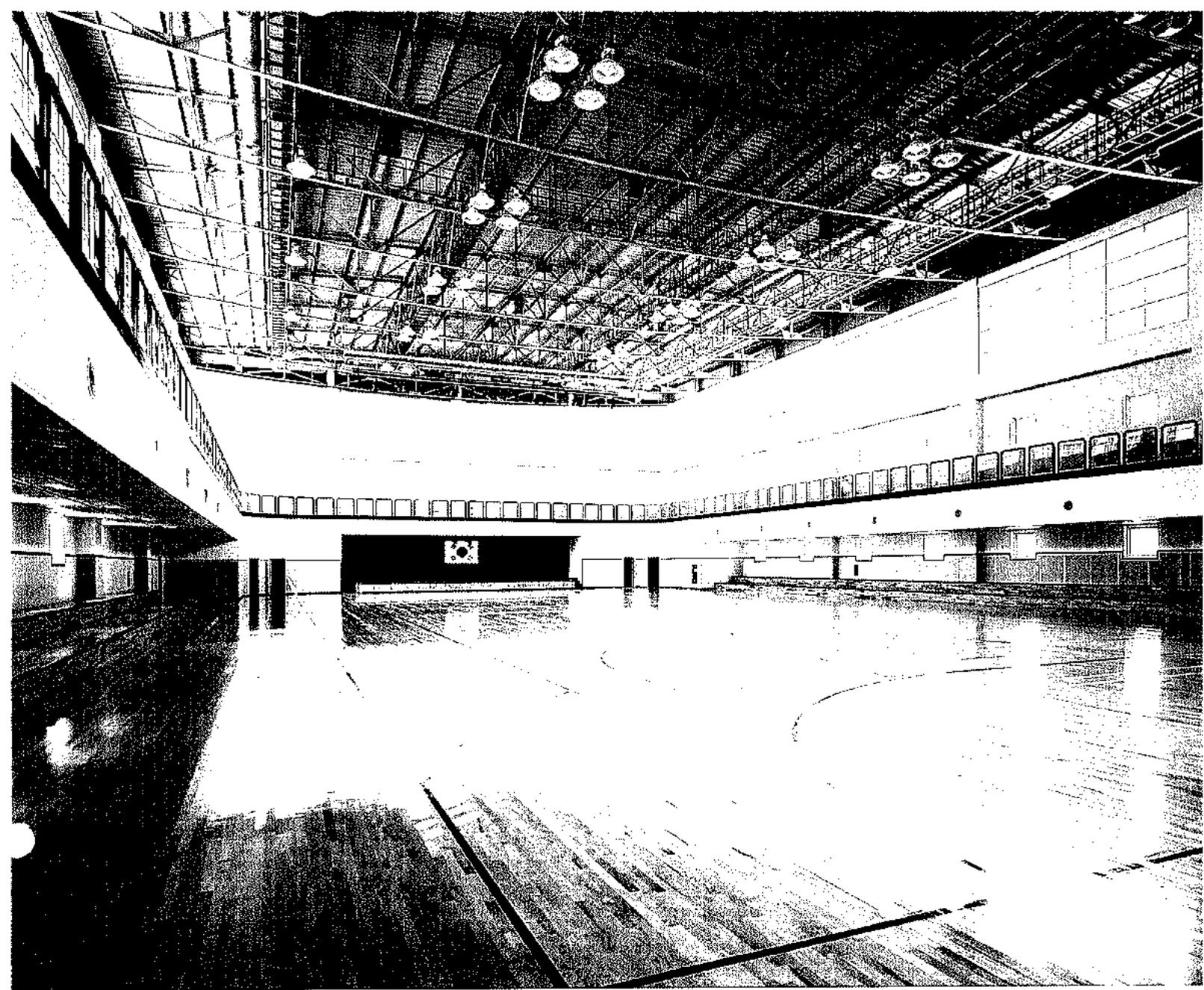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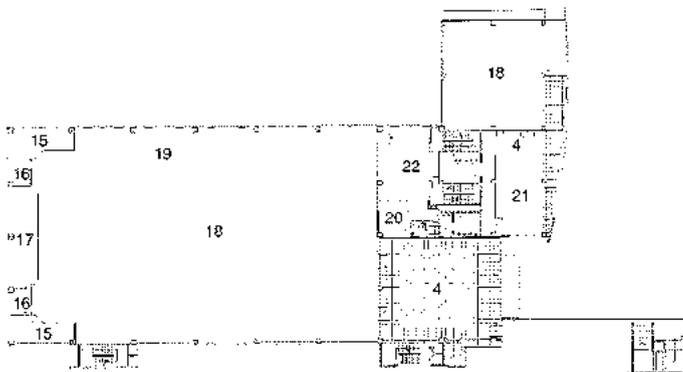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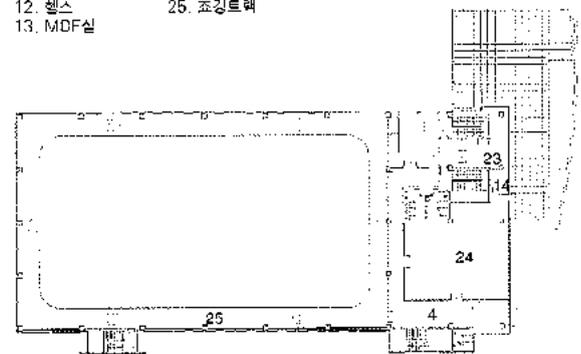
1층 평면도



- | | |
|------------|--------------|
| 1. 수형상 | 14 코치실 |
| 2. 어린이놀 | 15. 체육기기실 |
| 3. 유아놀 | 16 선수대기실 |
| 4. 홀 | 17. 무대 |
| 5. 온탕 | 18. 체육관 |
| 6. 체온관리실 | 19. 객석 |
| 7. 널방 | 20. 조청실 |
| 8. 발매센터 | 21. 유아 체능 교실 |
| 9. 직원식당 | 22. 에어로빅 |
| 10. 주방 | 23. 예비실 |
| 11. 스포츠용품점 | 24. 탁구장 |
| 12. 헬스 | 25. 조깅트랙 |
| 13. MDF실 | |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대한고려호텔

KT

KTC

대한고려호텔

대한고려호텔

어 이용의 편의성과 공간의 연계성 도모

2~4층 : 이용객들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코어를 중심으로
각실을 배치시켜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기능별로 분화

-기준층 : 적절한 코어 확보의 배치, 장스팬 우주 공간 계획으로 가
변성, 융통성 있는 공간과 쾌적한 사무공간 확보

지하층 계획

지하 1층에 주차장을 확보여 근린생활 시설의 원활한 서비스 동선
이 되도록 한다.

지하 2층은 자주식 주차장을 두어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지하 3~4 층은 기계식 주차장을 두어 충분한 주차대수를 확보한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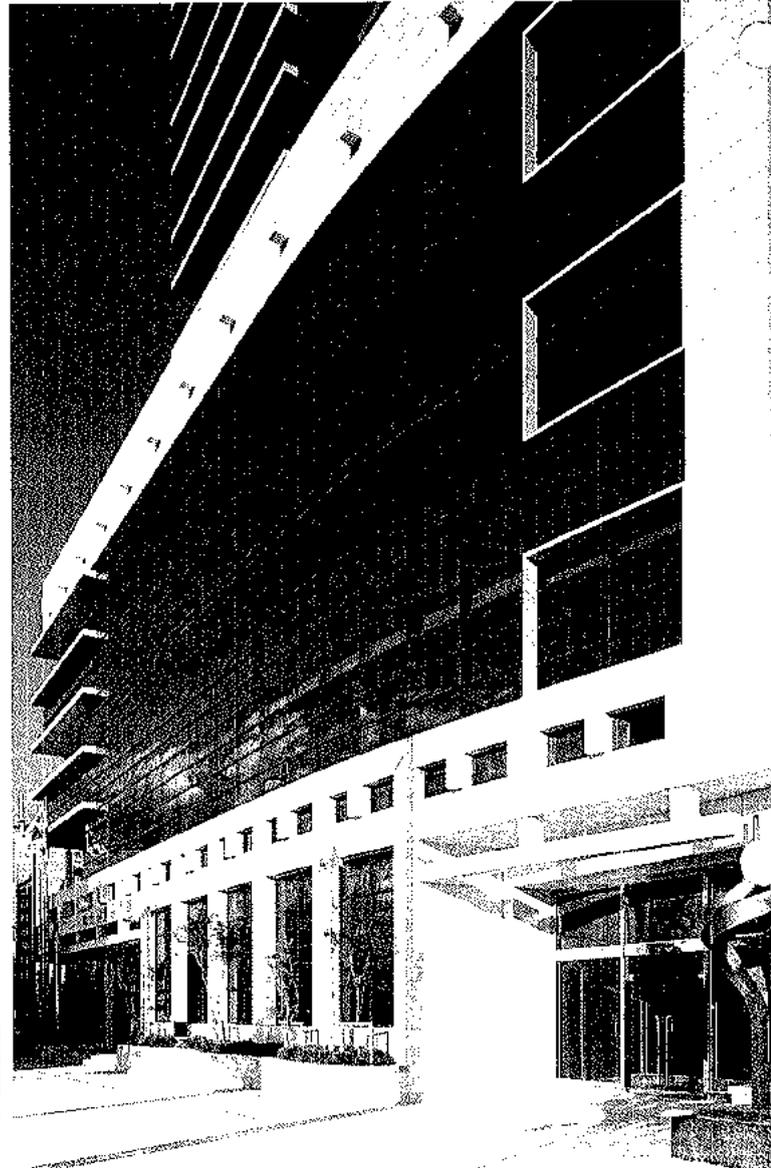
기본방향-춘천시는 호반의 도시로서 호수가 가지고 있는 투명성,
수평성, 부드러운 이미지를 부여하여 지역적 특성을 대표한 입면
이 되고자 한다. 도시의 성격에 부합하고 기능에 적절한 입면요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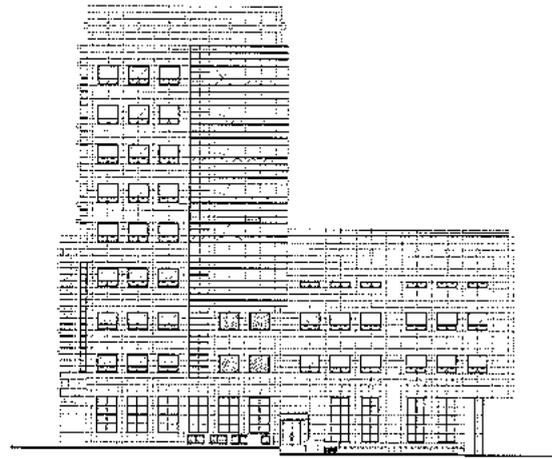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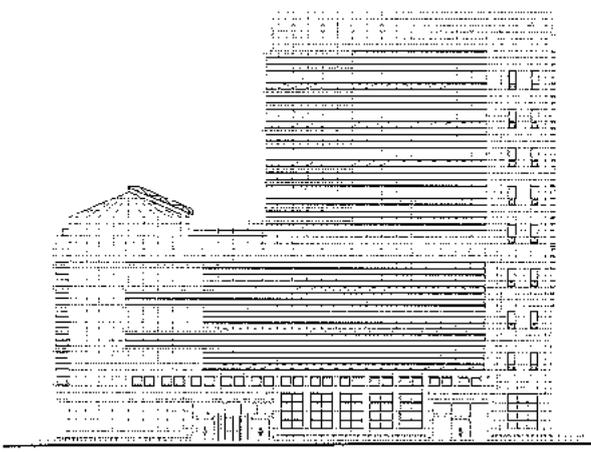
도입하여 창의적 건물이 되고자 한다.

수평적 요소를 기본 패턴으로 매스와 조화를 이루고 안정감을 부여한
다. 전면도로를 따라 흐르는 곡선은 보행자에게 경쾌감과 리듬감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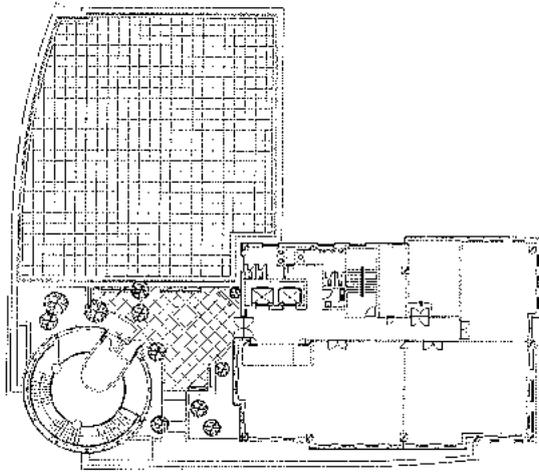
유리와 알루미늄 패널을 주 소재로 복합건물로서의 현대감각을 표
현한다.

커튼월의 도입으로 투명성, 개방감 확보하고 로툰다의 도입으로 인
지도를 높이고 시각의 정점이 되고자한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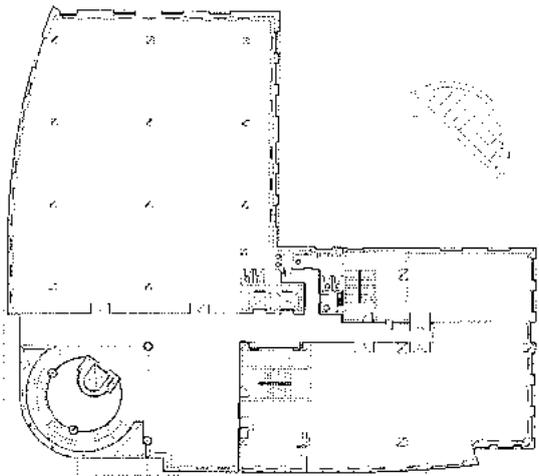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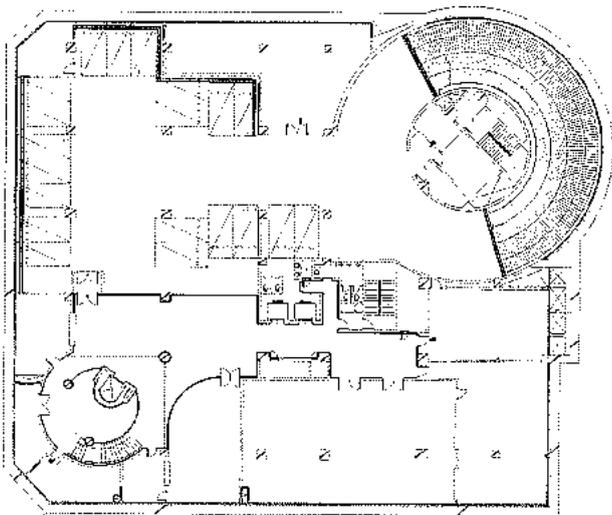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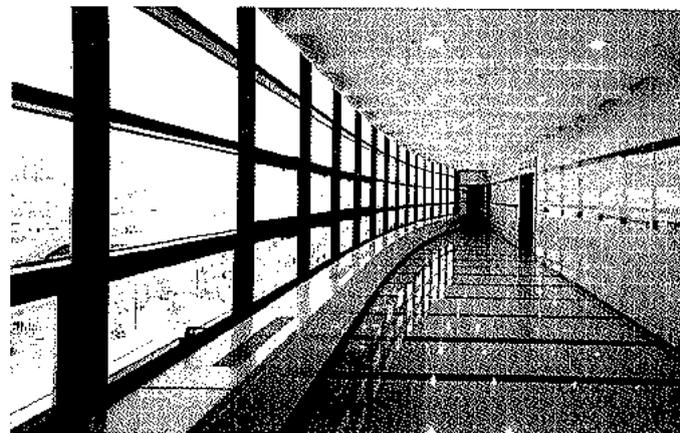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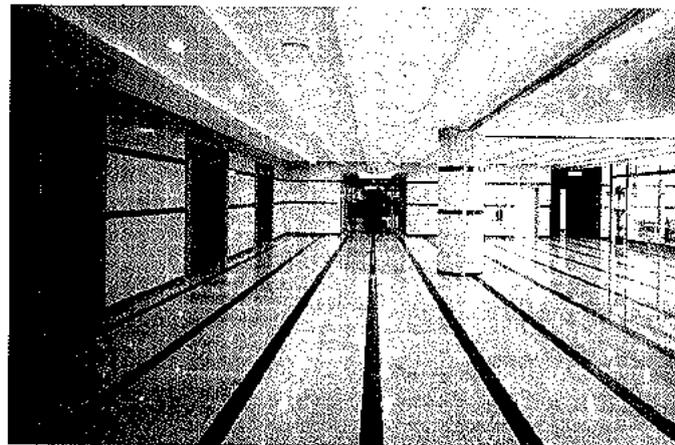
5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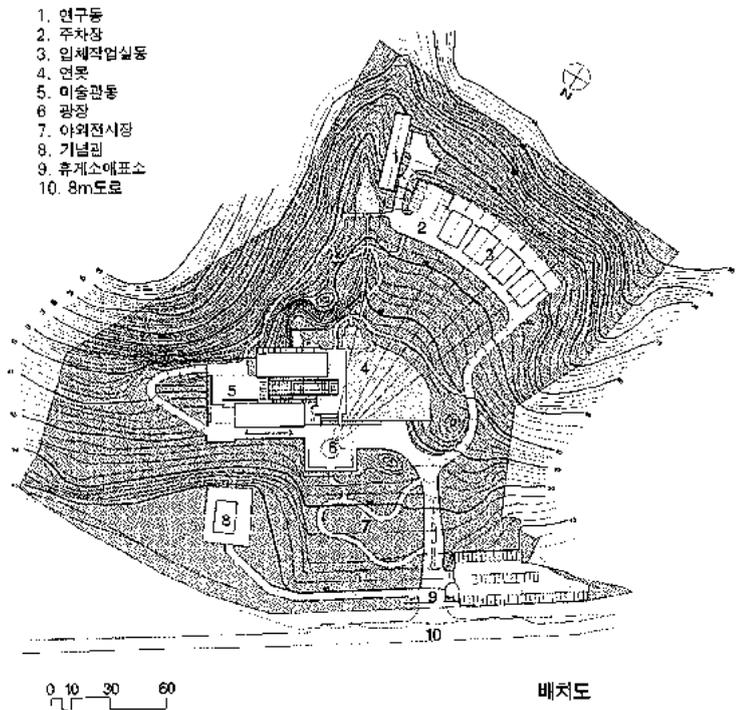
영은미술관

Young-Eun Museum

황일인 / (주)일건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Hwang Il-In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쌍령리 12번지의 21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 용 도	전시시설(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58,796.00㎡
건축면적	3,005.05㎡ 미술관-1,921.39㎡ / 연구동-280.01㎡ 창작동-642.4㎡ / 기타부속동-161.25㎡
연 면 적	5,879.42㎡ 미술관-3,967.32㎡ / 연구동-929.73㎡ 창작동-642.4㎡ / 기타부속동-339.97㎡
건 폐 율	5.11%
용 적 륜	8.31%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조경면적	38,966.14㎡
구 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설비방식	팩케지 에어컨에 의한 냉난방 설비
내부마감	대리석, 수성페인트
외부마감	회강석, 동판, 복층유리
건 축 주	대유문화재단
시 공	유진산업
설계담당	김중찬, 권순진, 민흥기, 민규암, 이상은
구조설계	선구조



풍피두센터가 '문화의 대중화'를 선언한 이후 문화시설의 역할과 그 운영방법에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또한 예술 및 문화는 장르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점차 총체적, 종합적 양상으로 전개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 맞추어 영은미술관의 설립취지도 미술분야 뿐 아니라 영상, 음악, 공연 예술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지역의 문화예술 중심'을 만드는데 있다.

이에 따라 영은미술관은 일반 미술관이 갖추어야 할 전시, 교육, 조사, 연구, 보존 등의 기본 기능과 더불어 일상적 문화 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시관과 창작 스튜디오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은 영은미술관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작가

가 거주하면서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의 창작스튜디오를 개설함으로써 창작 활동을 좀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창작과정까지 일반시민, 아동을 위한 강좌, 실기교육과 더불어 공예 공방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 사업체와의 협동을 통한 문화산업의 개발 프로그램 등도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여가 되겠다.

부지는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서북쪽으로 광주읍을 향하여 열린 말굽형 계곡이다. 계곡이 끝나는 곳에 경안천이 있어 부지 후면의 산세와 함께 중요한 주변 환경요소가 되고 있다.

기용면적이 매우 협소하여 기존형질의 변형을 최소화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건축계획을 도출해 내는 것이 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기법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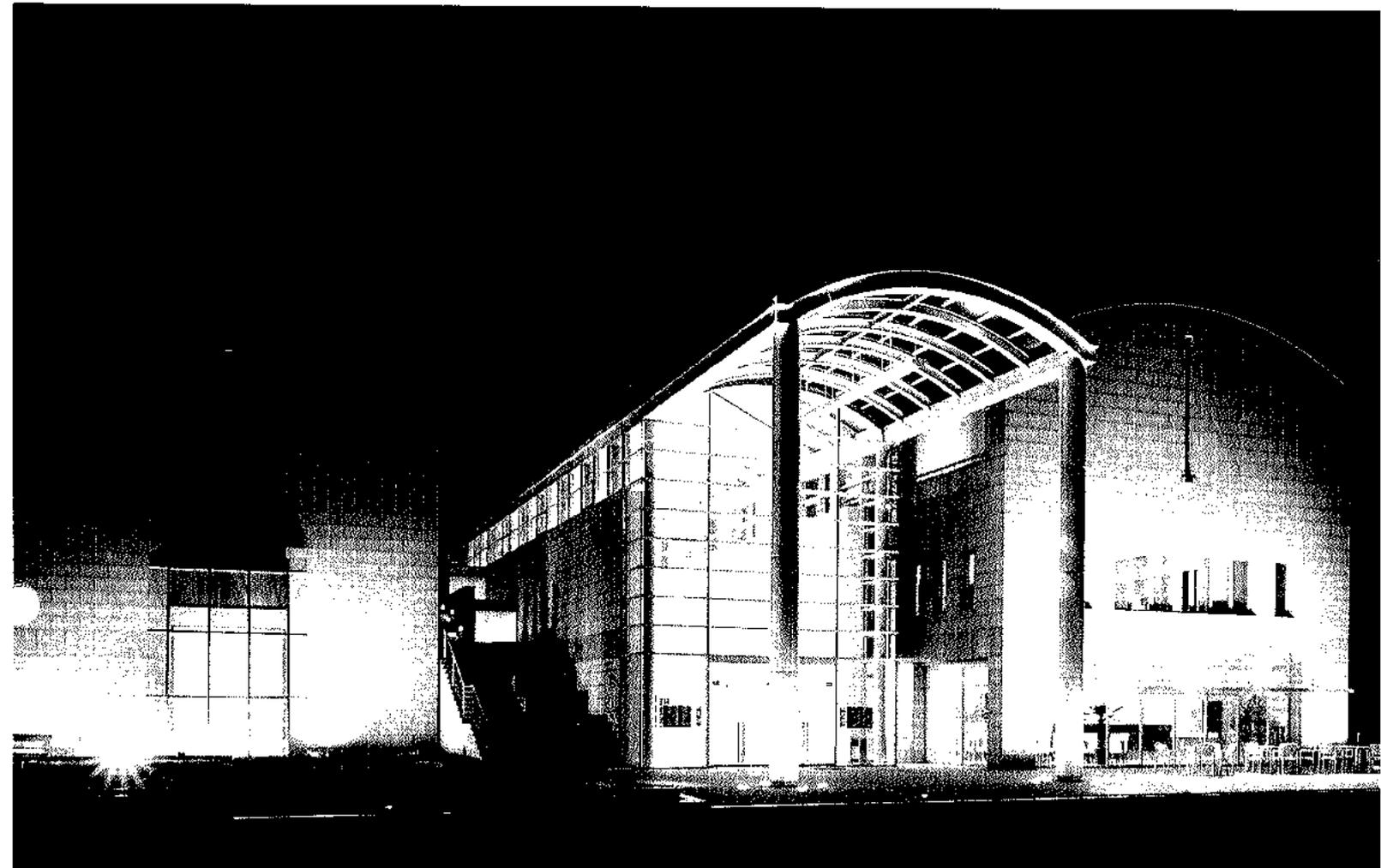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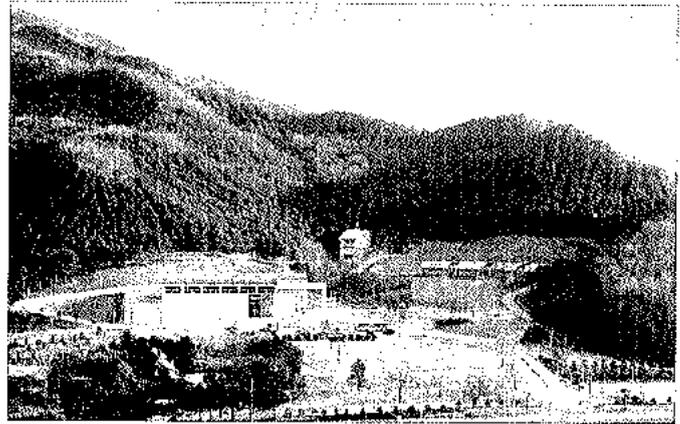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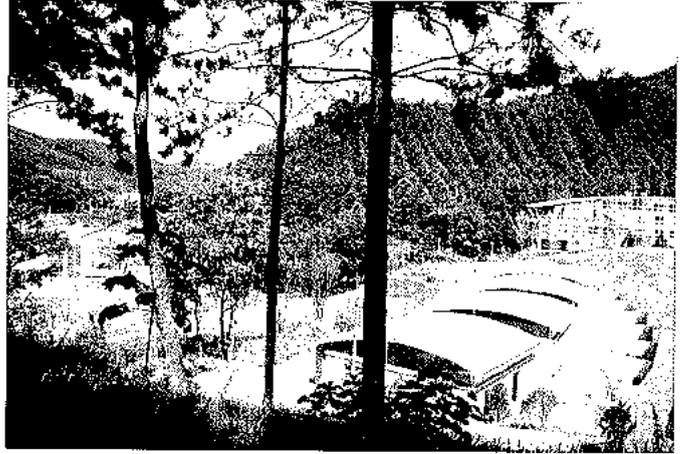
- 경사지를 적극적인 건축요소로 도입하여 대지와 건축을 일체화한다.
- 공간을 작은 크기로 분할하여 주변 자연환경의 스케일에 순응시키고 단계적 시공이 가능토록 한다.
- 골짜기의 개천수를 경안천과 연계되는 주요 조경요소로 하며, 내부와 외부 공간을 연결, 확대, 다양화 한다.
- 그리고 건축의 공법을 가능한 한 공업화하여 경제성과 정밀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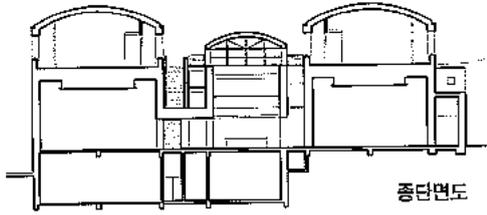
비교적 넓은 야외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잘 보존된 부변자연 속에서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일상의 여가를 다양한 문화 행사와 더불어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서구인들은 그들의 경제적 성취를 예술 내지는 예술가들의 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큰 긍지로 여겨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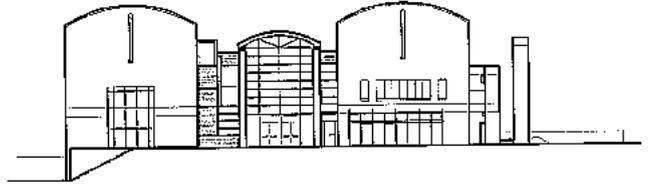
피렌체의 메디치에서부터 카네기, 록펠러, 폴게티 등 그들의 사설 미술관중에는 그 규모나 소장품의 내용이 공공미술관에 못지 않은 것이 허다하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 미술관 역사는 매우 일천하다. 더욱이 사설 미술관의 경우는 간송 미술관이 그의 목보적 존재였으나 근래 그 수나 규모가 차츰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도 미술관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하면 영은미술관의 경우도 한 기업체가 담당하기에는 커다란 부담일 것으로 짐작된다. 잘 성장하여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문화의 요람으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 **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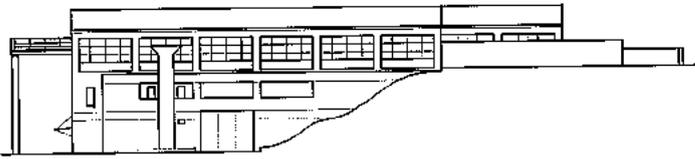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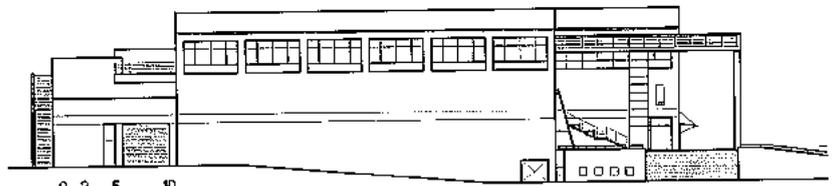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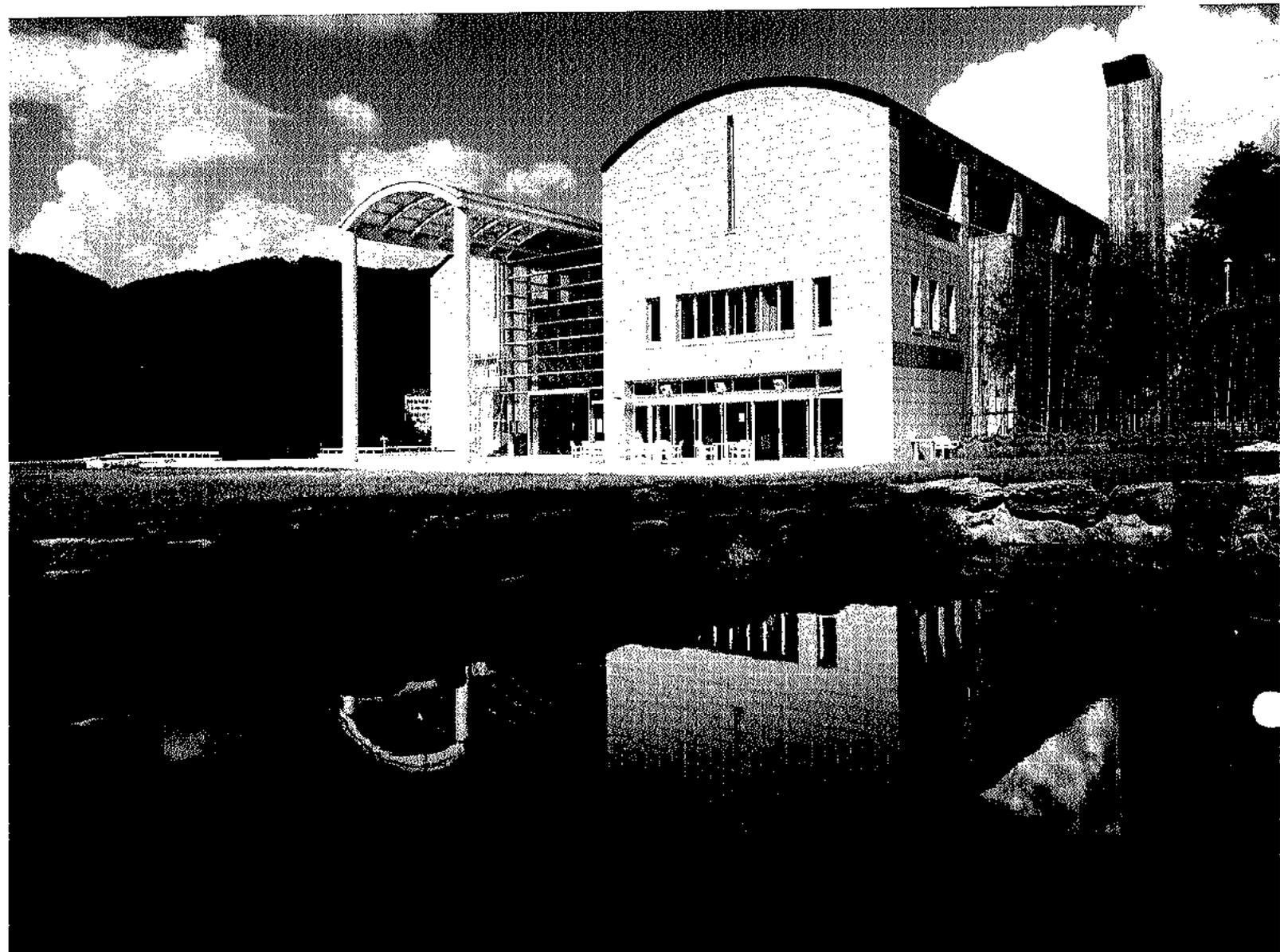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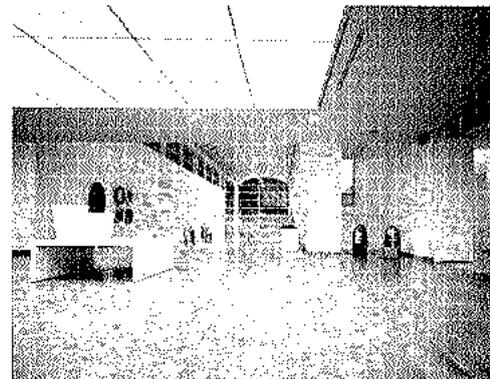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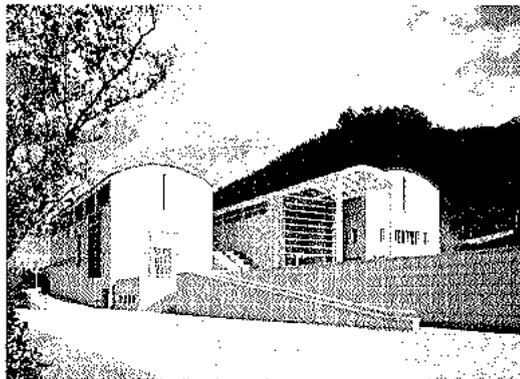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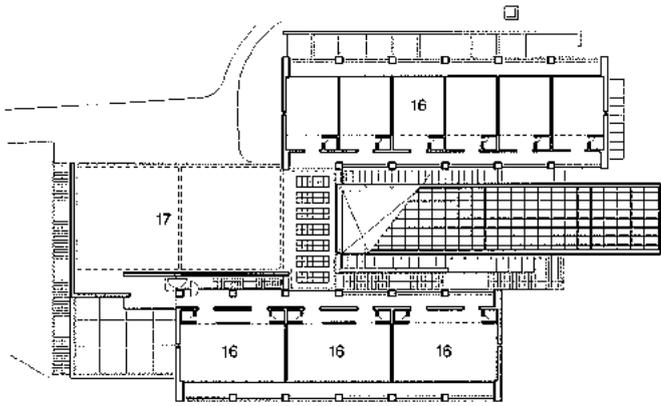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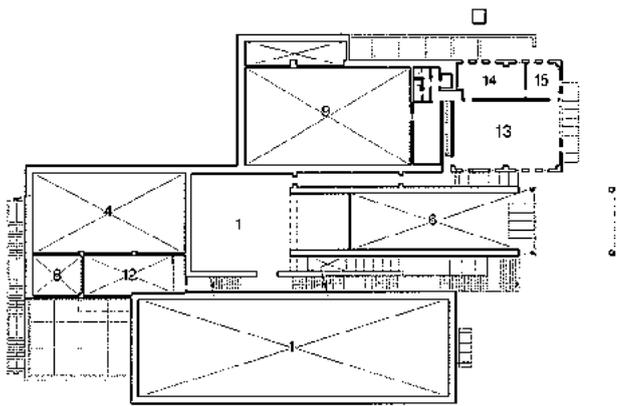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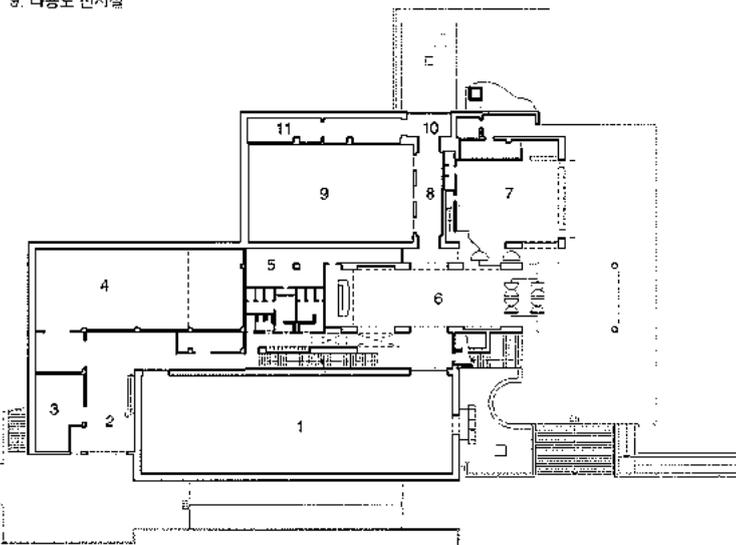


미술관동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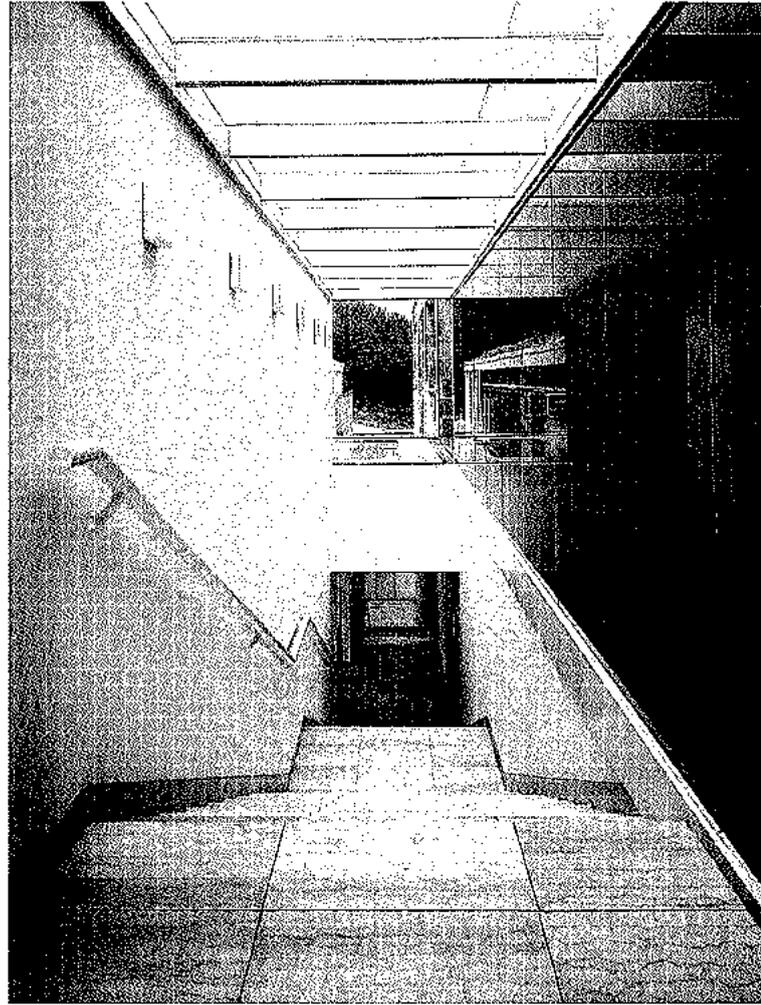


미술관동 2층 평면도

- | | |
|------------|-------------|
| 1. 전시실 | 10. 휴게실 |
| 2. 하역장 | 11. 기계실 |
| 3. 소독, 제습실 | 12. 반입준비실상부 |
| 4. 수장고 | 13. 사무실 |
| 5. 창고 | 14. 회의실 |
| 6. 로비 | 15. 관장실 |
| 7. 커피숍 | 16. 평민작업실 |
| 8. 전실 | 17. 아와전시실 |
| 9. 다용도 전시실 | |



미술관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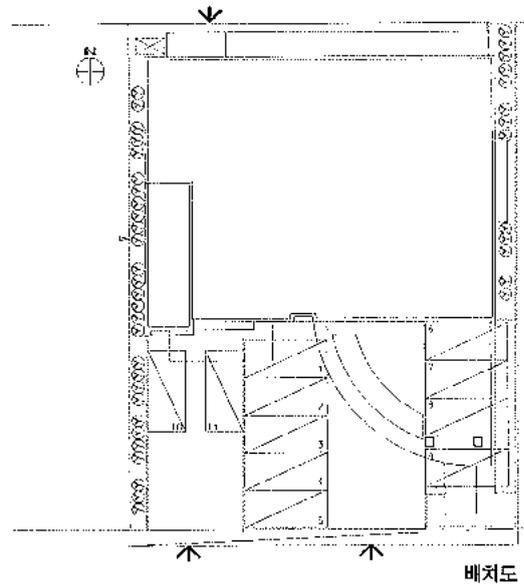
만년동 가화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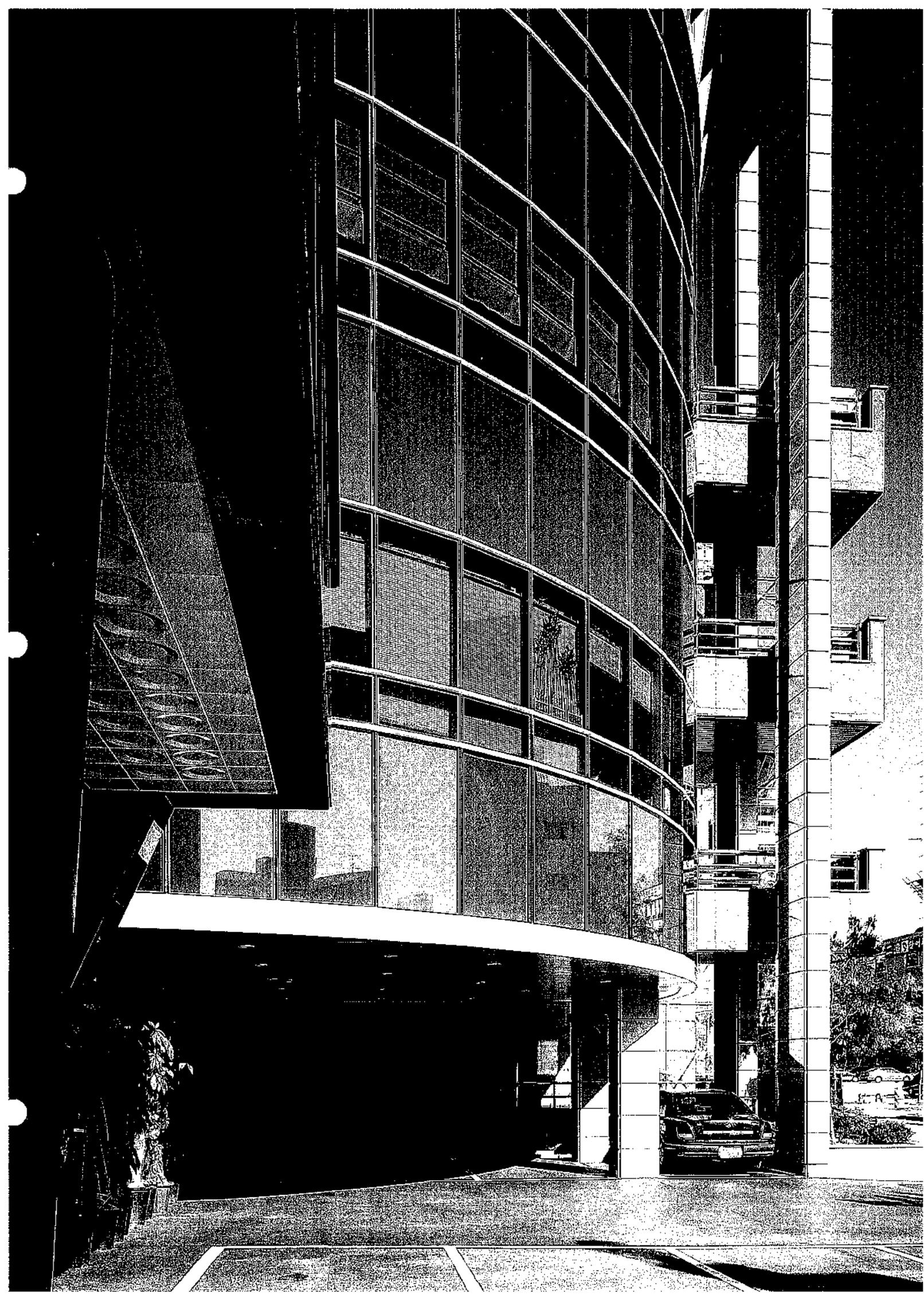
Gahwa Building

박영준 / 우반건축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Park Young-Jun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323번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최저고도지구, 상세계획지역
대지면적	729.10㎡
건축면적	470.52㎡
연 면 적	1,968.99㎡
조경면적	100.22㎡
건 폐 율	64.53%
용 적 률	270.06%
규 모	지상 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마 감	인도사암, T30회강석 버너구이, T24컬러복층유리
설계담당	길봉석, 이원석
설계기간	2000. 4. 15~2000. 7. 10
공사기간	2000. 10. 17~2001. 8. 14
사 진	채수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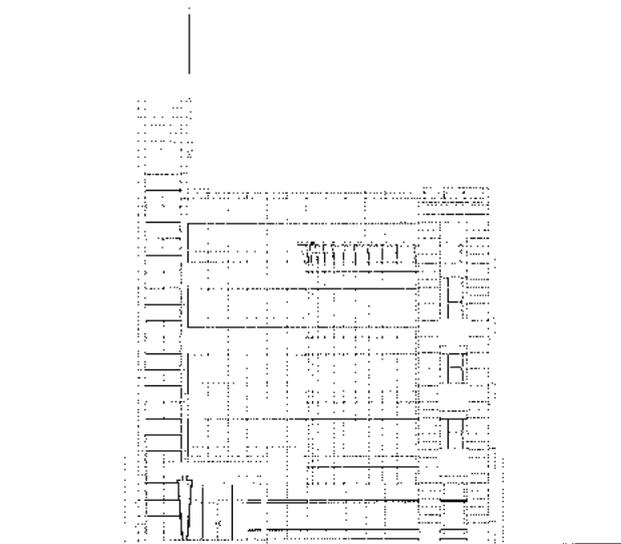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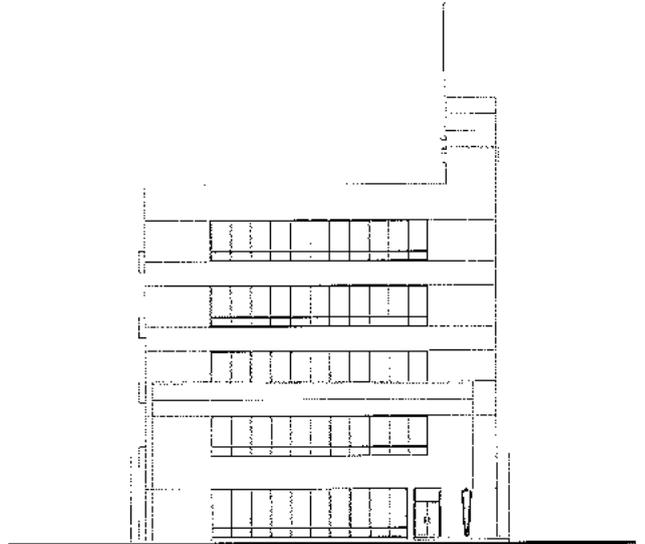
계획대지는 대지와 대지의 중간에 끼여 있는 평탄한 대지이며, 전면에 15m, 후면에 8m 보행자 전용도로에 접해 있고 긴 직사각형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건물의 기본형태는 후면 도로경계선쪽의 건축지정선에 의하여 벽체를 일률적으로 맞추어야 했다. 주 평면은 사각형의 평면으로 하여 주진입에 따른 인지성을 고려하여 원을 내등분한 형태를 사각형 평면에 적합한 구성으로 최소의 면적으로 최대의 접근성을 주도록 하였다. 입면 구성으로는 5층의 규모로 주도로에서 인지가 잘 되도록 사각형 Mass에 원형의 곡선을 조합한 형태로 설계하였으며, 하늘 지붕과 발코니를 관입 시킴으로 발코니에서는 전망을, 하늘지붕으로는 Mass의 통일성을 구성하였다.

기존 상업건물의 틀을 탈피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입면재료는 적색 인도사암과 화강석을 주재료로 선택하였으며 수평강조를 위한 화강석 홈 파기를 하여 안정감을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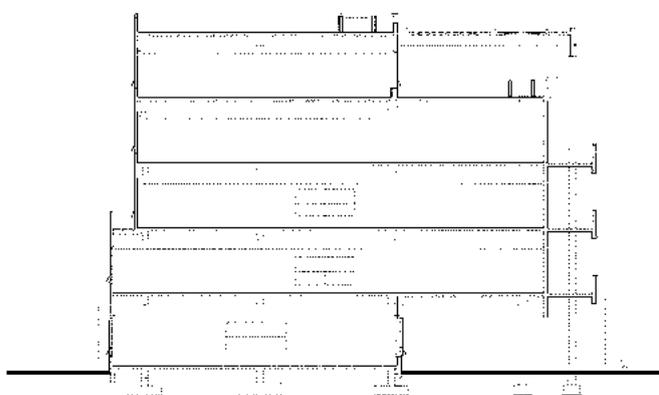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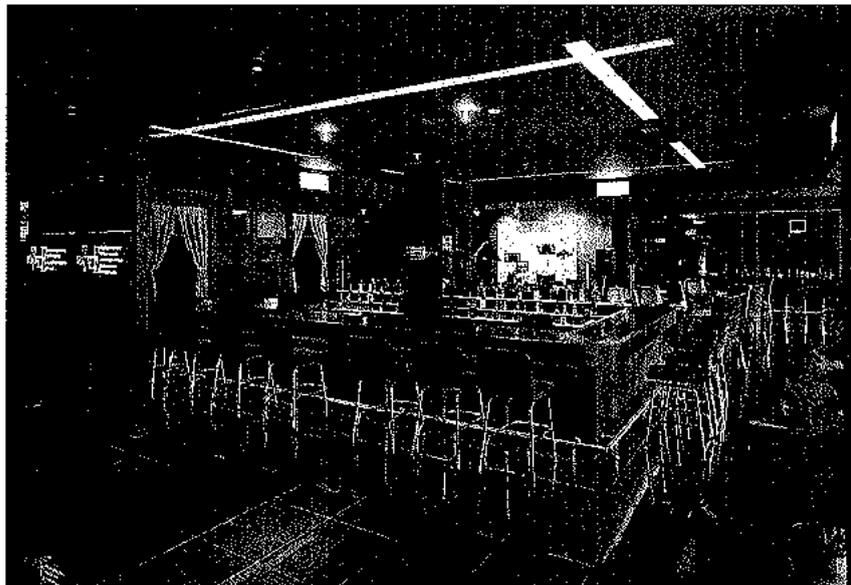
간판이 상업건물의 마감재료가 되는 일반적인 현상을 우려하여 간판의 위치 선정 및 간판 Design에 관여하여 건물의 입면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상업건물에 있어서 간판과의 전쟁을 우리 건축가는 이겨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글/ 박영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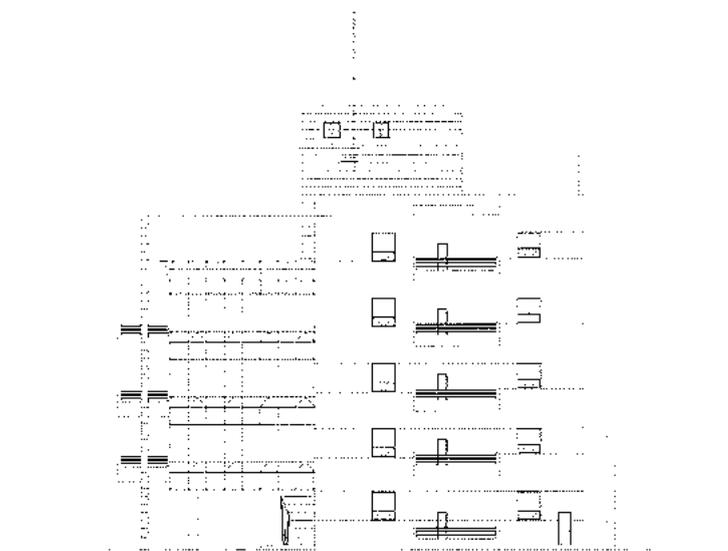
정면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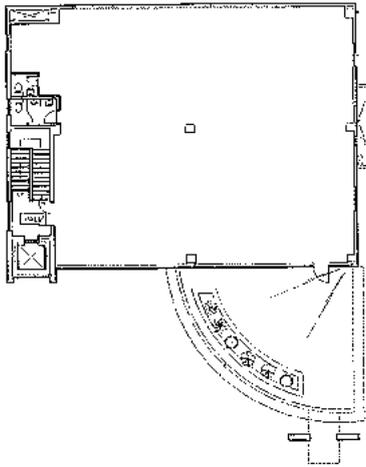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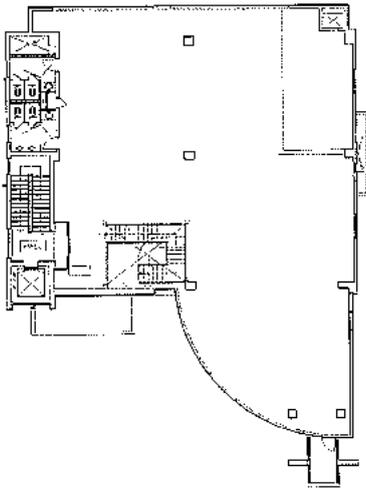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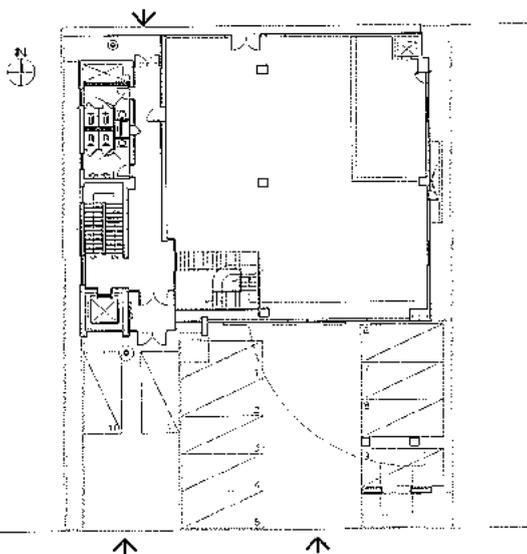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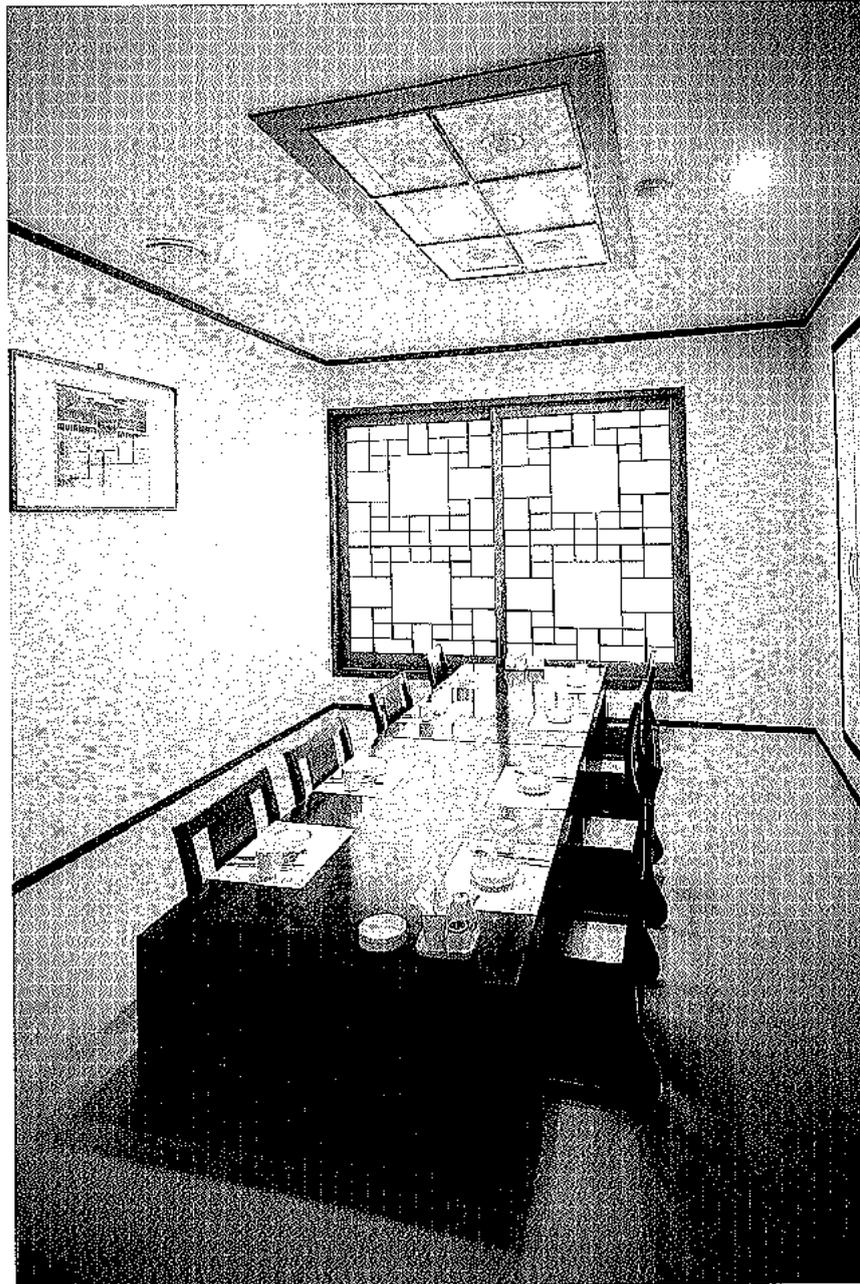
5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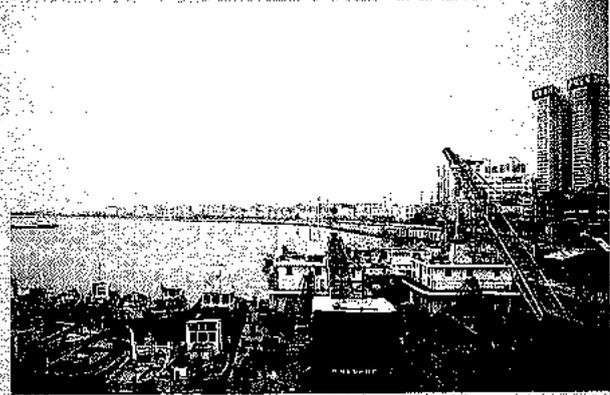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매우 분명하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저들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며 국제적인 추세를 냉철하게 읽어내는 것이다. 중국의 건설시장에 관해서는 이미 1995년 12월호 『건축잡지』에서 〈중국의 건축〉이라는 특집을 통해 부분적으로 소개된 바 있고, 2001년 9월호 『건축인』에서도 〈중국건축: 건설시장, 아직도 기회는 있는가〉라는 주제를 다룬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설계사무소가 자신의 실제 작업경험을 다양한 지면을 통해 간헐적으로 소개하는 하편, 지금 이순간에도 자신들 나름대로 중국건축업계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진행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설계사무소 가운데 하나인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즉, 이 과정은 비교적 총체적인 것임)에서 얻은 경험을 진솔하게 밝혀 한국건축계의 동료들과 자료를 공유하여 동일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며, 참고로 최근 중국 건설시장의 동향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1. 중국 청도의 도시와 건축

1. 청도시 개요

군사적, 지리적 요충지인 청도는 산둥반도의 동남부인 교주만에 위치하며, 중국의 5대 대외무역지대의 하나이다. 면적은 경기도와 유사한 10,654km²이고, 인구는 675만 명이다. 위도는 서울과 비슷하지만, 기후의 특성은 강릉지역과 비슷한 해양성 기후로, 연평균기온이 12.2도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

청도는 최근 중국 북방권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는데, 2000년도 GNP는 전년에 비해 15.2% 증가한 16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중국내 기업인 하이얼그룹, 하이신그룹, 청도맥주그룹, 오우커마그룹은 이미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하였고, 그 중 하이얼그룹의 가전제품은 전 세계시장의 16%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청도에 투자한 외국기업은 이미 3,760개에 이르며, 연말까지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하는 40개 기업들이 투자할 예정이다.

전략적인 지리 조건, 풍부한 관광 자원, 쾌적



해수욕장

한 기후 조건 등을 바탕으로, 청도는 중국의 주요 개방도시로서 자리잡았다. 그런데, 이러한 활발한 대내외적인 교류는 이미 1900년대 초반 식민지 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

2. 청도의 도시 형성

1) 청도의 시작 (~1998년)

청도의 시기가 처음으로 형성된 것은 명나라 때의 일이다. 당시 즉목현지사가 현지 농민들의 어려운 시정을 헤아려 해상무역을 시작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던 것이다. 본격적인 청도 도시역사의 시작은 1891년으로, 청나라는 외국열강의 침략을 막기 위해 교오(청도의 옛 이름)에 대대적인 군사시설을 구축하였고, 여기에 3~400호의 부락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1897년 독일은 거야교안건을 구실로 교오를 강제 점령하여 '교오조계지조약'을 체결하여 식민지로 두게 되었다. 그 후 1898년, 독일은 교주만을 자유항구로 개방하였고 교주만 보호지역의 신규역을 청도라고 명명하였는데, 이것이 청도 도시명칭의 유래가 된다.

2) 도시형성 초기(1898년~1914년)

독일은 청도에 대한 관할권을 얻은 후, 1900년에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청도를 군사기지, 무역항구, 행정중심의 식민지도시로 건설하려 하였다. 도시의 전체형태는 부두와 철로를 따라 지세가 완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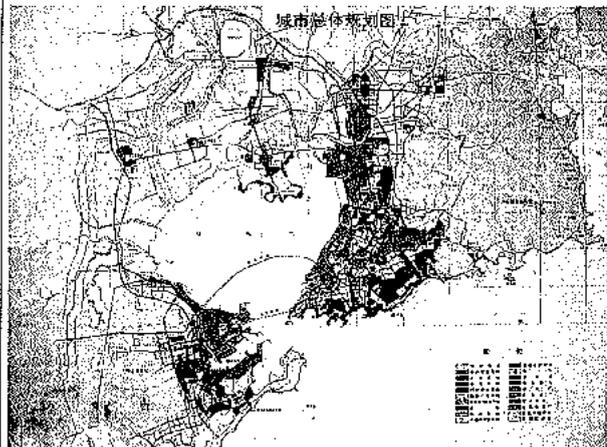
청도거리

지역에 선형으로 설계되었다. 이 도시계획은 독일인과 중국인의 생활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하였고, 식민지의 행정중심인 총독부와 경제무역 중심지를 도심에 설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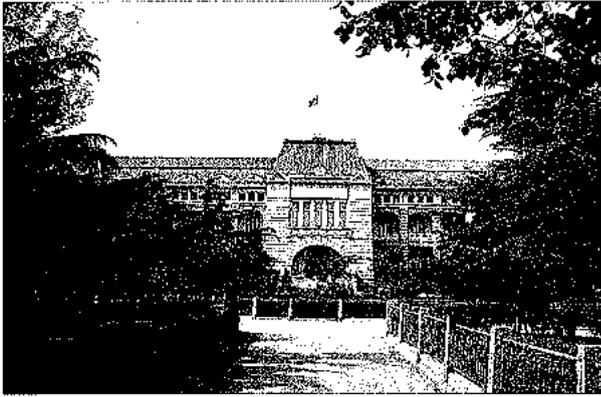
이처럼 위치설정, 도시기능의 분리, 청도구역의 도시설계 등에 있어서 성공적인 부분도 많았지만, 한편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첫째, 중국인 거주지역의 도로 넓이 확보, 상하수 시설 등이 열악하여, 이 지역의 향후 개발에 장애가 많았다는 점. 둘째, 도시설계에서 공장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일부 존재했지만, 전체적인 공업구역이 없었다는 점. 셋째, 도시설계에 있어서 거시적인 안목이 부족하여 '마차시대'로부터 '자동차시대'로 넘어온 후 도시의 원활한 교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3) 일본인의 이민과 도시확장 (1914년~1922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과 더불어 일본은 독일에 선전 포고하였다. 이때 청도에 주둔하고 있던 독일군에 공격을 가하여, 일본은 청도를 점령한 후 군사관제에 들어갔다. 일본은 자국민에 대한 개방정책을 실시하여, 청도의 주중일본인은 1911~17년 사이에 317명에서 18,600명



도시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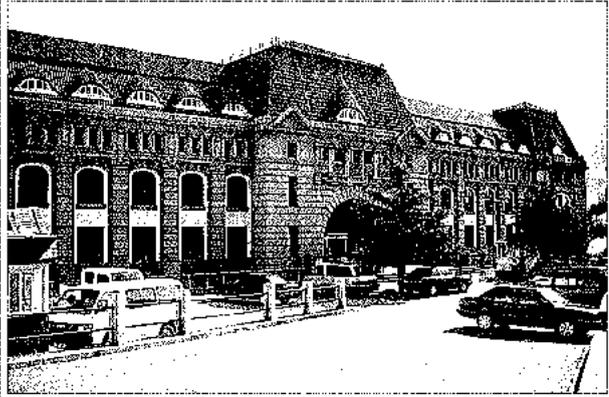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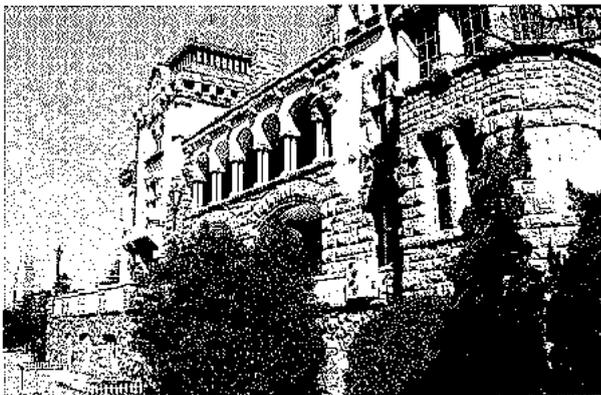


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일본인의 증가와 더불어 일본의 자본도 유입되었으며, 청도의 금융, 무역, 제조업을 독점하게 되었다.

일본은 건축업의 발전에 따라 항구의 확대건설, 수력발전소 건설, 새로운 공업단지 건설 등의 계획을 세웠으며, 도시건설은 1920년 독일이 세운 도시발전계획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새로운 도시주막기를 만들고, 기존 독일인의 빌리구역을 확장하여 일본인 주거구역을 마련하였으며, 공업단지는 항구와 철로를 따라 배치하고 그 주위에 노동자들의 간이 숙소와 창고를 배치하였다.

4) 발전연속 시기 (1922년~1937년)

제1차 세계대전의 종말과 1919년의 '5.4운동'으로 중국 내부에서는 청도 되찾기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으며, 그 결과로 1922년에 북양정부는 일본과 '산동문제해결조약'을 체결하여 청도를 되찾게 된다. 그렇지만, 수복 조건에는 외국인과 일본인들을 위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사실상 청도는 식민지로부터 반식민지 상태로 넘어간 것이었다. 또한, 북양정부 시기에 청도를 지배한 군벌세력은 자기 기반확장, 왜적과의 결탁만을 일삼았기 때문에 도시건설은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총독부

1929~37년, 특히 30년대 중반에는 전쟁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청도의 정세는 안정되었다. 때문에, 외국자본과 국내관료자본이 많이 유입되었고, 민족공업도 이 시기에 큰 발전을 이루었다.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도시인구도 급증하여 1923~32년 사이 164,000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도시건설은 30년대 한차례 증흥기를 맞이하였고, 1932년 청도시는 새로운 '청도시 도시계획법'을 발표하여, 현재 구도심 형성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3. 청도의 건축

청도의 도시형성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시가지에는 지금도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러한 이국적인 건축물들은 료산, 해안경관과 더불어 청도의 풍부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다음은 이들 중 대표적인 사례이다.

1) 총독부

총독부는 독일점령시기 청도에서 제일 웅장한 건물이었다. 1903년에 착공하여 1906년에 준공하였고, 면



독일총독관저



총독빌라

적은 7,500㎡이다. 총독부는 관해산 기슭에 배산임해로 위치하여 바다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조망을 갖고 있다. 평면은 오목형이며, 4층으로 되어있다. 웅장한 39개의 계단이 건물의 실내외를 연결시켜주며, 입면은 고전주의적인 양식으로 분할되어 있다. 건축물의 거대한 규모와 호화로움으로 지역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설계-Lazarowiz

2) 독일 총독관저

1903년에 착공하여 1908년에 준공된 이 건물은, 그 면적이 4,083㎡이고, 철골벽돌혼합구조로 되어있다. 평면배치는 자유로우며, 4층으로 되어있다. 주요 입구는 서쪽으로 향해있으며 대칭배치는 아니지만, 현관-홀-중정-다용도실을 따라 걸으면 축선을 느낄 수 있다. 입면형태는 독일의 전통적 민간전통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설계-Lazarowiz

3) 총독빌라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태평각 해변에 위치한 이 건물은 1906년에 준공되었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배치된 정원식 주택으로, 멀리서 바라보면 숲속의 중세 요새처럼 보인다. 아마도 이것이 건축가가 나타내려는 설계의도인 것 같다



교오경찰서

4) 교오경찰서

L자형 평면으로 되어 있고, 주요출입구에 30M 높이의 탑이 치솟아 있다. 반목재장식과 돌장식, 높은 지붕 등은 독일의 전원적 분위기의 장식기법이다. 전체 건축물에는 날렵하고 명쾌한 분위기가 흐른다.

5) 성에밀 교회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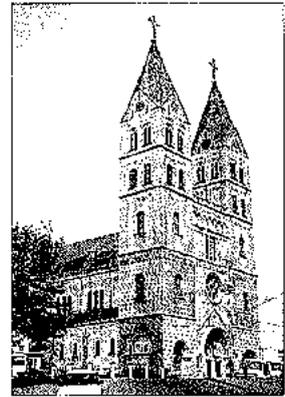
교회당은 관해산 산마루에 위치하며, 라틴 십자형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주교회당의 제도에 의하면 정문은 서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지만,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남쪽에 두었다. 문 양측의 트윈타워 높이는 89M이고, 입면형식은 로마식과 고틀릭의 절충이라고 볼 수 있다. 주실은 높이가 18M이고, 르네상스형식으로 되어있다. 공사비용 때문에 많은 장식요소를 줄였지만, 오히려 간결하고 명쾌한 전통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6) 적십자회 전실

1940년에 완공되었고, 평면은 장방형으로 주 출입구는 남측을 향해있다. 여러 가지 형식이 혼합되어 있으며, 3층 규모이다. 주량을 거쳐 중정에 진입하면 지붕으로부터 자연광이 유입되어 들어온다. 주변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4. 청도의 현황

청도는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신도심의 새 청도시청사를 중심으로 15,000㎡의 상업무역 중심단지를 새로 건설하였고, 구도심의 중산로 상업거리, 영하로 과학



성에밀 교회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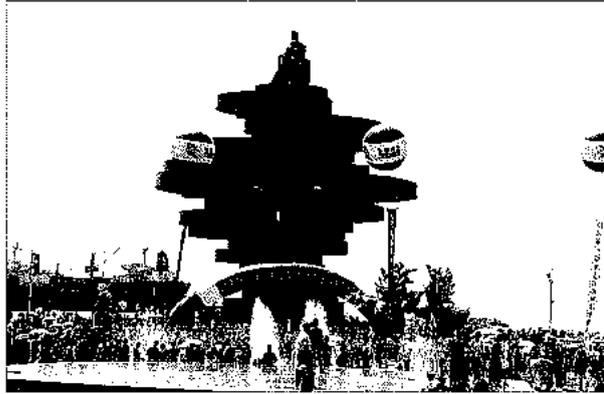


적십자회 전실

기술거리 등 중심거리를 재건하고 있다. 또한 산업발전을 위해 고과과학기술공업단지, 시북구공업단지, 황도공업단지 등 새로운 공업단지를 건설하였고, 석노안해변리조트단지, 외도해상위락센터 등 관광시설을 새로 정비하였다. 이러한 대대적인 공공시설의 건립 속에서도 청도는 각종 공원과 광장, 도로변의 녹지조경과 해안의 저층형 타운하우스 등을 통하여 도시의 쾌적성을 유지하고 있다.

청도의 현황은 2000년도 각종 지표의 증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대외 수출입 총액(현지원칙)은 135.3억 달러로 33.9% 증가하였고, 외자유치 프로젝트의 계약금액은 26.9억 달러로 53.5%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출에 대한 의존도는 청도 전체 경제의 59.4%에 해당하며, 이는 6.8% 증가한 것이다. 또한, 공업은 17.3%, 건축업은 14.2%, 부동산 매매면적은 27.4% 각각 증가하였고, 관광객은 243.1만 명으로 19.7% 증가하였다. 이 모든 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도시민 일인당 수입은 10.1%, 지출은 11.6% 각각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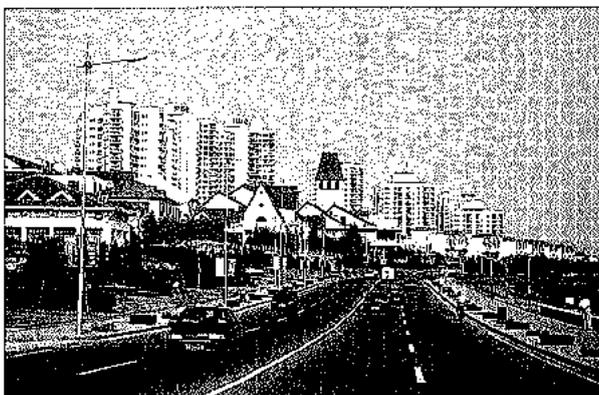
정리하자면, 청도 발전의 원동력은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대기업의 성장, 대내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풍부한 관광자원의 개발 등이라 할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인 이곳 청도에는 우리나라 약 2,500개



시청앞 광장

기업이 이미 진출하였고, 10,000여명의 투자업체 및 상시주재원과 250여명의 유학생이 머물고 있다. 또한, 청도는 한국의 대중국 전체 투자액의 약 30%를 차지하여, 한국은 연간 실제투자액 기준으로 홍콩을 제외하면 산둥성 내 최대 투자국이다.

청도는 중국 동북부의 대표적인 개방도시로서, 각종 지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또한, 청도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국과 교류가 가장 활발한 중국 내 지역이다. 따라서, 무영건축이 국내 설계사무소로서는 처음으로 합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중국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청도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다음 2개월에 걸쳐 소개될 '무영건축의 경험'을 통하여 중국 진출 과정과 진행 프로젝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



해안가 도로



타운하우스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8)

The Pleasant Feeling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독락당

김석환 / 터·울건축사사무소
by Kim Suk-Hwan



밖에서 본 계정

< 연재 목차 >

1. 병산서원
2. 소쇄원
3. 선암사
4. 화암사
5. 종묘
6. 창덕궁
7. 부석사
8. 독락당
9. 영선암

이언적과 조선시대 선비의 부침

회재 이언적은 조선시대 동방 5현으로 불린 인물이다. 그는 1491년 양동마을의 외가(外家)인 서백당에서 태어났는데, 그 집에 3명의 천재가 난다는 고사가 전해 오고 있다. 그런데 손중돈과 회재가 그 집에서 태어났고, 나머지 한 명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양동마을은 원래 경주손씨 집성촌이었지만, 여강이씨인 회재의 아버지 이언이 양동마을에 사는 손씨의 외동딸에게 장가들어 처가살이를 하면서 이씨의 뿌리를 갖게 되었다. 그 후 이언은 양동마을에 있는 현재 무첨당 살림채를 짓고 처가로부터 독립했다. 그런데 손씨 후손들이 인근 마을로 분가해 간 것과는 대조적으로, 회재를 비롯한 이언의 자손들이 양동마을에 뿌리를 박고 번창하면서 손씨와 대등한 가계(家系)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점차 사촌 집안끼리 경쟁 관계가 되었다. 그 뒤로 손씨 문중에서는 서백당에서 이씨 문중의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회재의 어린 시절은 불우한 편이었다. 아버지 이언이 그의 나이 10살 때 타계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부친을 여윈 환경 속에서도 학문에 힘썼다. 친분이 뛰어난 외숙인 손중돈에게 잠시 배웠을 뿐 스스로 공부하여 중종 9년 별시 문과에 급제한 후 버

슬에 나아가 탄탄대로를 걸었다. 그러나 종종 26년 권신 김안로와 심언광에게 미움을 사서 파직 당하였다. 조선시대 벼슬에 나간 선비들이 간혹, 왕위 변동시에 예기치 않은 정치적 사건을 맞거나 때로는 모함을 받고 파직되거나 귀향을 갔다.

조선의 성리학적 사회 질서의 중심에는 군주와 선비가 자리잡고 있다. 군주가 존재함으로써 나라가 성립한다고 생각한 시대니 만큼 군주에 관해서야 더 말할 나위 없겠으나, 조선사회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선비였다. 선비는 스스로 자신을 수양하는 것을 본분으로 여겼고 지조와 절개를 생명처럼 여기어서, 나라에 도가 바로 서 있을 때는 나아가 경륜을 펼치지만 도가 땅에 떨어졌을 때는 세속을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자 했다. 그리고 세상의 도가 모두 땅에 떨어져도 한 사람의 선비만 남아 있으면 다시 세상에 도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신념을 품고 살았다. 때가 오지 않으면 초야에 묻혀 스스로 수양하고, 때가 되어 부름을 받으면 나아가 나라에 경륜을 펼치고자 했다.

성리학적 질서 속에 살기 원했던 조선사회는 진정 철학적 이상사회를 연상케 한다. 서구에서도 철인 통치를 주창한 예가 있지만 현실과는 요원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성리학이라는 철학적 이상을 지향한 사회가 조선 사회였다. 군주는 성리학을 국시로 내세웠고 그것을 지탱해갈 인제가 필요했다. 그래서 평생 학문만을 하며 살아갈 삶의 목표와 현실적 수요가 일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선비는 일상생활인의 모습과 구도자의 모습이 함께 갖춰진 존재로 비춰진다. 도리와 체면을 중시한 선비들은 욕됨을 당하기보다 죽음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권력과 돈이 없어도 체면만을 지키려 했고 몰락한 양반일수록 품위마저 잃으면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양반문화는 아랫계층의 헌신 위에 이룩되었으나 성리학 안에서 당연시했다. 결국 양반이 반듯한 집에서 군자의 모습을 닮고 실천하려 하는 노력이 가능했던 것은 하급 계층의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월적 신분계층인 그들도 세상과의 모진 인연에 의해 소외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회재처럼 파직을 당하거나, 귀향을 가거나, 아니면 아예 스스로 세상에 나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매월당 김시습과 방랑시인 김삿갓 등은 스스로 소외를 택했던 인물이다. 생육신으로 불리는 매월당은 단종에서 후비관하여 세상을 버리고 일생동안 법계와 속세를 오가며 떠돌았고, 김삿갓은 과거장에서 흥경래 난 때 변절한 김조순이 자신의 조부 인줄 모른 채, 촌철살인의 필봉을 휘둘러 옥했다가 후에 그가 조부인 것을 알고 한탄하여 세상으로부터 흠을 벗어나 한평생을 떠돌아 다녔다. 그리고 그 아픔은 평생 가슴에 남아 시가 되었다.

르네상스시대 회재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마키아벨리는 역모에 연루되어 옥살이를 하다 파직된 후 산탄트리아 산장에서 소외의 세월을 보내며 군주론을 썼다. 시오노 나나미는 그 산장에서 바라보이는 듀오모 성당을 보며 마키아벨리의 마음이 생각되어 예리한 칼날에 찢기 듯한 아픔이 느껴졌다고 했다. 그리고 독립당의 주인은 심정이 어땠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들 모두 소백산 주목처럼 칼바람을 맞고 서서 산 사람들이다. 겨울 들녘의 목초가 무서리에 삭여지듯이 삭여지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모두 잃고 난 후 고통마저 생의 애착이 든 때, 마치 고행 후 깨달음을 얻는 순간처럼 본질을 직시하는 기쁨과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선비가 조정에서 쫓겨가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지만 본인의 학문을 연마하는데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회재는 파직 후 자옥산에 기댄 이 곳 인강마을에 정착하여 7년 동안 성리학 연구에 몰두하였다.

은둔과 기다림

파직으로부터 시작된 새 삶이었지만, 회재는 이 곳에서 권세 다툼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글을 읽고 사색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그 홀로 보내는 생활이 즐거워 집 이름도 독립당이라 지었다. 파직 당한 순간은 야속함과 마음이 일었지만 그것은 곧 잊혀지고, 세속의 때가 끼이기 쉬운 생활을 벗어나 유유자적하며 맑고 담담한 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

구도적 공부를 한 선비들 가운데는 출세 후에 정치적 이해에 따라 파벌에 속해 휩쓸려 싸우기도 했다. 결국 본래의 깨끗함을 잃고 달라지는 경우도 많았다. 사람이 권력에 의해 왜곡된 자아를 스스로 치유하는 가장 좋은 수단 은둔을 버리는 일이다. 권세와 영화의 상반된 일을 기꺼이 행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다. 요새 사람들도 잠시나마 사찰이나 기도원 등에서 본래 자신의 맑음을 회복한 느낌을 경험한다. 은둔의 개념은 노자사상에서 유래된다. 그러나 그 사상은 본래부터 은둔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왜곡된 문명이 있기에 은둔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지혜로운 일로 생각한다. 때묻지 않음으로서 밝게 전체를 볼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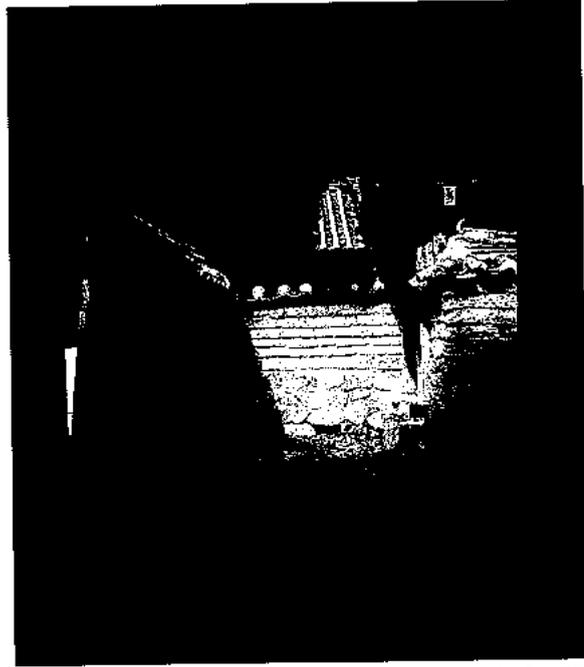
회재는 것처럼 자연을 벗삼고 자신을 연마하는 세월 동안 학문적 도약을 이룰 수 있었다. 혼탁한 세상에서 은둔한 현자의 출현을 기다리는 것은 참 신성한 일이다. 유비는 삼고초려 끝에 공명을 얻는다. 은둔한 선비를 얻는 것을 용을 얻는다고 표현한다. 그러한 고사는 주왕이 태공망을, 한고조가 장량을 얻는 과정과 비슷하다. 그리고 파직된 후 구도의 자세를 견지한 회재 또한 군주가 언젠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줄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회재는 그 후 중종 32년 김안로가 사사됨과 동시에 재기용되고 그의 학문이 인정되어 벼슬이 좌찬성에 이르렀다. 그것은 어쨌든 혼탁한 속세를 떠나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산 정약옹, 추사 김정희 등이 그런 시기에 자신의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나아갔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의 소외가 꼭 낙오를 뜻하는 것만이 아닌 긍정적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양반가옥과 예 이데올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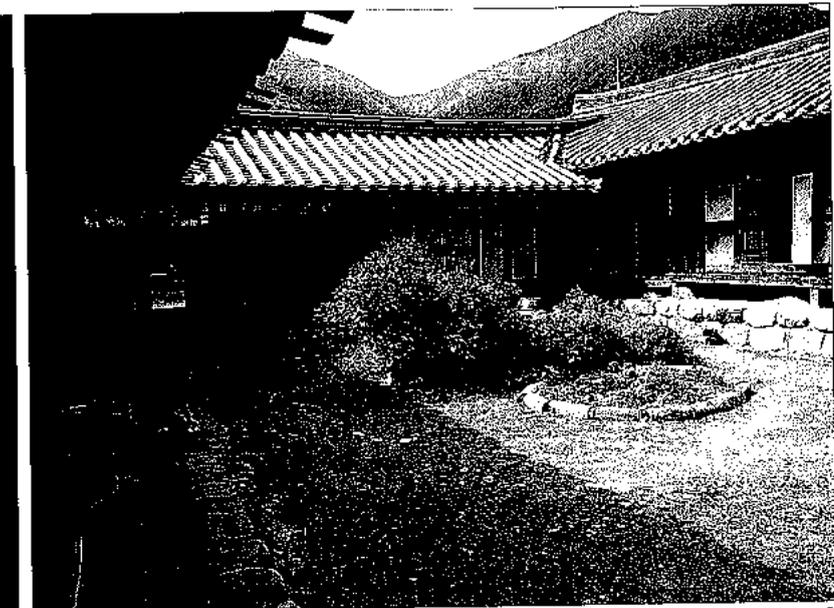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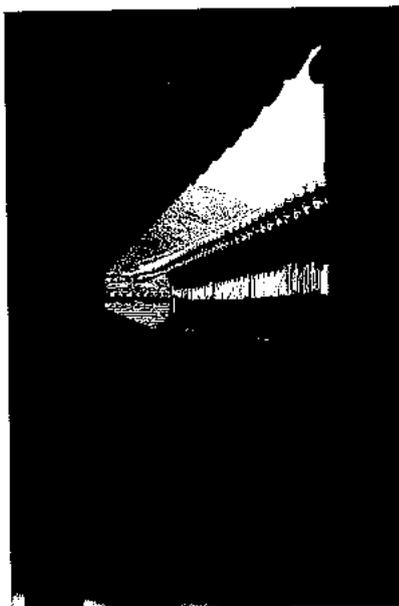
회재가 은거한 독락당은 그가 파직되어 돌아 오기 15년 전 소실인 석씨 부인을 맞을 때 처가에서 지어준 집이다. 그런데 회재가 돌아와 이 집에 머무른 때 가옥구조에 큰 변화가 생겼다. 그가장 큰 변화는 사랑채를 추가로 지은 것이다. 회재는 사랑채를 짓고 그 이름을 독락당이라고 지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처한 처지를 반영하듯, 기존의 안채와 별도로 있던 계정을 총체적으로 연관지어 은둔구도로 재구성했다.

건축에는 그 시대 정신이 담겨진다. 특히 조선시대 양반가옥은 여학에 입각한 독특한 가옥 유형을 낳았다. 무엇보다도 남녀유별이 중요한 의미였다. 당시의 풍습은 남녀가 유별한 것이 군자의 품행이라고 생각하고 남자가 안채에 근접하면 선비의 체통이 서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 남녀부공식(男女不共食), 부부별침(夫婦別寢)같은 원칙이 생기었다. 그것을 미덕으로 여겨 여자공간과 남자공간을 나누면서 안채와 사랑채가 구분됐다. 별채로 된 사랑채에서 안채로 들어가려면 별



안채와 사랑채 출입문이 나 있는 골목

개의 집처럼 중문을 거쳐야 했다. 남녀관계에 대한 미숙한 처리였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전통은 뿌리를 내렸다. 안채 사랑채에 독립된 마당까지 갖추고 보니 구분이 더욱 더 깊어졌다. 젊은 부부의 들끓는 애정관계도 표면적으로는 외면되어 졌다. 집안의 집인 안채는 남정네들의 출입이 없으니 안주인과 며느리 등 소수만이 거주하는 더욱 더 사적인 성격의 영역이 되었다. 양반가옥에서 사랑채를 제외한 부분은 전통적으로 이루어진 농경사회 가옥구조를 그대로 띠어 왔다. 현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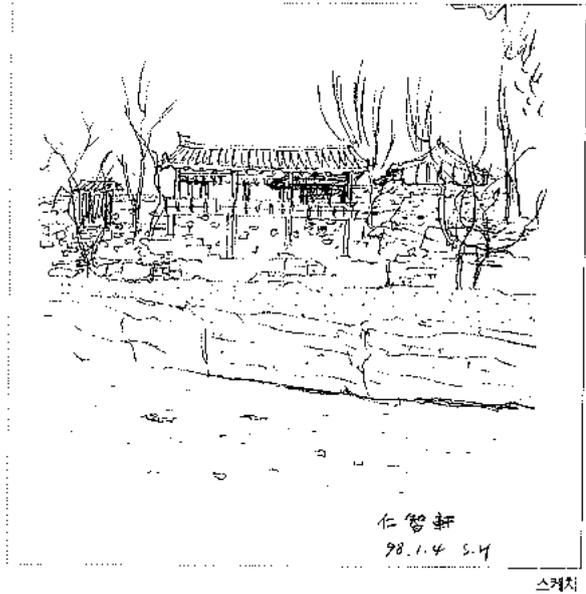
1

2

는 가정과 일터가 확연히 구분되지만 농경사회에서는 생활 터전에서 경작이 이루어지고 들에서 거둬들인 곡식은 집안에서 갈무리되었다. 또 양반가옥은 여러 계층이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였다. 그래서 계층간의 공간을 의식해야 했다.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신분과 격을 같이하여 선비가 의관을 정제 하듯 예의 관념적 질서가 갖춰지게 했다. 그로 인해 공간마다 사용자의 주체적 성격이 나타난다. 안채에 거하는 안주인의 품위가 지켜지도록 고려하면서 문간채 행랑채는 직업과 신분이 낮은 노비의 생활 공간이 되었다.

양반가옥은 이전의 가옥구조에서 사랑채와 사당 등 중요한 요소가 추가된 구도이다. 독락당도 양반가옥으로서 안채, 사랑채, 행랑채, 사당의 기본 구조를 이루고 있다. 양동마을의 서백당은 양반가옥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그 집은 뜰집구조로 된 건물의 외곽 모서리에 사랑공간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양반가옥의 초기 양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관가정은 살림집을 예측적 규범에 맞춰 반듯한 건축적 질서를 이루게 한 집이다. 또 양진당과 충효당의 경우는 사랑채가 별채 형태로 발전하여 간 것이다. 그리고 독락당, 무침당은 사랑채가 안채로부터 분화해 간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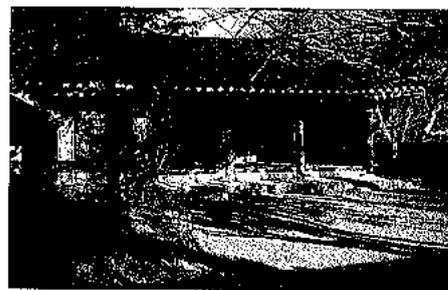
양반가옥의 사랑채는 현실과 구도를 함께 하려는 선비의 인간관을 상징한다. 조선시대 선비의 부인들은 바깥주인이 생활에 신경 쓰지 않고, 뜻을 성취하도록 조용히 내조하는 덕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를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유학사상은 성리학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그런데 불교와 도가의 영향을 받은 성리학은 스스로의 인격을 먼저 수



양한다는 구도적 전통이 있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선비들에게서 자연스럽게 구도적 삶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러한 개념은 공자의 유교에는 원래 없었던 것으로서, 그것이 성리학만의 매력이다. 양반가옥의 사랑채 공간은 바로 수도자가 수행하는 곳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가족이 생활하는 살림집과 수도처가 함께 있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종교는 다르더라도 모든 구도자의 공간은 정결함과 청빈한 생활태도가 연상된다. 그리고 선비의 구도적인 삶의 태도와 그 거처로서의 사랑채를 느껴 볼 수 있다. 그 구도의 도장은 자연에 은거한 정자 일 수도 있고, 서원이거나 가옥의 사랑채 일 수도 있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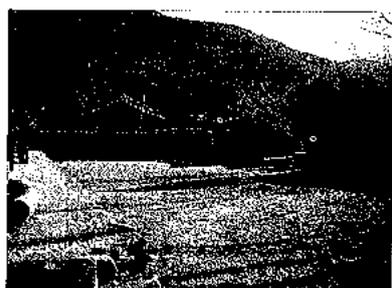


4



5

1. 출입채마당
2. 안채마당
3. 사랑채에서 안채로 통하는 문
4. 사랑채전경
5. 이서기
6. 문간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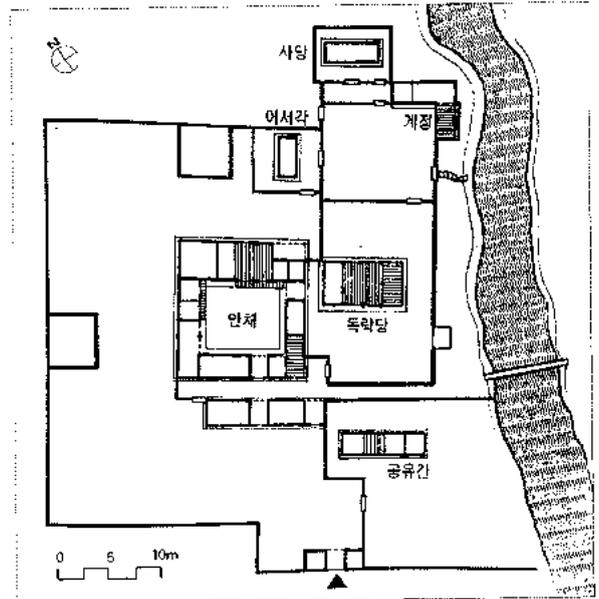


6

**독락을 건축적 위한 창작과 영역을 따라
느껴지는 깊이감**

조선시대 양반들이 집을 지을 때, 오늘날과 다른 특징은 안목을 갖춘 건축주들이 좋은 건축을 추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시대 선비들은 예술을 이해한 지식인들이었다. 그들은 시서화문사철(詩書畵文思哲)을 두루 익힘으로서 사물에 대한 안목이 길러질 수 있었다. 풍수지리와 좌향(坐向)의 중요성을 이해했고, 건물의 자리 잡음으로부터 공간과 형태의 흐름 시선에 적절히 대처해야 함을 알았다. 친분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건축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지을 때 안목을 최대한 발휘했다. 자신의 구상대로라면 좋은 집이 될 거라고 확신하며, 장인에게 그 실행을 부탁했다. 그리고 독락당에서 뛰어났던 선비의 건축적 안목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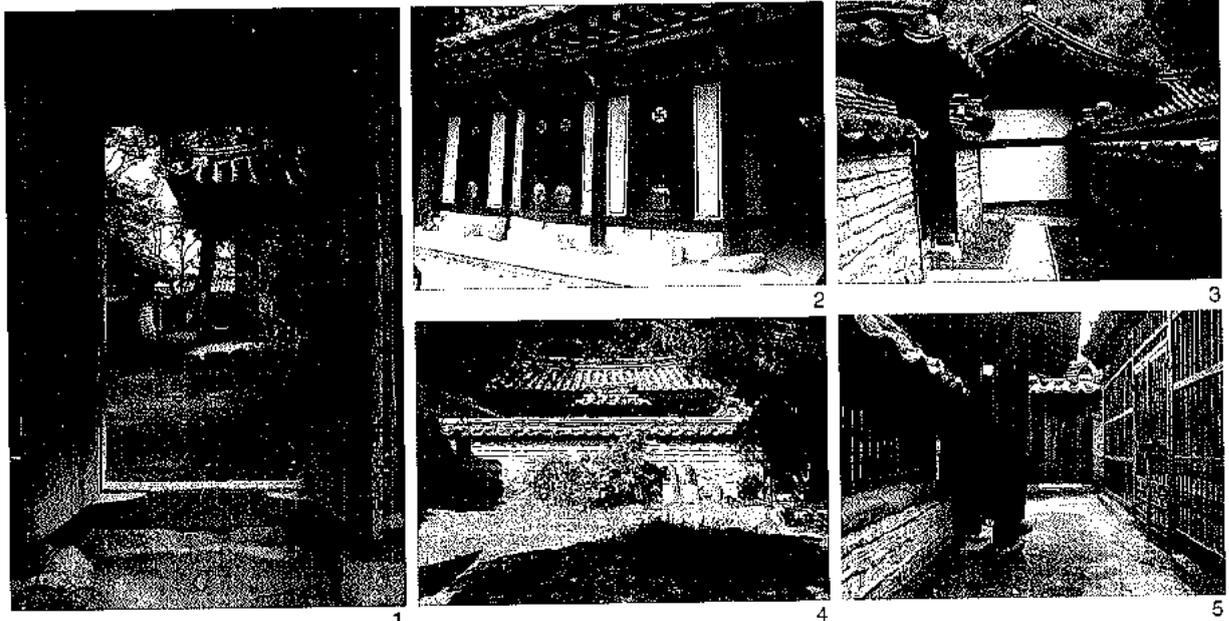
전통건축은 일정한 이미지의 양식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건축이 형식요인에 의해 다 결정되어지는 것이라면 창작의 의미는 크게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어느 시대 이건 뛰어난 건축에는 심미감을 갖춘 인간의 안목과 의지가 개입되어 있다. 독락당은 한국 전통가옥 가운데 그 어떤 곳보다 건축적 의도가 뚜렷이 드러나 있다. 살림집이면서도 주인만의 구도적 자기수양의 생활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은밀한 공간 구조를 이루게 했다. 은둔의 의사를 나타내는 낮은 수평성과 은밀한 미로의 구성, 그리고 자연과의 극적인 만남이 고려되어 있다. 퇴계가 거했던 원락제는 집안에서 일상생



배치도

활의 영역으로부터 단절되어 공부에만 전념코자 한 별서(別墅)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독락당은 별서가 아니라도 자연속에 거하며 수양할때처럼 늘 맑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자 하는 뜻으로 지어졌을 것이다.

전통건축의 기능 총족은 대지 위에 영역을 나열하며 수평적으로 펼쳐졌다. 그리고 영역은 남과 여, 신분과 계급의 구분과, 노동과 관조할 수 있는 여백 공간으로 쓰였다. 각 영역은 마당을 둘러싸는 건물과 담으로 형성되며 독자 세계를 갖고 바깥과의 대비된 의미를 불러일으킨다. 영역은 외부공간을 건축화 한 결과로서 각 영역에 들어서면 공



간적 불통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또 비워짐으로 인식되는 영역은 정적이며 그 조용함이 방 내부로 전해진다. 그리고 영역의 개방과 폐쇄의 질서는 전통건축의 가구식 구조에서 구조적 질서와 벽에 의한 공간의 가변성이 생기는 것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독락당의 건축은 건물 각자의 능률보다 각 영역의 개성과 자연과의 교감을 조절하는 장치로서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

이 집은 입구에서부터 특별하다. 작정하고 미로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미로를 따라 나아가는 동선상에는 공간적 여백과 분위기의 반전이 있다. 대문을 통해 들어선 마당에서는 집안의 느낌보다 마을 어귀를 들어선 느낌이 든다. 거기서 집안으로 가려면 다시 골목에서 안채 사랑채로 나뉜 각각의 출입구를 거쳐야 한다. 거기서 안채쪽 문을 들어서면 솥방채 마당이다. 안채 앞에 하인들이 거처할 집을 한 채 병렬로 늘어놓아서 골목길 같은 마당이 생겼다. 거기서 안채 마당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문이 있는데, 그 중 첩뵈에 의해 안채의 위치를 더욱 쉽게 가능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문간 마당에서 사랑채 쪽 문으로 들어서면 사랑채 앞마당이다. 양반가옥에서 보통은 안채만이 은밀한 분위기이고 사랑채는 개방적인 모습을 띠는데 비해 독락당은 사랑채 또한 은밀하다. 살림집이면서도 별도 암자 같은 사랑채에서, 혼자만의 구도의 즐거움을 방해받지 않으려는 주인의 의지로 꾸며진 것이다. 거기서 개울에 면한 사랑채 우측 측면과 담 사이를 빠져나가면 뒷마당이 있고, 다시 문을 지나 계정 마당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서 그 장소를 향한 접근 과정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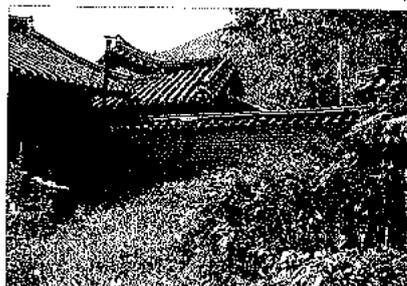
깊이감이 느껴진다. 독락당의 창작의도는 배치에서 잘 드러난다. 건축의 형태는 하나의 양식을 보여줄 뿐이며, 배치에 의한 외부공간의 구성이야말로 진정으로 의지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로의 끝에서 만나는 자연

독락당은 소쇄원과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지만 구성방식과 성격은 크게 다르다. 소쇄원이 입구로부터 아예 자연에 귀의한 듯한 분위기인데 비해 독락당은 인위적인 시설물로서 은밀한 분위기 만들어졌다. 독락당을 걸으며 보기에 평지에 지어진 평범한 가옥일 뿐이다. 그러나 자연을 대하는 적절한 구상에 의하여 신비로움이 느껴지도록 되어 있다. 독락당을 찾는 즐거움은 별천지의 호기심을 쫓아가면서 유발된다. 드러나지 않는 무언가와 예기치 않은 놀라움 속에 만나도록 하기 위해 처음 들어설 때부터 미로로 느껴지게 하였다. 중첩은 깊숙한 감각을 생겨나게 하고 닫히고 열림의 긴장감을 생기게 한다. 그러나 미로를 쫓아간 곳에는 뚜렷한 형상의 목표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자연을 대하는 개방감이다. 그 계정으로 가기에는 여러 개의 폐쇄된 독자 영역을 차례로 지나가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미로의 마지막에서 개방된 시선을 누릴 수 있는 마당에 다다른다. 그 계정 마당은 사랑채 마당과 성격이 다르다. 사랑채 마당은 크고 단청된 건물과 함께 화려한 느낌도 남아 있는데 비해 이 곳에 들어서면 소박하고 한가로운 분위기가 느껴진다. 계정은 그렇게 깊어진 가운데 평온한 여유의 감각을 되찾은 곳에서 마당과 연결된 누미루 구조를 하고



1. 사랑채에서 계정으로 접어서는 문
2. 사당
3. 사랑문을 들어서면 골목
4. 단청마루를 보이는 사당
5. 초년방지남 앞에 황창을 씌운 이서각
6. 계정마당에 입한 마서각, 중미루
7. 마당쪽에 서본 계정
8. 계정마당
9. 사랑채 뒷마당
10. 사랑채 측면 계정으로 통하는 통로



있다. 긴장될 만큼 깊어진 미당의 한 귀퉁이로 터진 누마루에 오르면, 아연히 개울로 열린 시선을 누릴 수 있다. 이 집에서 그 개방감을 누리는 계정은 주인의 궁극적으로 누리는 공간이자, 독락당 이야기의 주제 격이다. 그 곳까지의 과정은 의식의 흐름을 이루어 낸다. 그 곳까지의 인위의 중첩은 종국에 나타날 자연을 본래보다 훨씬 크게 와 닿게 한다. 그리고 은밀한 미로가 갖는 호기심으로부터 신비감이 커지게 된다. 또 그 은둔된 미로의 미덕은 종국에 열려 있는 것이다.

독락당의 성취는 미로의 끝 계정에서 자연과 만나는 것이지만, 열려진 풍경은 이 집의 입구까지 오며 보았던 평이한 자연이다. 그 경관만을 놓고 본다면야 동네의 루정으로부터도 쉽게 만날 수 있다. 또한 겨루에 면한 정자야 혼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것처럼 평이한 장면을 극적으로 느껴지게 한 것이 중요하다. 미로 끝에 만남은 무릉도원처럼 다른 감각으로 느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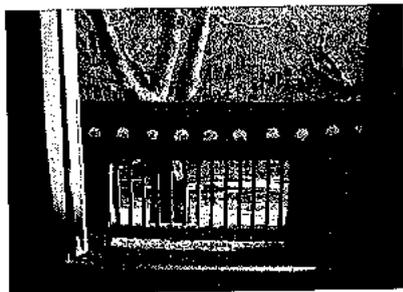
독락할 수 없는 후손

회재가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고 독락당을 나설 때 그의 학문은 크게 성장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경상 감사와 의정부 좌찬성을 역임하는 등 경륜을 펼쳐 불만한 위치까지 올랐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말년까지 평탄하지 않았다. 독락당을 나선지 10년이 된 해에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평안도 강계에 유배되고, 6년 후 겨울에 객지인 그곳에서 안타깝이 생을 마치고 말았다.

회재에게는 양동마을 정실에게서 얻은 이응

인과 독락당에서 얻은 아들인 염계공 이전인이 있었다. 그런데 유배지로 부친을 따라와 수발하고 말벗도 되었던 이가 염계공 이전인이다. 독락당에는 그 때 부자간 나눈 대화록이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서열의 차별이 심하던 지라 서자로 태어난 사람이 입신양명을 꿈꾸는 것이 헛되어 보일 때였다. 회재도 그런 처지의 아들을 안타깝게 여겼을 것이고, 그런 아들에게 각별한 부정을 쏟았던 듯 하다. 그리고 염계공은 회재가 임종하였을 때 혹독한 추위속에서 독락당까지 시신을 운구하여 장례를 지냈다. 퇴계 선생도 그를 두고 크게 칭찬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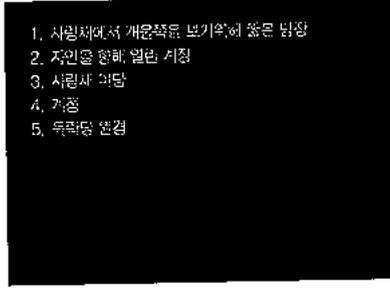
지금 독락당에는 염계공의 15대손인 이해철 선생이 살고 있다. 회재가 자연을 벗삼아 공부하며 독락한 곳이지만 오늘날 사는 후손은 문화재가 된 그곳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형편이다. 독락당은 그 시대 양반가 옥이 다 그렇듯이 너른 부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 때는 하인들이 있었기에 관리가 가능했을 테지만, 이 시대 문화로서는 평범한 가정에서 신경 쓰기에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선대에 대한 존경심과 자긍심을 지닌 후손들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거기다 산비대운 풀행도 의식해야 할 때가 있다. 그 지역 유림들이 자신의 반듯함과 연관지으려는 심리까지 더하여, 그 집을 찾을 때는 평소보다 더 고답해진다. 유학자의 자취를 궁금해하는 선생님들이 무리로 찾아오는 일도 있다. 그럴 때는 역시 대학자의 후예로서 가문의 품위를 갖추며 정중히 안내해야 된다. 그래서 조선시대 출중한 선비의 후손은 이래저래 독락할 수 없게 되었다. ㉮



1



2



1. 사림채에서 개울쪽을 보기위해 쌓은 담장
2. 지인을 향해 열린 서정
3. 사림채 외당
4. 거정
5. 독락당 앞경



3



4



5

프랑스 건축사 제도의 어제와 오늘

The Past and Present of French Qualification System for Architects

송복섭 / 파리 8대학 박사과정
by Song Bok-Sub

1982년, 건축작품 뿐만 아니라 저술활동으로도 유명한, Claude Parent이라는 건축가는 《건축가, 사회의 어릿광대(L' Architecte, bouffon social)》라는 책을 펴내면서 그 첫머리에, 《이 책은 증오심으로 쓰여졌다. 그 증오심의 정도는 그동안 겪은 고통만이 증명하리라》고 썼다. 2001년 4월, Philippe Tr ttiack란 젊은 건축평론가는 《건축가를 매달 필요가 있을까요?(Faut-il pendre les architectes?)》라는 책을 펴냈다. 거의 같은 시기 한국에선, 건축사협회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는 교도소에 가야만 하나?》¹⁾ 라는 글이 실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건축가들이 이런 글을 쓰게 되었을까?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건축가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공인되었는지, 각 시대에 따른 직업적 위기와, 그 위기에 대응하여 어떻게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는지를 알아보고, 현재에 논의되는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또 어떻게 경주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 할수 있다. 비록,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오늘날 건축가 직업 세계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는 한국이나 프랑스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프랑스의 예가 한국의 현실을 반추해보고 나아가 발전적 모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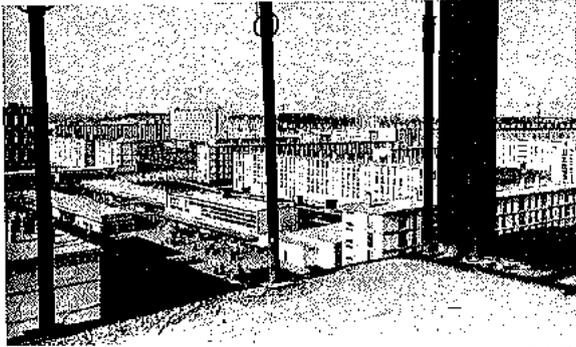
아카데미와 보자르학교의 구성: 건축가 직업의 사회적 공인화 과정

15세기 초부터 일기 시작한 건축가 직업에 대한, 일종의 학자로서의, 사회적 재인식운동은 16세기 초에 이르러 제자리를 찾기에 이른다. 이 시대는 이탈리아에 있어서 신플라톤주의가 문화 전반에 널리 퍼진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형이 사회를 창조한다》는 예술 예찬론과, 전천후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활동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건축가는 창조자로서의 신분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예술가로서 기능직공의 세계에서 벗어나려는 투쟁은 이론적 작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업세계에서도 조합을 구성하는 등의 구체적인 운동으로 나타났다. 이리하여 16세기 후반, 즉 1562년 Vasari에 의해 이태리 《회화 학술원(Accademia del disegno)》이 창설되고, 프랑스에서는 한세기 후인 1648년 루이 14세에 의해 《왕립 회화 조각 학술원(Acad mie royale de peinture et de sculpture)》와, 1671년 《왕립 건축 학술원(Acad mie royale d' architecture)》과 그의 《건축학교(Ecole de l' Acad mie)》가 창설되기에 이른다. 프랑스에서 이 일은 왕권강화를 위한 루이 14세의 정치적 야심(교황으로부터 독립되는 강력한 프랑스 국가의 건설)에 의한 결과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축가는 하나의 독립 직업으로 공인된다.

물론, 모든 형태의 건축활동 또는 건축가가 공인된 것은 아니다. 아카데미를 통한 건축가와 그의 건축활동만을 공인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당시의 건축가들에게는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귀족 또는 국왕의 주문을 얻는 것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출세를 상징하였다. 이 아카데미 졸업생에게는 건축가 자격증이 주워졌으며, 일정의 연금과 경우에 따라서는 루브르궁에 마련된 숙소에 기거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 반면에 그들에게는 《조합에 가입하지 말 것》, 《기

1. 4월 23일자 장광순님의 글.



건축가 Visconti가 나폴레옹 3세 앞에서 루브루궁 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1865년, Jean-Baptiste Ange Tisserier 작

업활동을 하지 말 것' 등의 금지사항도 동시에 요구되었다. 이 아카데미를 통한 건축활동은 결국 왕권의 혜택을 입으면서 그 왕권을 견고히 하는 데에 기여하는, 사회·정치적 시스템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들은 다시 두 급으로 나뉘어, 1급 건축가들에게는 개인적 건축활동이 금지되고 오직 국왕의 작업을 담당하게 되어 있었고, 2급의 건축가들에게는 비록 주권이 제한되었지만, 반면에 개인적 기업활동이 허락되었다. 이 계급은 신분계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1급의 자리에 결원이 생기면, 2급의 건축가가 기업활동을 포기하는 조건하에 1급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었다. 물론, 그 시대에 아카데미 출신의 건축가만 존재하던 것은 아니다. 소위, 목수로 대표되는 전국적으로 활동하던 많은 건축가들이 있었다. 때때로 이들은 아카데미 출신의 건축가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친척등의 혈연관계 속에서 직업을 영위하기도 하였다.

이 일련의 직업화 과정은 개인단위의 건축가에서 사회집단으로서의 건축가라는 직업의 사회적 공인화를 이루었다. 즉, 이후로는 아무나 건축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교육 과정과 자격검정을 통하여, 사회, 국가적으로 공인된, 일정한 사회 그룹만이 건축 직업활동을 유지한다는 직업원칙의 기틀을 닦았다.

산업혁명시대의 건축가와 자격증 논쟁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9세기 후반은 한마디로 새로운 직업 시스템을 찾아 가는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산업혁명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엔지니어그룹과의 직업영역의 중첩과 혼동, 같은 건축가라 하더라도 전문분야의 차이에서 오는 위상의 차별화 속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직업적인 체계의 기초를 마련하는 시기였다. 다른 직업과 구별되는 직업적 특별

함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건축가들의 노력은 조합을 구성하기 시작함으로써 시작된다. 이미 1811년, 주로 공건축 분야에 종사하는 건축가들이, 20명 이내의 회원제한이란 내규하에, 《회원들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목적으로 《건축회(Société d'architecture)》란 단체를 구성하였다. 1829년 공업도시 리옹에서는 《리옹건축학회(Société académique d'architecture de Lyon)》란 단체가, 건축가란 자유직업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일반 기업인과 같은 세금 체제인 《영업세》가 적용되던 현실을 개탄하며 활동을 시작하였다. 1840년에 500명 회원 제한의 인원으로 세워진 《프랑스 중앙 건축가회(Société central des architectes français)》²⁾는, 1846년 이 영업세의 면제를 쟁취해냄과 동시에 대표적인 단체로 인식되었다. 이 단체는 이후, 국가공인 건축가 자격증 부여의 필요성과, 그 교육과 관련한 여론을 이끌어, 1847년 그 법제정을 제안하기에 이르지만, 그후 2월혁명에 의해 그의 실행이 연기된다.

혁명과 함께 1793년 문을 닫았던 아카데미와 건축학교는, 1795년에 다시 건축학교가 문을 열고, 1807년부터 《보자르 학교(Ecole des Beaux-Arts)》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이 보자르 학교의 건축가 자격증은 1867년 창안되어 1874년 법제화 되었다. 그러나 이후 10년 동안 9명의 지원자만이 이 자격증 심사에 참가한다. 그러던 것이, 《정부 공인건축가 친목회(Amicale des architectes diplômé par le gouvernement)》라는 단체가 생기면서 이 심사에 참가하는 지원자가 늘게 되었고, 이후 이 단체는 《정부공인 건축가협회(Société des architectes diplômés par le gouvernement)》로 이름을 바꾸어, 1910년에는 1,000명 가입 축하파티를 열 정도의 규모가 되었다. 이 자격증의 법제화는 보자르 출신만을 국가공인 건축가로 인정하여 파벌을 조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되기도 하였다.

1895년 보자르 학교의 이론 교수였던 Julien Guadet는, 소위 Guadet법이라고 이후에 명명되는 글, 《건축가의 직업적 의무》에서, 《건축가는 예술가이다》라고 정의 한다. 이 관점은 같은 해 보르도시에서 열린 《건축가 대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원칙은 1977년 건축법을 제정하면서 다시 채택된다. 이 《건축가=예술가》라는 견해는, 20세기 초 여러 학생들과 건축가에게 영향을 끼쳐, 자격증 심사에 응하지 않을 태도를 취하게 하기도 하였고, 1933년 《밀라노 건축가 대회》에서 Auguste Perret는 《건축가가 예술가인가요? 그렇다면 자격증은 필요없습니다.》라는 발언

2. 1958년 이 단체는 '건축학회(Académie d'architecture)'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에도 활동중인 대표적 프랑스 건축관련 단체이다.

을 이끌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공공건물 건축가 회장》이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자르 학교 심사위원에서 제외되는 등, 이미 대세는 자격증 필요론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이 자격증 논쟁은 1880년대에 다른 차원으로 발전하여, 지방 건축가와 수도권 건축가의 대립을 낳았다. 파리 보자르 출신이 아닌, 지방 건축가들은 수도 중심의 자격증 부여 제도에 반대하고, 오랜 협상 끝에 1903년부터 지방 보자르 학교를 창설한다. 또한 이 시기에 중앙의 건축가가 지방에서 대형 공사를 수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대립에 따른 건축에 있어서 지역주의의 사고가 일기 시작한다.

직업경쟁

건축가가 예술가라는 견해와 더불어, 건축가와 엔지니어의 직업영역 구분도 19세기말 20세기초 특히, 산업혁명의 중심시대에 큰 논쟁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바리오페라》의 건축가 Charles Garnier는 《두 영역의 구분은 역사적 전통이 아니라, 최근에 생긴 일입니다. 철도 건설의 경우, 엔지니어가 철교, 육교를 건설하지만, 역사를 건축할 때에만 건축가에게 맡기니,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이 논쟁이 건축가와 엔지니어 쌍방간의 논쟁이었다기 보다는, 건축가 쪽의 일방적 논쟁이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자신들만의 고유영역이기도 하였던 분야가 산업혁명이후에 새로 등장한 엔지니어 그룹에 의해서 점점 잠식되어 감에 따른 반동적 현상이었던 것이다. 아꼈든, 이후의 20세기는 건축의 예술성에 대한 논쟁이 건축공업생산, 합리화, 비용절감,



《전부공인 건축가협회》가 1908년부터 발행한 건축잡지의 표지 디자인. 건축현장을 중시하는 건축가의 이상적 모습.

3. Florent Champy, *Les architectes et la commande publique*, Paris, PUF, 1998.

편리함등의 모더니즘 구호속에서 빛을 잃어갔고, 엔지니어와 손잡고 일하는 방식이, 전통적 건축 생산방식을 대체해가기 시작한다.

한편으로, 20세기 초엽, 도시문제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새로이 떠오른 직업, 도시계획가를 놓고 건축가와 기술자(엔지니어, 측량기사...)들이 모인다. 이 새로운 직업의 정의와 이론을 세우기 위해 1913년 설립된 《프랑스 도시계획가 협회(Société française des urbanistes)》가 세워진다. 건축가들이 다수였던 이들은, 《도시계획이 정부주도하에 장기적 예측속에서 작성되어야 하고, 개발이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며 활동을 전개한다. 1차대전을 거치면서 늘어난 도시계획가에 대한 수요는, 1919년 건축가 교육과는 별도의 도시계획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하고, 소위 도시계획가를 배출하기 시작한다. 2차대전후,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인력이 재건부(건설부의 당시 이름) 주도의 사업에서 활발하게 기용되기 시작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패권은 점차 건축가에게서, 특별 교육과정을 거친 도시계획가에게 옮겨지게 된다.

이때부터, 표준화와 산업생산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건축생산방식은, 건축가의 창조적 능력을 소외시키게 된다. 고전적 의미의 건축가들에게 진정한 건축이란, 구성의 조화, 입면의 아름다움등을 만족시키는 기념물이었다. 그들의 눈에 무절서한 도시개발, 미를 무시하는 대량생산 방식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어서, 대량건설 붐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을 엔지니어에게 내어 줄 수밖에 없었다.

이 직업경쟁에 관한 논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여, Florent Champy라는 젊은 연구원은 1998년 펴낸 책³⁾에서, 병원설계의 영역을 예로 들어, 병원 시스템 전문가들의 등장에 따라 점점 더 건축가의 영역이 좁아지고 있음을 밝혀, 건축가들 사이에 반항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건축사협회의 설립

193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건축가라는 칭호를 자신이 건축분야에 종사하기만 하면, 기업가나 엔지니어 할것 없이, 법적 제한이 없었으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각 건축가 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를 막아 줄 것을 정부측에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2차대전 중 독일점령하의 괴뢰정부인 비슈정부가 탄생하면서, 1940년 12월 31일의 법령에 의해 《건축사협회(Ordre d'architectes)》의 설립과 동시에, 건축학교 졸업생만이 건축가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보호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건축가의 직업활동 독점권의 획득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이 협회의 설립과 함께, 그동안 건축가 칭호를 사용하던 비 건축 직업인들은 밀려났다. 각종 단체가 가담하지만, 그 중심은 역시 보자르 출신의 건축 귀족그룹이었다. 《정부공인 건축가 협회》는 건축가의 독점권 보장 조항의 삭제등에 대해 불만이 있었지만 결국 가입한다. 1942년 말, 가입회원수는 5,500명, 지원하지 않았거나 거절당한 건축가 수는 1,000명 내지 1,500명에 이르렀다. 1944년 가입원은 6,725명이라는 회원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해방후, 사협회의 존속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된다.

1968년 학생혁명

이미 60년대 초부터 《건축이 건축가에 의해 서 이루어지나?》하는 물음과 함께, 도시계획, 새로운 건축 기술, 경제 및 인간과학등 건축의 영역을 재 정의해 보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보자르 학교로 대표되는 오랜 역사의 건축교육 시스템은 그 수구적 교육방법에 의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 예쁜 도면을 위한 과장된 장식적 표현, 다소 황홀한 계획안의 추구 등이 당시에 비판되던 대표적 보자르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다. 수 세기에 걸쳐 데생위주로 교육되던, 건축교육에 있어서의 보자르의 독점은 곧 건축생산의 독점으로 이어졌다. 보자르 학교 교수들은 공공건축 주문을 독점하고, 그 밑에서 그들의 구미에 맞게 선발되는 제자는, 최고의 영예인 로마상(Grand Prix de Rome)을 획득함과 동시에 새로운 주문을 얻어가며, 다시 보자르 학교 교수가 되어, 또 보자르 구미에 맞는 제자를 양성하고 있었다.

2차대전 후부터 시작하여 고도 경제성장과 인구의 대량 도시유입으로, 부족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빠른 시간내에 건축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바로 《대단지 주택(grands ensembles)》정책이었다. 주로 주택난 해결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이 정책은 곧바로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 주로 교외에 대단지 주택 위주로 건설됨으로써, 기반 생활편의시설의 부족, 도심에 위치한 직장 및 편의 시설로의 이동시간 증가, 역사적 연고없이 송두리째 옮겨진 새 환경에의 부적응 등이 그 대표적 문제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이 도시문제 속에서 인간중심으로 계획되어야



《대단지 주택(grands ensembles)》정책의 대명사가 된 《Carcelles 단지》

한다는 의식이 특히 학생과 식자층을 중심으로 확산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자르 시스템은, 1960년대 당시 연간 50만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상황에서도, 소위 《아파트건축》은 학교교육 대상이 아니라, 설계 사무소에서 건축다운 설계안을 수행하기위한 재정확보를 위해, 어쩔수 없이 하는 일이고, 관련된 문제들은 개발업자와 정부에서 해결할 일이지, 예술가로서의 건축가가 간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고집하고 있었고, 결국 학생들과 대치되게 된다.

1966년부터 1968년사이에 수업거부등 여러 충돌이 있었고, 학생층에서 건의하는 개혁사항들이 학교 당국에 의해 받아 들여지지 않자, 일군의 학생들은 지도교수 없는 독자 아틀리에를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하고, 서민 주택관련 사회학자를 초청해 강의를 개최하는등 능동적인 행동을 기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소규모 행동들은 그 한계를 보이고, 근본을 바꾸지 않고서는 개혁될 수 없다고 느낄 때 《68학생혁명》이 일어났다.

1968년 5월의 이 사건은 전통적 건축교육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흔들어 놓았다. 이 개혁은 한마디로, 과거 왕립학술원의 유물이자 19세기초에 형성된, 고래한 교육시스템을 뜯어 고친다는 것이었다. 수세기 내려온 중앙 집권적 보자르 건축학교는 결국 문을 닫고, 뼈리에 9개, 지방에 12개, 총 21개의 새로운 건축학교(Unité Pédagogique)가 생기게 된다. 이 새로운 학교는 대학시스템을 참조하여, 실기위주의 선발시험을 거치던 전례를 폐지하여, 대학 입학자격(Baccalauréat)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 그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앞서 언급한, 도시 계획, 사회과학분야등의 도입과 함께, 각 학교에 자율로 맡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⁵⁾

4. (왕립 건축 학술원(Académie royale d'architecture))이 창설된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성설계를 개척하였는데, 1720년부터는 수상자에게 로마에 있던 (프랑스 학술원(Académie de France))에 3년 4개월동안 체재하면서, 고대와 르네상스시대 작품을 연구할 수 있는 혜택이자 의무가 주어졌다. 프랑스로 보내지는 연구생과(주로 고대 기념물의 필사본)들은 매년 보자르학교에서 전시되었는데, 이 시스템은 유지하는 바와 같이, 주로 로마에 많이 남아 있던 고대 건축물의 규범과 디테일을 프랑스로 수입, 완전시킴으로써 행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이 로마상은 1968년 혁명 이후 폐지되었다.
5. 초기 각 학교의 교과과정은 매우 실험적이어서,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새로운 과목의 도입, 사후 평가등의 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색깔을 개발하기에 이르는데, 이 작업들이 당시 대표적 건축감독인 《오늘의 건축》('Architecture d'Aujourd'hui)에 지상 중계되기도 하였다.

직업 독점권의 사회적 인정

1968년부터 착수하여 1973년 발표된 한 설문조사 보고서⁸⁾는 당시 널리 알려진 건축가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자신의 직업에 환멸을 느끼고 있음을 밝혔다. 놀라운 것은, 전후 재건사업과 대단위 주택 건설사업 등으로, 돈을 많이 번 건축가들에게서도 같은 대답이 나왔다는 점이다. 이유는, 자신이 건축가란 직업을 택 하면서 품었던 이상, 즉, 건축주의 주문을 받아서 창조지로 계획을 구상하고, 이를 건설하는 총 지휘자의 이미지와, 실제 작업현실에서 일어나는 일, 특히, 개발업자와 엔지니어의 점점 증대되는 개입에 따라 건축가의 업무가 하나의 부속작업으로 전락되어 버린 사실 사이에서 느끼는 괴리감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의 건축주는 이미 예전의 고전적 건축주가 아니었다. 정부 또는 공기업등의 대 건축주가 각종 법규적 제한과 함께 대규모의 공사를 발주하기 시작하였으며, 개발업자, 건설회사, 건설관련 기술업체는 특히, 비용 절감이란 이유로 각종 규범을 강제하여, 건축가를 일개 도면작업만을 담당하는 설계사의 위치로 끌어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1960년대 들어,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건축가들 사이에서 일기 시작한다. 여러 단체가 각종 모임을 갖기 시작하고, 당시의 건축잡지는 그 상황을 게재하면서 여론형성에 들어갔다. 1963년 6월 24일에 있었던 《수도권 지역 건축가 조합(Syndicat des Architectes de la Seine)》에서 당시 회장이었던 Olivier-Pierre Lesné는 《진정한 건축 창작활동이 건축가 자신들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정당한 보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따라서, 우리 조합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자, 정당한 정신적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기 위한 정부와의 대화창구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당시의 직업적 어려움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경주를 호소하고 있다. 68혁명은 이런 현실에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고, 70년대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정책형성화 단계에 들어 간다.

1971년, 건축가의 신분과 관련한 법률이 발표되지만 건축가들에 의해 거부당하고, 1973년 다시 새 법률이 상원에 제출된다. 이 역시 건축가들의 입력에 의해 무효화 된다. 1975년 새 안이 제시되지만, 이번에는 건축가들의 대대적인 가두궐기로 이어지고 만다. 1975년 9월 23일, 건축사협회는 3,000여명이 참가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은 대단히 예외적인 일로 기록된다. 다른

여러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반대운동을 하는 일은 종종 있었으나, 성격상 사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궐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외적인 일이었다. 그만큼 그 시대를 위기로 보는 건축가들의 시각은 절박한 것이었다. 이후 이사건은 1977년의 관련 법 제정을 이끈다.

정부와 건축사협회, 그리고 프랑스 건축가 연맹의 협력이 있는 후, 1977년 새로운 법률이 공포되는데, 이 법은 건축가 신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방향전환이 되었다. 주요골자는 우선, 《건축이 문화의 표현임과 동시에, 건축창작, 시공의 질, 주변환경과의 조화, 자연과 도시환경 및 유적의 보존은 공익임》을 정부가 공인한 점이다. 또, 이 법에의해, 《농업용 건물이 아닌 170m² 이상의 신축은 협회에 등록된 건축사에 의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함께, 전체적으로 건축가의 직업 독점권이 허용되었다. 곧, 이후에는 건축학교를 졸업하여 자격증을 획득한 자가 아니면, 직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공론화한 것이다. 당시, 전국에는 22개의 건축학교가 졸업과 동시에 정부공인 건축가 자격증을 수여할 수가 있었으며, 이외에도 《국립 스트라스부르그 응용미술학교》와, 사립으로는 유일하게 《건축특수학교(Ecole Spécial d'Architecture)》가 건축가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었다.

건축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법은 2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독점권의 인정을 농업용이 아닌 170m² 이상의 연면적에 한하여 인정함으로써, 1970년대 말부터 일기 시작하는 개인주택 건설붐의 혜택을 결과적으로 별로 누리지 못하게 했다는 점이다. (면적의 적고 많음이 건축 창작행위에서 중요한 척도가 되는가?) 두 번째는, 건축 허가신청을 건축사 협회 등록한 건축사의 서명을 필하도록 하였지만, 정작 서명 이외의 작업 범위에 대한 세부지침이 빠짐으로써, 타업종의 직업인(특히, 엔지니어)이 작업을 하고, 건축가는 서명만 빌려주어도 되는 상황을 묵과한 점이다.

현재의 논쟁점

1950년 148명, 1960년 267명이던 연간 공인 건축가(프랑스에서는 건축학교 졸업작품 심사에서 통과한 자) 배출수는, 196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거쳐, 1980년에는 무려 1,457명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1960년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총 회원수는 8,300명, 1975년에는 10,300명, 1996년에는 26,500명에 달했다. 물론, 건축가 자격증을 취득한 모든 사람이 협회에 가입한다고는 볼

8. Raymonde Moulin외, *Les architectes, in teneur d'une profession libérale*, Paris, Calmann-Lévy, 1973.

수 없어서, 현재 유자격 건축가로는 35,000명에서 40,000명 기량으로 추정한다. 사협회 등록이란 곧, 자신의 사무소를 개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미등록 건축가는 대개가 다른 건축가에게 고용되는데, 조사자료에 따르면, 자격증 취득후 대개 2년에서 5년후에 자신의 사무소를 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1930년대에는 자격취득후 35%가 남의 사무실에 고용되었었는데 반하여, 70년대 초에는 63%가 남의 사무소를 거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84년에서 1993년 사이 등록된 건축사무소는 9,590에서 13,344로 증가했지만, 3/4는 직원수 1명 내외를 거느린 소규모의 사무실이고, 등록 50%의 건축가는 연소득 100,000프랑(18,000,000원) 미만이며, 사무실의 독립은 대개가 일거리가 있을 경우에 행해진다고 한다. 1994년의 경우, 총 15,472 사무소 중, 9,469는 직원 없이 건축가 단독으로 일하고 있으며, 4,130 사무소는 1~3명의 직원을 두고, 204 사무소만이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0년대 이후에 늘어난 건축가의 수, 취업의 어려움, 수입의 침체 등의 원인은 특히 개업건축가들로 하여금 반동을 일으켰다. 1976년에 발표된 한 보고서는 졸업자에 관대하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건축학교를 비판하면서, 자격자 배출의 수를 줄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1987년의 다른 보고서는 그 수를 연간 800명으로 줄여 줄 것을, 1995년의 조사에서는 67%의 응답 건축가가 새로 배출되는 건축가 수의 제한을 요구하였다.

반면, 유사업종 및 타업종으로의 전직 또한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부서, 지방자치단체, 모형제작, 컴퓨터 관련분야(CAD, 그래픽), 산업디자인등의 분야로 향하는 것이 보고 되고 있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의 경우 48%의 새 건축가가 독립된 사무실을 열었고, 20%가 다른 사무실에 고용되었으며, 17%가 공기업에, 11%가 사기업에, 18%가 다른 직업을 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두고, 어쩔수 없는 대안적 선택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건축학교 졸업생이 인접 타분야로의 진출은, 어찌보면, 건축의 분야를 넓히고 다양화하는 우리시대의 중요한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을 논지도 모른다. 건축분야의 저변 확대는 그만큼 시장확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개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가의 직업실태와 관련한 최근의 통계자

료는 대개가 비판적이다. 타업종에 비해 특이나 높은 건축가의 실업률,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난한 사무실, 힘든 취업...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는 강한 여론은 정부로 하여금 대책마련의 작업에 착수하게 하였다. 정부옹역에 의해 건축가들에게 맡겨져, 1998년부터 착수되었던 실태 조사는 그 결과가 2000년에 책으로 출판되었다.⁷⁾ 이는 곧, 정책대안 마련 작업에 들어 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마련 과정과 관련하여, 우리의 현실과 비교되는 점들이 있다. 하나는, 위의 예가 말해주듯, 정책의 입안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기 보다는, 관련 대상자에게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제안을 묻는다는 점이다(그것도 합당한 보수와 함께). 또, 프랑스에서는 고시 출신만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건축가가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소위 《개방형 임용제》가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는 행정 조직에 폭넓은 전문성을 제공하고, 실제 건축가 직업세계와의 원활한 의견제공을 가능케 한다.

70년대에, 건축의 제 위상을 찾기 위하여,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으며, 시끄러웠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 문화의 일면을 잠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때, 특히 건축가들의 대응방식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어느날 프랑스 목사가 필자에게 물었다. 《왜 프랑스에서 파업이 많은 줄 아세요?》 《글쎄요, 그만큼 자유가 많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 아닐까요?》라고 대답하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뿌리깊은 권위주의적 전통이 그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카톨릭 문화(교황으로 정점이 모아지는 위계)를 바탕으로 하여, 오랜동안 유지되어 온 중앙집권주의는 모든 행정체계에 권위주의를 각인시켰다. 따라서, 밑으로부터 온건하게 건의되는 사항이 쉽게 받아들여 지기 어려웠다. 그래서 파업을 한다는 것이었다. 70년대에 있었던 건축가들의 일련의 행동들은 결국, 정부로부터 《건축이 문화다》라는 인식과 함께, 직업의 독점권을 쟁취해 내게 하였던 것이다.

맺는말

우리는 이상에서, 건축가란 직업이 오랜 세월 건축적 이상을 간직한 채, 변화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끈임없이 노력하였음을 살펴 보았다. 때로는 정치적 변화와, 때로는 기술

7. *Etre architecte, pré sent et avenir d'une profession*. Paris, Patrimoine, 2000.

과 효율 지상주의의 지배속에서, 때로는 인접 직업의 침입 속에서, 가끔은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기도 하였지만 자존심과 건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상의 역사적 사실은 분명, 남의 나라 이야기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 견주어, 소위 '위기'로 표현되는 직업적 어려움에는 그리 많은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그 어려움의 해결방식이다.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들의 개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우선 여론형성, 정책대안의 마련, 정책결정, 집행 및 평가의 순을 따르는데, 프랑스의 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론 형성과 정책대안의 마련에 건축가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크게는 건축문화의 발전과, 보다 나은 미래의 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작업이 되는 것이다. 건축가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더 나은 건축문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필요 이상의 정부에 대한 적대감과 저항의식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대표되는 정책담당자는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같이 연구해야 할 동료임을 인식해야 한다. 최소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문제해결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다.

다시, Claude Parent의 《건축가, 사회의 어릿광대》로 돌아와 보자. 그가 책을 어떻게 마무리하였는지 무척 궁금해진다.

《건축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건축을 한다는 것은, 여인을 짝사랑하듯, 바보같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사랑하려 하겠습니까? 건축주에 의해 멸시당하고, 대중에 의해 욕먹는 이 현실속에서...

남겨진 것은, 그 사랑의 이면, 증오를 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권리를 막는 장애물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건축에 있어서, 증오는 무관심이나 포기하는 것 보다 차라리 낫기 때문입니다.》

건축가의 권익 옹호와 보다 나은 건축환경 창조를 위한 운동으로써, 건축사협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실제적으로 가장 큰 건축관련 단체이고, 유형, 무형의 커다

란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운동보다는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운동이 기대된다. ㉮

리모델링을 위한 최신 구조 보강 기법 4

State- of- the- art Structural Reinforcing Devices of Remodeling Buildings

기둥 보강

이창남 / 센구조 건축사사무소
by Lee Chang-Nam

기둥이 구조물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기둥은 바람이나 지진 기타 횡 하중에도 집이 심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도 하지만 주로 보에서 내려오는 연직 방향의 축 하중을 전달받아 기초에 전달하는 주요구조 부재이다.

한편 기둥은 보나 슬래브와는 달라 내력이 부족한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쉬운 방법이 없다. 슬래브나 보는 하중을 받아 힘 내력이 부족하면 구부러지는 것이 눈으로도 보일 정도로 크므로 쉽게 판별되지만 기둥의 압축 내력이 부족하면 길이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 줄어드는 길이가 너무 미세하여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것이 당혹스럽다.

이 때문에 설마 하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예가 있는 것이다.

줄어드는 길이가 적으면 스트레인게이지 등으로 정밀 계측하면 될 것 아니냐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스트레인 게이지는 기둥의 지나간 역사는 모르고 부착 후의 변형률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둥이 시공 당시 부터 위험할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어서 사전에 계측기를 부착해 두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기둥 길이가 몇mm 줄어든 상태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줄어들면 위험할 것인가를 알아낼 도리가 없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슬래브나 보는 하중을 받아 구부러진 것을 증거로 나타내고 있는 반면 기둥은 건물의 키가 몇mm 작아진 것으로 그치므로 별로 표가 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잘못된 학생들에게 주는 체벌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엎드려 뺨치 이고, 그 다음은 양 팔 벌리고 서있는 것이며, 가장 경한 것이 벽을 바라보고 서있는 것이다.

앞드려 뺀 것은 발끝과 팔을 지점으로 하여 몸통이 보 역할을 해야 하며 머리는 캔틸레버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허리가 아래로 향하여 구부러지고 머리는 숙어지게 되므로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또한 양팔을 벌리고 서있는 벌도 양팔이 점점 아래로 처지게 되므로 피로한지를 쉽게 눈치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벽을 보고 서있는 자세는 쉬는 시간까지 좀 체로 키가 작아졌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기둥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유치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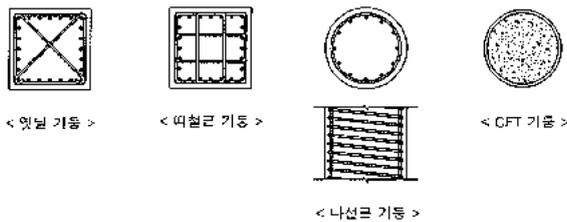
세장한(날씬한) 철골 기둥의 연직 방향 내력이 부족하면 주로 횡 좌굴 현상을 일으키면서 파괴되지만 철근콘크리트 기둥일 때는 대부분 주근이 외부로 좌굴을 일으키는 것을 띠철근이 잡아주지 못하여 압축 파괴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다.

기둥이 이 지경에까지 도달한 것을 발견하여 긴급 보강한 경우도 없지 않은데 참으로 식은땀이 날 지경이다.



<그림> 기둥의 파손 유형

이런 현상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시험실에서 시행하는 콘크리트 코어의 압축 시험을 눈여겨보면 짐작이 갈 것이다. 시료를 유압실린더로 눌러주면 시료 주변에 연직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하다가 급기야는 파편이 외부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 만약 강도가 큰 콘크리트라면 그 파편 떨어져 나가는 속도가 총알 같아서 사람을 다칠 염려가 있으므로 철망으로 보호막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때문에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띠철근이나 나선형 철근은 기둥의



<그림> 기둥 단면

파괴 하중을 증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며 띠철근 배근 규정을 까다롭게 하는 것도 이를 겨냥한 조치이다.

즉 20~30년 전만 해도 철근 값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또한 건물 높이가 높지 않아 기둥 단면이 조금 크다고 해도 별 흉이 되지 않았으므로 콘크리트의 압축내력만으로도 축하중에 견디도록 여유 있게 큰 기둥단면으로 설계가 일반화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띠철근이 시공시 주근이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형식상 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철근만 배근하는 것으로 만족했으나, 기둥 크기를 줄여서 압축력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띠철근 배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이름을 띠기둥(Tied Column)으로 명명하게 된 것은 그 중요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현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이른바 CFT(Concrete Filled Tube)기둥이다.

띠철근의 역할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려면 나선형 철근으로 배근하는 것이 좋으나, 시공성이 떨어지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띠철근 대신 이에 강관으로 철근콘크리트 기둥 단면 둘레를 감싸주면 기둥에 큰 압축력을 가한다 해도 강관이 터지지 않으면 콘크리트가 부서지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 CFT 기둥이다. 주사기에 물을 넣고 끝을 막은 채 피스톤을 밀어 넣으려 하면 좀처럼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도 이해가 될 것이다.

기둥의 내력이 부족할 때는 단면을 키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기존 건물의 기둥 단면을 증가시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철근콘크리트 기둥 단면을 증가시키려면 기둥 주변을 거칠게 까내고 철근을 배근한 후 거푸집을 대고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것이 그나마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기존 건물의 기둥 상부에는 보와 슬래브가 가로막혀 있어서 콘크리트를 붓기 위해서 슬래브에다 구멍을 뚫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기존 기둥과 새로 추가하는 기둥 외곽 면까지의 여유 폭은 적어도 15cm 이상인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은 기둥 크기가 너무 커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가로 세로 40cm인 기둥 주변을 15cm씩 키워도 전체 단면적은 4,900이어서 원래 기둥 단면적 1,600의 3배가 넘으므로 안전하기는 하지만 사용상 지장을 주는 일이다. 건축법규에서 지정하는 지하주차장 최소 통로 폭에 미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무리하게 10cm씩만 늘리려 시도하기도 했지만 거푸집을 뜯어내고 보면 콘크리트가 띠 철근에 걸려 마치 너무나 질겨서 뜯어먹다 포기한 갈비처럼 빈곳이 생기기 일쑤이다.

기존 기둥 주변에 일정 간격을 띄워서 철망을 둘러싸운 후 그 사이마다 잡석을 채우고 수밀 거푸집을 마련한 후 고 강도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를 컴프레서로 주입하는 이른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도 시도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공사 기간과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이 흠이다.

따라서 지금은 기둥 주변을 거칠게 꺼내고 철판을 뒤집어씌운 후 빈 틈에다 에폭시수지 등을 주입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앞의 보나 슬래브 보강에서와 마찬가지로 표면 정리 과정에서의 소음과 먼지가 심한 것이 문제이다.

또한 철판이 어느 정도 두께에 미달하면 압축력을 받을 때 외부로 휘어지는 좌굴 현상을 피할 수 없으므로 에폭시 수지의 점착력에 기대하는 것은 불안한 구석이 있어서 구멍을 뚫고 볼트를 박아 고정시키기도 한다. 이들은 보강하기 위하여 오히려 기존 기둥에 손상을 주고, 기존 기둥이 외곽 방향으로 터지면서 떨어져 나가려는 힘을 지탱하여야 하는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이들은 영업 중인 백화점에서도 영업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시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형강 추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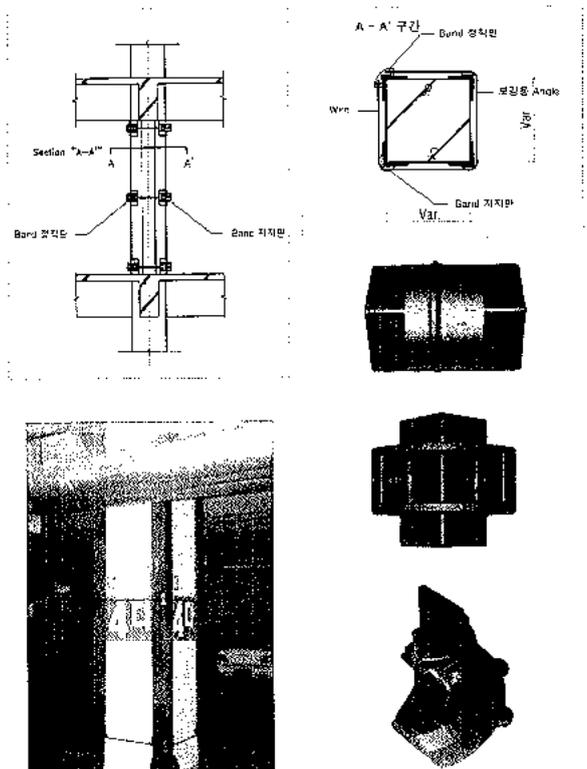
향간에서는 기둥 주변에 H형강이나, 강관 등 철골 부재를 추가하는 간편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역시 차지하는 면적이 커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4개의 ┐형강을 기둥 구석에 세우는 것인데, 이것이 앞의 철판을 뒤집어씌우는 방법과 다른 점은 ┐형강이 철판보다는 강성이 크므로 적당한 간격으로 묶어주지만 하면 횡 방향 좌굴이 제어되기 때문이다. 또한 철근콘크리트 기둥이 축방향력과 휨모멘트를 동시에 받을 경우 철근을 구석에다 많이 배근하는 것이 4면 고르게 배근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안다면 ┐형강의 구석 보강은 그런 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원형 기둥에서는 띠철근이 모든 주근을 동시에 구속해 주지만 4각형 기둥에서는 띠철근이 구석에 있는 철근만 구속하는 역할을 하므로 철근이 많을 때는 띠철근을 이리저리 추가하는 것이 규정에서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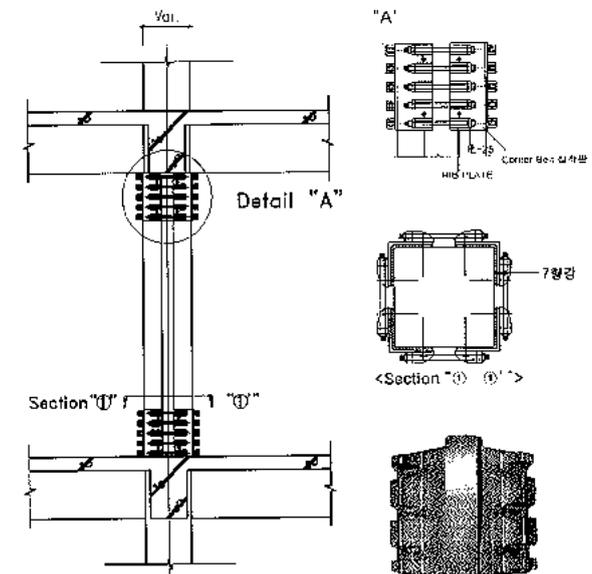
한편 기존 기둥의 4 구석에 추가한 ┐형강을 묶어주는 띠를 일반 띠철근처럼 느슨하게 배근하면 보강한 ┐형강이 압축력을 받아 외부로 좌굴을 일으키는 것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들을 강제로 묶어주면 좋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마치 나무상자를 끈으로 묶는 것과 같은 요령이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강선을 유압실린더로 당겨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정

력 볼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림) ┐형강과 강선을 이용한 기둥 보강



(그림) 고정력 볼트를 이용한 기둥 보강

강화외피첨가 방법

스티로폼 양면에 얇은 철판을 붙인 샌드위치 패널은 강성이 제법 크다. 오래 된 사무실로 이사 가서 칸막이 벽을 뜯어내면 2 장의 밤라이트 사이에 두꺼운 마분지로 된

허니컴을 폴로 붙인 패널인 것을 발견한다. 또한 대부분의 출입문은 이른바 플러시 도어로서 합판 등의 얇은 판을 가로세로 적당한 간격으로 배열해서 짠 목조 프레임에 부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단단하다.

이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2 장의 얇은 판대기들을 서로 간격을 두고 고정 배치하여 제법 튼튼한 구조 부재로 활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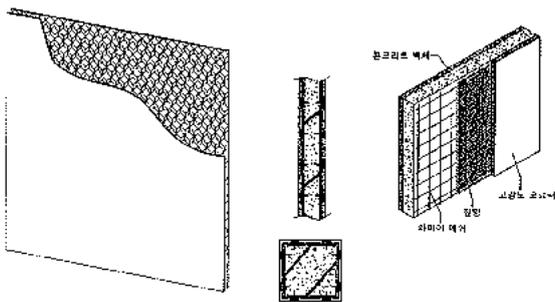
콘크리트 블록이나 중공 벽돌도 이런 개념을 활용하여 만드는 것이고, 크기는 지난 9월 11일 자살 비행기 테러로 무너진 뉴욕 세계 무역센터의 횡 방향 하중에 대한 저항 메커니즘도 그런 구조 개념을 조금 더 확대 활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세계 무역센터 남 북 동을 2 개의 거대한 기둥으로 취급하면 건물 외피는 합판 상자이고 내부 바닥 판은 앞에 설명한 칸막이 벽의 스티로폼이나, 마분지 허니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별로 관련이 없음직한 것들을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즉 기존 기둥을 스티로폼이나, 마분지 허니컴, 또는 목조 프레임 등으로 취급하여 그 외피에 얇고 단단한 재료를 뒤집어씌우면 훌륭한 보강된 압축 부재로 둔갑하며, 휨 모멘트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향상됨을 뜻한다.

칸막이 벽을 분해하여 마분지 허니컴과 2 장의 합판을 서로 분리하여 압축력을 받는 외벽이나 지붕 패널로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면 이들 사이의 긴결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등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가 이승만 대통령만 쓰던 명언이 아니다.



(a) 경량칸막이의 구성

(b) 강화외벽 첨가 방법

이상 4회에 걸쳐서 센구조가 독자 개발하여 특허를 받고 실무에 적용중인 구조 보강 방법을 소개하였다. 여기 선 보인 것은 주로 강선을 사용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다른 분야도 독특한 메뉴를 풍부히 마련해 두고 있음을 밝혀 둔다.

지금까지 위 공법을 활용하여 실제 보강 공사를 마친 건물은 2001년 10월 현재 35개 프로젝트이며, 지금 다른 일들도 상담 중에 있다.

또한 기획이 마련되면 기존 건물의 보강 방법 이외에, 건축사들 본연의 업무인 신축 설계에 적용하는 특수 구조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그 중 최근 연구 개발하여 공개 실험으로도 우수성이 입증된 TSC구조 공법의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서울대학교의 CRIC(www.cric.or.kr)을 접속하여 온라인 세미나에 등록된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Promoting Strategies for Remodeling

임태모 / 건교부 건축사무관

by Lim Tae-Mo

리모델링의 활성화 수립의 배경 및 경위

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대부터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하여 이후 높은 수준의 건축투자가 지속되면서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재고가 대량으로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며, 1996년 12월 현재 7백만 동을 넘어서고 있다. 이 가운데 주거용이 77.9%인 5백5십만 동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재고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부문의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 정책에 힘입어 2000년 기준으로 주택보급율이 94.1%로서 1,149만호가 건설되었으며, 2003년경에는 1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 주택호수중 단독주택은 37.3%인 4,289만호이며, 공동주택은 62.7%인 7,204천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건축 경과연수가 20년 이상인 주택은 280만호로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215천호로 공동주택의 약 3%에 해당하며, 앞으로 노후주택의 비중은 급속히 증가될 전망이다.

최근 이렇게 지어진 많은 건축물들이 그간 세월이 경과하면서 각종설비가 노후되고 건축물의 평면과 구조 등이 새로운 생활양식에도 맞지 않게 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재건축이 성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철거되는 건축물 중에는 아직은 구조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 약간의 개·보수만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많아 철거로 인한 자원의 낭비는 물론 건축폐기물로 인한 환경훼손 등 그 부작용과 폐해가 많은 실정이다.

한편 지금까지는 재건축시 높은 용적률이 적용되어 이에 따라 얻게되는 경제적 실리가 재건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어 왔으나,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제한함에 따라 재건축이 주춤하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안의 하나로 검토되어온 건축물의 개·보수의 경우 현행 각종 법령에 저촉되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와 같은 무리한 재건축에 따른 낭비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일부 개·보수 등을 통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하기로 하고, 지난 2000년 9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및 대한주택공사에 의뢰하여 "건축물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제도개선 방안과 신축건축물의 설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 2000년 12월부터 2001년 8월까지 대한주택공사가 공사소유의 오산 외인 임대아파트 43세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용역결과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

건설교통부가 용역결과 및 시범사업 등을 거쳐 2001년 8월 20일 마련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계법령의 개정

가.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 개정

① 리모델링하는 경우 완화기준 적용

20년 이상 사용한 기존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법제32조(대지안의 조경), 건축법제36조(건축선의 지정), 건축법제47조(건폐율), 건축법제48조(용적률), 건축법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제53조(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및 건축법제67(공개공지의 확보)의 규정을 다음의 범위 안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공의 이익에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 주변의 건축물 및 대지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로 한정하였으며,
-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계단·복도·각 세대 거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한 범위로 한정하였고,
- 일반건축물이 증축은 연면적 합계의 1/10 범위안에서 승강기·계단·주차시설·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외부벽체·통신시설 등의 개·보수를 통한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한 범위로 한정하였다
- 개축은 증축과 연계되는 접합부분에 한정하도록 하였으며,
- 특히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증가되어서는 안되고 또한 분양하는 복리시설은 리모델링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② 리모델링은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건축계획서 및 개략설계도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기준의 완화를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여 건축주에게 통보하면 이를 기준으로 건축설

계를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특히 기존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따른 구조적 안전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 및 감리를 반드시 건축사가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은 2001년 9월 15일 공포되었고,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은 2001년 9월 28일 공포되었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구분하여 법령을 개편중에 있으며,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주택법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시·도지사 리모델링의 행위허가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않아 이를 별도로 허가받아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의제하도록 하고,

리모델링의 행위허가 후 사용검사의 제도가 없으므로 사용검사제도를 신설하며, 리모델링 시공자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를 하도록 하여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부여하고, 공동주택의 증축 등으로 전용면적 변경 시 대지지분 및 공유면적 배분 방법의 특례를 정하여 대지지분이나 공유면적은 변하지 않도록 하고, 리모델링을 위한 소유자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리모델링의 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주택법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 중에 있으며, 심사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의결을 거쳐 2002년 3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공동주택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상호간의 변경 시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변경이 가능하였던 것을 어린이놀이터·단지내도로·조경시설·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상호간에 당해시설의 1/2범위이내의 변경 시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건축법령상의 리모델링의 범위라 하더라도 입주 후에는 증축이 불가하였으나, 입주자의 4/5의 동의를 득하여 구조안전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증축은 시·도지사 허가를 득하도록 하였고,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경미한 리모델링(계단 단

높이 제거, 수직 및 수평동선의 개선 등)시에는 입주자의 2/3이상 동의를 득하여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게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였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며, 앞으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02년 3월까지 개정할 예정으로 있다.

라.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

리모델링 대상건축물이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및 건축기준의 완화의 정도 등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적용토록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관리지구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와 고도지구는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동지역내에서 이들 기준을 건축법령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은 2002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마. 주택건설 조례개정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주거안에서 세대수 제한규정(예로서 서울시 조례에서는 주구당 150세대이상 400세대 이하로 제한)을 세대통합을 위한 리모델링 시에는 이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2002년 6월까지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2) 신축건축물의 설계기준 마련

향후 리모델링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구성을 증대시키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며,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신축건축물이 설계기준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 및 건축부자재 치수표준화(MC)

적용

- 내부 구조변경이 쉽도록 위치변경이 가능

한 가변계획을 수립

- 콘크리트 피복두께의 증가 및 최소 설계기

준 강도의 상향

- 세대의 확장·통합 및 분리를 고려한 구조

계획의 수립

- 설비 샤프트 및 덕트의 설치위치 및 구조를 점검 및 수리가 용이하도록 지하에 공동구 설치 및 수직 배관은 계단 및 복도 등 공용부분에 설치하고, 이중배관·건축벽체 내부배관·이중바닥 및 반자를 이용한 배관 및 세대내부에 공동배관 설치를 지양

장래 리모델링에 대비하기 위한 신축건축물의 설계기준은 공사비등의 증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설계자·시공자 및 자치단체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시 권장사항으로 시행하도록 2001년 11월중 지침으로 시달할 예정이다.

3) 리모델링 시 국민주택기금 지원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50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제도개선이 완료된 이후에는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것이므로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도 지원될 예정이다.

맺는 말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2002년 3월중 완료되면 2002년 하반기부터는 서울시내의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리모델링이 추진될 예정이다.

앞으로 대한주택공사가 서울 마포 용강아파트(5~7층, 6개동 180여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시범사업 결과 등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신속히 보완하여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

보행방식과 도시건축문화

Pedestrian Methods and Urban Architectural Culture

임창복 / 성균관대 건조토학부 건축전공 교수

by Lim Chang-Bok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도시 생활에서 필요한 기초질서를 바로 잡지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통행과 주차 질서를 지키는 일이나 전동차의 경우 내린 후에 승차하는 에티켓 등 서로가 지켜야만 되는 예절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 에티켓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의문이 가는 예도 없지 않다. 그 중의 하나가 현재 강요되고 있는 좌측보행이다. 한 국민이면 누구나 좌측보행을 생활화해야 된다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엄청나게 들어온 공중도덕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왜 좌측보행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고 그저 좌측보행을 해야하는 것으로 강요한다.

언제부터 우리는 좌측보행을 하게된 것일까? 아니 그 좌측보행이 현재와 같은 도시구조와 통행방식, 국제화의 측면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고려해볼 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 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그 적절성에 예외가 생기고 있다. 좌측보행을 하다가도 건물목에서 우측보행을 하라고 화살표가 되어 있다. 차량통행구조 때문에 우측보행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러가 하면 최근 점차 대중화되는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우측에서 있고 통행은 좌측으로 하도록 각종 시설물에서는 안내되고 있다. 이것은 과연 좌측보행과 일치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좌측보행을 하는 일본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이용시 좌측에 멈추어서고, 우측으로 통과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보행방식은 일본과 같은 좌측보행을 하되 각종 경우에 따라 우측보행원칙을 고수하는 불란서와 같은 대륙식의 방식을 접목시킨 형태이다.

너무나 혼란스럽다. 바로 우리나라의 도시는 시각적으로만 혼란스러운게 아니라 그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인간의 기본 이동원칙이 없어 더욱 혼잡하다. 그만큼 서로간의 불쾌감이 높아지고 안전하지도 않으며 갖가지 사회 비용만 높아질 뿐이다. 건물 내에서도 안내소의 위치 설정이나 전시실에서 관람객의 동선처리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계획에서 보행의 방향이 어느쪽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보행방식이 갖는 기초 질서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해 아직도 주목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에서 좌측 보행을 강요한 것은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일본에서의 수칙을 강요한데서 출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시대 이 땅에서는 차량이나 철도가 좌측 통행을 했고, 좌측보행이 안전했기에 좌측보행 질서를 교육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미군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하루 아침에 차량은 우측으로 다니게 되고, 철도는 그대로 좌측으로 다니는 상황이 되었으며 우리는 별다른 검토 없이 보행 방식은 그대로 좌측을 강요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보행방식에 얽힌 역사를 볼 때 일본인들은 좁은 골목에서 사무라이들이 자신을 보호하며 상대방을 공격하려면 골목의 좌측에 붙어 다녀야했다는 데에서 유래한다고 하며, 영국에서도 좌측통행이 유래된 것도 말마차를 채찍질하려면 좌측통행방식이 유리하다고 하는 설도 있다. 모두가 자신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그러한 수칙이 태동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3칸으로 되어 있는 각종 정문을 드나들 때에는 우측 문으로 들어간 후 다시 우측으로 나오는 것이 원칙이었다. 미당에서도 전면에 건물이 있을 때 동쪽의 계단(東階) 즉 우측의 계단을 이용해 올라간 후 서쪽의 계단(西階)을 이용해 내려오는 게 원칙이었던 것을 보면 적어도 궁궐이나 사찰 또는 각종 시설에서 우측통행의 원칙이 보다 폭넓게 활용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보행방식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와 같이 한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도시건축의 구조적 측면에서 많은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현 도시 차량통행방식과 국제적 관행 그리고 우리의 문화적 전통을 고려해서라도 보행방식은 우측 보행으로 전환되어야 하겠다. ■

충주 국민체육센터 현상설계를 마치고

Completing the Competition Entry Project for Civil Sports Center of Choongju

최재인 / (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oi Jae-In

계획 고민하기

- 이곳이 바로 그곳이기에

어릴적 친구들과 맥감고, 칩부리를 캐어먹던 곳이 바로 이 현상설계 SITE 이기에 꼭 설계에 당선되었으면 했고, 30년이 지난 지금 이 현상설계와 인연이 될려고 그랬는지 나는 30여년전에 이미 SITE 지질조사까지 했기에 꼭 당선되고 싶었다.

- 어쩔 수 없는 현상설계이기에

현장설명때 30여업체나 참여해 질의도 많았지만, 막상 작품제출한 업체는 5개업체 뿐이었고, 결국 당선은 한업체 만 되니 나머지 참여업체의 그동안 고생한 품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 국민체육센터라고 하기에

25m 8레인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문화교실 모두 합쳐서 1,300평 규모의 2층건물로 계획하라고 했는데, 왜 이런 유형의 건축물들을 "센터" 라고 하는지 설계자인 우리도 잘 모르겠다.

- 주변건물과 어울려야 하기에

바로 인접대지 옆 팔작기와 지붕의 우륵당과 조화될 수 있게 수영장을 설계해야 하는데, 과연 기와집과 조화가 되는 디자인은 어떤것인가? 수영장과 기와집은 태생이 서로 틀린데 "전통"이라는 풀지못한 "화두"가 이 현상설계 내내 머리속을 어지럽게 하고, 실력의 한계를 많이 느끼게 했다.

현상 설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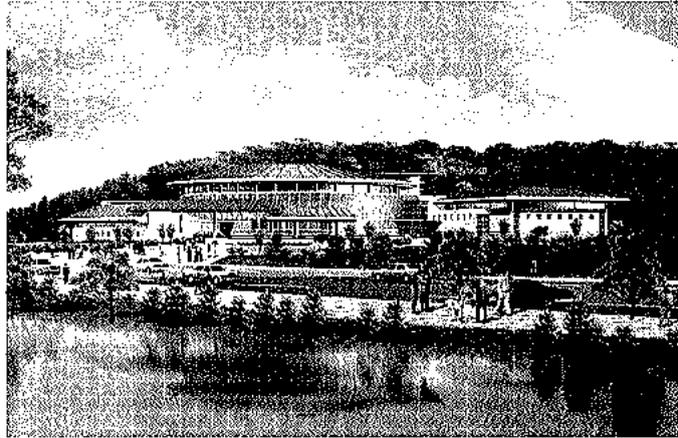
- 최선의 배치안이어야 하기에

어떻게든 산림훼손 덜하고, 자연지형을 이용해 환경에 순응하는 배치가 되어야 한하기에 언덕은 남기고, 낮은쪽에는 광장을 만들었는데, 전면에 있는 숲은 도시계획에 의해 광장이 된다니 그것은 자연 훼손이 아닌지?

- 수영장이 2층에 있는 평면이기에

사워하고 계단을 올라가 수영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지만, 그렇게 해야 그래도 커튼월 넘어 호수의 전경을 가슴에 가득 안고서 수영할 수 있고, 도로에서 노출되는 비키니 수영복 아가씨의 프라이버시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 호수의 전경이 외벽면에 반사되게 하고 싶기에



충주 국민체육센터 당산인

건물이 자연을 품에 안을 수 있다면 비록 반사유리에 비친 모습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기에 전면에는 벽면을 경사지게 하여 평화스런 호수를 담아보려고 했다.

•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기에

자연채광보다 좋은 것은 없다. 그래서 천창을 만들고 고층창도 만들어 밝고 쾌적하게 하면서 에너지도 절약된다면 그것이 친환경 아닐까? 그렇지만 자연채광이 많으면서도 수영장 POOL에 이끼가 끼지않는 정도가 얼마큼인지 더 공부 해야겠다.

당신 기분내기

• 예산에 맞는 설계를 해야 하기에

45억원 이란 공사비가 내돈은 아니지만 설계자는 갑자기 부자가 된것 같고, 자재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특권도 있다. 설계를 잘해서 모든 기능적인 문제가 잘 처리되고 외관도 우수하며 공사비를 절약한다면 그 절감한 금액의 5%라도 설계자에게 주는 제도가 훨씬 설계를 잘하게 할텐데....

• 설계비는 주는대로 받아야 한다기에

현상설계가 끝났어도 설계비가 얼마인 줄 모른다.

발주처가 아직 안알려 줬으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냥 많이 준다면 좋겠는데, 예산기준에서 깎이나 말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어디 현상설계 뿐인가. 도대체 우리나라 건축 설계비의 적절한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이 과연 OECD 선진국인가?

• 현상당선은 한턱내야 한다기에

당선되어서 싫은 사람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의 웃음뒤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을까? 내심 걱정된다. 우리도 그런적이 많았기에..... 밤샘 직원들 및 또 그 가족들이 없으면 도대체 건축이 되는건지? 한턱 내는 것은 문제없지만 그냥 웃고 즐겁지만은 않다.

• 기분은 순간, 고통은 계속된다기에

각종 영향평가, 심의, 자문, 협의 등에 시달려 본 사람은 관공서 설계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을 터이지만, 그래도 설계는 공사하는 것보다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편하다고 스스로 위안도 해본다. ㅎ

건축계소식 / 83

현상설계경기 /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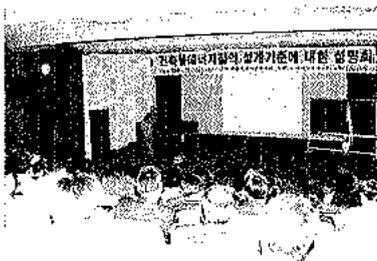
해외잡지동향 / 98

리포트(제11차 아카시아 포럼) / 104

건축계소식 archi-net

서울시건축사회,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설명회

11월 9일 우리협회 강당에서



서울시건축사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 우리협회 강당에서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지난 6월 1일자로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개정,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새 기준에 대한 설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설명회는 (주)리나이코리아와 (주)LG전자 시스템에어 콘사업부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충북건축사회, 친선 등반대회 개최

경북·전북건축사회와 삼도봉 등반

충북건축사회에서는 지난 10월 19일 경북, 전북건축사회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유대강화는 물론 상호정보교류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삼도봉 등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3개도건축사회 회원 등 120여명이 참여했으며, 매년 정기행사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삼도봉 정상에서 '슬기와 희망과 용기를 주어 좀 더 크고 넓은 건축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기원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장석웅 회원, 문화훈장 옥관장 수상

지난 10월 20일

장석웅(63, 아도무건축)회원이 문화훈장 옥관장을 수상했다. 지난 10월 20일 문화의 날을 맞아 서울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거행된 기념식에서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제33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문화훈장(34명), 대한민국문화예술상(6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8명) 등 48명의 문화유공자에 대한 시상이었다. 문화훈장 수상자 중에는 장석웅회원 외에 건축계인사로 주남철(문화재위원, 고려대)교수가 포함돼 있다. 이번 문화훈장을 수상한 장석웅회원은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은 물론 국제건축교류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제21차 UIA 총회

제21차 UIA총회가 2002년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독일 베를린 The Interational Congress Center에서 「자원과 건축물」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세부일정

- 2002. 7. 22(월) 활동계획 회의
- 2002. 7. 23(화) 국제위원회 지역회의, 과학위원회 회의
포럼 및 워크샵 (도시사회, 개혁과 전통, 건축과 자연)
- 2002. 7. 24(수) 국제위원회 지역회의, 과학위원회 회의
포럼 및 워크샵 (도시사회, 개혁과 전통, 건축과 자연)
- 2002. 7. 25(목) 국제위원회 지역회의, 과학위원회 회의
포럼 및 워크샵 (도시사회, 개혁과 전통, 건축과 자연)
- 2002. 7. 26(금) 과학위원회 회의 (공간과 정체성)

기타사항 (동 기간내에 개최)

- 학생공모전 및 UIA 건축상 시상 및 전시회
- 건축기행
- 세계무역박람회 개최

총회사무국

- UIA Berlin 2002 e.V. Koepenicker Str. 48/49
D-10179 Berlin (Mitte)
- Fon +49-30-27 87 34 40, Fax +49-30-27 87 34 12
- www.uia-berlin2002.com, info@uia-berlin2002.com

공동주택관리령 입법예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위해

정부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 또는 단지 단위의 개·보수를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 10월 10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령 및 관리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증·개축을 당초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 사실상 리모델링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입주자 80% 이상이 동의하고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 등이 인정할 경우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또는 단지단위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구수를 증가시키지

나 벽식구조의 공동주택의 세대통합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 또한 현재 공동주택단지내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상호 용도변경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 단지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주택단지내 도로,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등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주택건설기준의 50% 범위내에서 상호 용도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리모델링(단지별에 한함)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주택기금 500억원을 리모델링 사업용으로 지원키로 했으며, 리모델링 기준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수립토록 함으로써 리모델링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에 리모델링 제안주체의 기능을 부여, 리모델링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일시적인 입주자 필요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리모델링조합을 신설토록 했다. 아울러 2천가구 이상의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는 유치원부지가 사용검사 후 상가 등 다른 용도로 변경, 신축하는 사례가 많아 2천가구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된 유치원부지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용도로만 신축토록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변경 절차를 완화, 지금까지는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계단높이 제거 등 경미한 개조행위의 경우에도 입주자 3분의 2 동의 및 시장허가를 받아야해 실제 시설변경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신고만 하면 가능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 아파트로 개조하거나 소형평형의 대형평형으로 개조, 재건축시 경제성이 없는 10층 이상 고층아파트의 개·보수, 주차장확충을 위한 부대복리시설간의 용도변경, 발코니의 실내화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공포

11월 10일 공포와 동시 시행

앞으로 서울 시내 주거지역 경계선에서 50미터 이내의 영역에는 러브호텔 또는 단란주점 등 숙박, 위락시설의 건축이나 용도변경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7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주택가 및 학교 주변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확정, 11월 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거리안에는 러브호텔 또는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숙박 및 위락시설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할 수 없도록 엄격 규제키로 했다. 또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를 초과해 떨어져 있더라도 200미터 안에서 신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규제의 여지를 남겼다. 조례 개정안은 아울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개발행위 허가취소 규정을 고쳐 2년으로 연장하고 1회에 한해 1년의 기간 동안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울트라건축박물관 개관

11월 16일

건설회사에서 설립하는 건축박물관이 11월 16일 개관하게 된다. 그것은 울트라 건설 주식회사에서 설립하는 사립박물관인 울트라건축박물관으로 충청도

에 위치한 건축에 관한 전문박물관이다. 울트라 건설의 강석환 회장이 대학 2학년 때부터 수집한 자료로 문을 열게 된 울트라건축박물관은 대패, 끌, 톱, 그르개, 깎낫, 흠이기, 먹통, 송곳, 기와 등 30여종, 총 780여 점에 이르는 건축연장과 자료를 소장하고 있어, 한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건축연장의 점수의 측면에서도 최대의 점수를 자랑한다.

11월 16일, '건축장인의 연장이야기'라는 테마로 전시되는 개관전은 우리의 전통적인 조선시대 중·후기의 연장은 물론, 일제~해방이후에 이르는 우리의 옛 건축연장 220여 점이 전시되어 있어 시간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우리 연장의 모습을 직접 보고 이해하며, 또한 중국과 일본, 미국의 연장과도 함께 비교해 봄으로써 각국 연장의 특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울트라 건축박물관은 개관전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열릴 예정이며, 박물관 교육도 계획 중에 있다.

개관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제6회 경기도건축문화상

대상에 '삼성생명 Noble County'

경기도가 주최하고 우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와 한국건축가협회 경기지회 등 건축 및 건설관련 5개 단체가 공동 후원한 제6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시상식이 지난 10월 30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부 시상식과 2부로 심포지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1부 시상식에서는 금년도 건축문화상에 응모한 36점 중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되

어 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용인 하갈리 삼성생명 노블카운티(삼우설계/삼성물산/삼성생명)의 설계자와 시공자, 그리고 건축주가 차례로 수상하였다.

지난 9월에 구성되어 금년 건축문화상 심사를 맡아온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수원대학교 안경환 교수에 따르면 삼성생명 Noble County는 쾌적성을 높인 옥외공간계획과 각 건물간의 연결동선을 Bridge로 연결하여 주거동에서 복지시설로 노약자나 장애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한 동선계획이 우수하다는 평이며, 생활문화센터에 어린이집과 연회장, 그리고 스포츠센터를 개방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시설내 노인들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유도함으로써 노인생활을 더욱 활기치게 만들고자 배려하는 등 복지시설의 사회 환원화를 이룬 점에서 시설의 사회적 기여도가 컸다는 심사평이다.

주거부문에서는 은상에는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씨퀵스(서인건축/세진건축/오용석)가 은상을, 가평군에 위치한 북면씨주택(에터건축/화인하우스/김수중)이 동상을 차지했고, 비주거부문에서는 안양시의 안양체육관 및 빙상경



대상/노블카운티



비주거부문 금상 / 안양체육관 및 빙상경기장



주거부문 은상 / 씨퀵스

기장(행림건축)이 금상을, 평택시의 안중성당(NS한건축)이 은상, 광주시 영은미술관(일건축)이 동상을 각각 차지했으며, 이 외에는 주거부문 2작품과 비주거부문 7작품은 입선작으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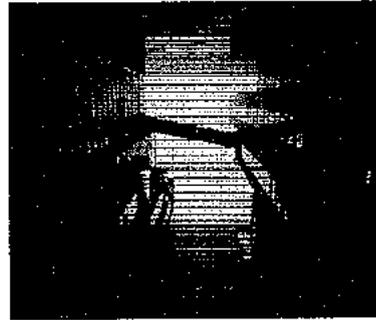
이들 작품중 동상이상 작품의 설계자와 시공자 그리고 건축주가 상을 수상했으며 설계자에게는 시상금이 건축주에게는 기념등판이 부상으로 지급되었다. 시상식에 이어 개최된 심포지엄에서는 손세관 중앙대 교수 주관으로 건축물 에너지 절약방안에 대해서 이지형 안산시 상수도사업소장 등을 비롯한 참여자들의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도는 이날 심포지엄 결과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심사는 안경환(수원대)교수를 위원장으로 김기봉(동문건설), 김동훈(진우종합건축), 김정희(동국종합건설), 윤덕천(윤건축), 이도형(경기도의회), 이영택(정동종합건축), 이운구(경기도의회), 정용배(경기도 주택과)씨와 김덕현(수원과학대)교수가 참여했다.

건축가협회, 제6회 건축사진전

11월 19일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최우수상에 '광명'

건축가나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6회 건축사진전이 한국건축가협회 주최로 진행됐다. 지난 10월 12일까지 총 82점이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 김종민(제주대)씨의 '광명'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박승(삼우건축)씨의 '옥외 배수로'와 조성욱(대룡건축)씨의 '삶의 자취를 따라서'가 선정됐고, 장려상에는 윤보기(성균관대)씨의 '의도'와 박종수(한양대건축디자인대학원)씨의 '남산골 샌

님', 이혜란(동국대)씨의 '마이너스 이즈 플러스'가 선정됐다. 그 외에 15작품의 입선작이 선정됐다. 심사는 정정웅(정장웅사진연구소)씨를 위원장으로 김한일(그룹한건축), 박상현(이카플렌), 문신규(토탈디자인), 이병호(다다인터내셔널), 원대연(플러스문화사), 조성렬(큐빅디자인연구소)씨가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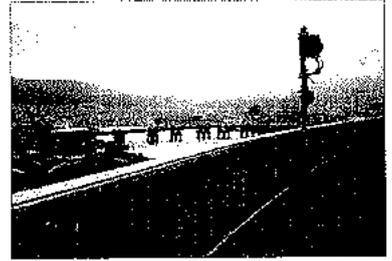


최우수작

2001건축도시사진전

대상에 '영도다리의 마지막 신호'

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회가 주최한 2001건축도시사진전에서 윤준환(동아대)씨의 '영도다리의 마지막 신호'가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오브제의 표현보다는 건축, 도시, 인간미, 삶 등이 어우러진 사진을 선정한다는 심사기준을 가진 이번 사진전은 대상외에 최우수작으로 조현제(동아대)씨의 '육교풍경1'과 김석환(터·울건축)씨의 '여기도 저곳처럼 되고 싶어한다'를 선정했다. 그 외에 우수상 3점과 특선 5점, 장려 10점 등 입선 다수를 선정하고, 지난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부산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전시했다. 심사는 정량부(동의대)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김기연(인제대), 오승환(경성대 영상사진공연학부)교수와 강대화(토탈건축), 조명환(건축사진가)씨가 참여했다.



최우수작

「목조주택의 오늘」展 개최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에서 11월 30일까지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가 주최하는「목조주택의 오늘」전이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국민대학교 강남교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 기간 중인 11월 24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관련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환경건축의 패러다임(이윤하소장), 북촌 한옥마을의 보존과 재생(송인호교수), 목조건축의 텍토닉적 환경(조남호소장)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문의: 02-2006-6212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추가모집

12월 7일까지 접수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3년과정: 건축설계
- 박사과정: 건축계획, 건축역사·이론, 도시환경, 디지털건축
- 전형방법
- 석사3년과정: 실기(개념스캐치, 해

설), 구술

- 박사과정: 서류, 구술

지원자격

- 석사3년과정: 학사학위취득자와 취득 예정자(전공불문)

- 박사과정: 건축학을 전공한 석사학위자와 취득예정자

전형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 전형일: 2001년 12월 12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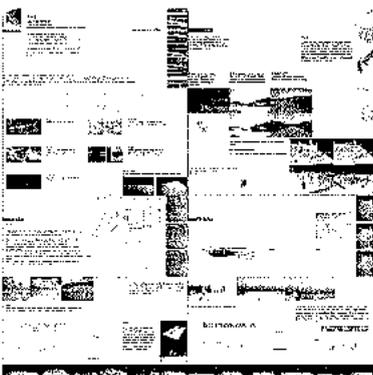
문의: 02-390-5245

http://gsak.kyonggi.ac.kr

2001공간국제학생건축상

대상예 이승윤, 이일하의 '스카 이즈 메모리'

공간사가 주최한 2001공간국제학생건축상의 시상식이 지난 10월 9일공간사옥 전시장에서 있었다. 1983년 신설되어 올해로 19화째를 맞는 공간국제학생건축상은 올해부터 참가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심사결과 대상에는 이승윤, 이일하(한국예술종합학교)씨의 '스카 이즈 메모리(Scar is Memory)'가, 최우수상에는 이종희, 이정승, 김명선(아주대)씨의 '블러(Blur)', 우수상에는 김세립, 김표중, 김명곤(성균관대)씨의 '롱스탠딩..랑데뷰'



대상

외 2점이, CG상에는 이동복(성균관대)씨의 '랑데뷰:타임앤스페이스'가 선정됐다. 그 외에 가작 4점, 입선 7점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만남(Rendez-vous)'이었다. 심사는 민현식(한국예술종합대학, 기오현), 세지마

현실비평연구소, 테마건축기행

2002년 2월 2일부터

가즈요(SANAA, 일본)씨가 맡았다. 현실 비평연구소에서는 테마건축기행 - 네가지 이야기를 기획, 답사를 통한 '세계건축사' 기행을 마련한다. 이번 여행은 모집 인원수에 따라 15명, 30명 두 경우 중 하나의 경우로만 운영하며, 현장비평 시스템을 운영하되 대장과 대원으로 구성되어 답사 전반에 대한 운영과 토의 및 핸드북을 작성하게 된다. 또한 도상학적 측면에서 보다 집중되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참가자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된 적극적인 세미나가 될 것으로 주최측은 기대하고 있다. 문의 : 02-372-7739 www.archi.tv

첫번째 이야기 / 유럽건축사 기행

- 코스 : 서울 - 홍콩 - 런던 - 파리(롱상) - 암스테르담(로테르담) - 베를린 - 빈 - 베네치아(말리노, 코모, 루가노) - 쥐리히(비젤, 웨인) - 홍콩 - 서울
- 일정 : 2002년 2월 2일부터 2월 17일까지(15박 16일 예정코스로 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참가경비 : 315만원(학생 5% 할인 : 299만원)
- 신청마감 : 2002년 1월 5일까지(신청시 참가 신청금 50만원 납부)

두번째 이야기 / 헤쳐모여 IMF식 일본 현대건축 기행

- 코스 : 서울 - 동경 - 오사카 - 서울
- 일정 : 2002년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6박 7일 예정코스로 구성이 포함됩니다.)
- 참가경비 : 135만원(학생 5% 할인 : 128만원)
- 신청마감 : 2002년 1월 5일까지(신청시 참가 신청금 30만원 납부)

세번째 이야기 / 9년의 노하우 '양질전 이 프로젝트

- 코스 : 서울 - 동경 - 오사카 - 교토 - 고베 - 히메지 - 후쿠오카 - 서울
- 일정 : 2002년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6박 7일 예정코스로 구성이 포함됩니다.)
- 참가경비 : 180만원(학생 5% 할인 : 171만원)
- 신청마감 : 2002년 1월 5일까지(신청시 참가 신청금 30만원 납부)

네번째 이야기 / 인도 건축 기행 프로젝트

- 코스 : 서울 - 델리 - 비라나시 - 아그라 - 자이프르 - 아메다바드 - 디카 - 봄베이 - 서울
- 일정 : 2002년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 참가경비 : 198만원(학생 5% 할인 : 189만원)
- 신청마감 : 2002년 1월 5일까지(신청시 참가 신청금 50만원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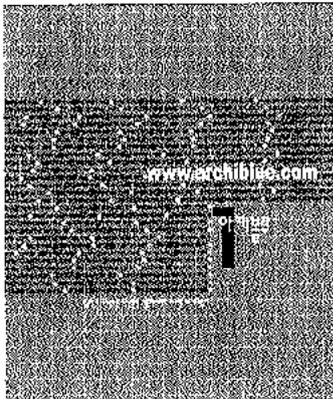
시간안내

아키블루(건축문화무크지)
안동 하회마을, 반가와 민가

◆ 아키블루(건축문화무크지)

건축문화 무크지를 표방하고 탄생하는 「아키블루」는 온라인(www.archiblu.com)으로 2000년 10월에 문을 열어 운영해오다가 오프라인에 대한 요구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연간 2번으로 발간할 예정이며 온라인 내용과(1/3) 추가내용(3/2)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을 발간하게 된 이유는 소통의 중요성 때문이었다. 항상 문화적으로 척박하다고 뻔뻔하게 경직되어 있는 부산이라는 땅에 서로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싶었다. 하나의 건축물이 도시 공간에서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이루는 하나이듯, 우리가 만드는 매체도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이 젖어 물들어 가는 건축을 말하고 싶었다.

문의 : 비온후(051-464-4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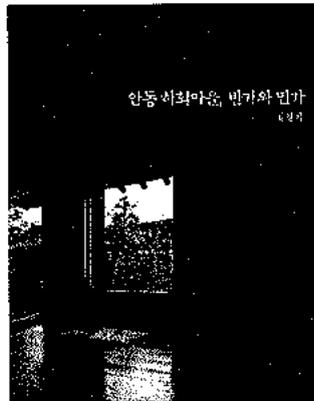


아키블루 표지

◆ 안동 하회마을, 반가와 민가

하회마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매력적인 전통마을이다. 우선은 양진당, 충효당을 위시한 하회 류문들 반가의 품위와 각 가옥마다의 독특한 의장적 표현에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각 사회적, 시대적인 배경을 각 집마다 오롯이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각 가옥들의 격은 현저히 다르게 나타난다. 지순가인 충효당이 숭고한 권위를 지녔으나 종손가 양진당의 위상을 따라낼 수 없는 것 또한 이에 연유하는 것이다. 다음은 하회의 민가이다. 어쩌면 하회마을은 민가로 인하여 더욱 보존 가치가 높은 지도 모른다. 하회의 민가는 우리 나라의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민가형의 대부분을 보여준다. 각 지역마다 고유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 민가이기 때문에 하회의 이러한 현상은 아주 특이한 현상인 것이다. 대다수의 백성들의 집을 민가라고 볼 때 우리의 민가에 대한 관심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책은 하회의 집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회에 있는 반가와 민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住)문화적인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다. 전통이 현 사회의 이해 관계 때문에 다양하게 이해되고 사용되는 현실 속에서 하회의 훼손에 대비하여 하회마을의 반가와 민가를 지면상으로도 기록해두고자 하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두었다.



김경희 지음 / 8천원 / 비온후 펴냄(051-464-4115)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6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51-6909
- 광역구건축사회/89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684-5828 · 금천구건축사회/659-1588
- 노원구건축사회/338-5781 · 도봉구건축사회/954-1253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935
- 성북구건축사회/922-6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6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38-1466
- 종로구건축사회/737-3030 · 중구건축사회/231-5148
- 중앙구건축사회/437-30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6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04-50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662-2337 · 부천시지역건축사회/(032)65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6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895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미천지역건축사회/(031)69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857-8149
- 오산시건축사회/(031)9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6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309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8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30 · 춘천지역건축사회/(035)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영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8-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68
- 공주시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94-32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3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9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5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3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85-98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시지역건축사회/(061)748-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시지역건축사회/(061)366-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시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시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9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9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6-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영산시지역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시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33-4612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인천 남동공단에 자리한 (주)서한메라민(대표이사 이균길 www.antamine.com)은 18년간 메라민시트 및 인쇄회로기판(PCB)지시보드 등을 전문생산 판매해 온 동업계 최초의 벤처기업으로서 전제품 ISO 9002인증과 UL마크를 획득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이다.

(주)서한메라민이 생산하는 메라민시트와 BACK UP BOARD는 화학합성수지와 필름을 원료로 하는 합성물질로 주로 사무용, 생활용, 주방용의 표면마감재, 고급바닥재, 고급인테리어소재, 철도차량내장재, 선박 및 버스내장재, 악기용마감재와 PCB인쇄회로기판 HOLE가공용 등으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재료이다.

특히 PCB인쇄회로기판 지지보드분야에서는 국내시장 점유율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래 고객도 대덕전자 및 삼성전기 등 국내 우량기업들이다.

창업이래 화학합성 표면마감재 제조기술의 연구개발에 집중하여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우량기술기업, 유망선진기술기업, 기술경쟁력우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화학합성표면마감재 제조기술을 개발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인테리어산업 발전을 선도해와 지난해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중기청장으로부터 미추홀중소기업대상(우수벤처부분)을 수상하기도 했다.

더구나 인테리어 마감재 제조기술분야의 기술력은 미국의 WILSONART와 독일의 DUROPAL사 등 선두업체들과 대등한 수준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해외시장에서 더욱 정평이 나 있기도 하다.

IMF이후 화학합성 표면마감재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R&D투자를 계속하여 동업계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초로 국가가 공인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방재시험연구원의 난연 1, 2급(불연재료, 준불연재료)과 한국소방검정공사의 방염성능검사를 거쳐 불에 타지 않는 인테리어용 건축내장 표면마감재(ANTAMINE(안타민))를 자체기

술에 의해 개발하여 과기부 전문위의 1, 2, 3차 심사를 거쳐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 KT마크를 급번에 획득하였다.

이 신소재는 그간 건축물의 내부에 난연이 되는 대체용 인테리어 소재가 없는 관계로 합판이나 MDF(PB)에 LPM이나 HPM, 무늬목도장마감 또는 인테리어용 PVC비닐이나 우레탄 폼 등으로 건축내부를 마감함으로써 지난해 화재의 씨랜드와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피해가 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온 이 회사 이균길사장의 아이디어 착상에서 비롯되어 불이 나더라도 불에 타지 않는 마감재를 개발하여 대형 인명피해는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개발에 착수하여 2년간의 연구끝에 난연고분자수지를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을 표출할 수 있는 표면지와 난연성기재에 수지를 함침시켜 고온고압에서 프레스하여 제조된 첨단소재로 건축물의 천장과 벽 등의 인테리어 표면마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안타민 석고보드와 안타민 밤라이트(플랙스)보드 그리고 건축용시트 및 건축물의 바닥용으로 사용 가능한 안타민시트 4종류로서 화재발생시 불에 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유독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500여가지의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고 표면은 멜라민의 우수한 강도 적성능(내열성, 내마모성, 내약품성, 내충격성등)을 견뎌내며 반영구적이면서 시공도 입체형으로 간편하고 가격경쟁력도 갖추고 있는 합법적이면서 혁신적인 신개념 신소재이다.

개정된 건축법(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에서는 그간 면적에 대하여 제한을 받아오던 공연장이나 단란주점, 당구장, 노래연습장, 예식장,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 주점영업점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난연2급 준불연재료급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있고, 최근 개정된 소방법(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도 다중이용업, 안마사술소, 헬스클럽장, 특수목욕

탕,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호텔,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방송국, 촬영소 및 전시장, 고층건물 등에도 앞으로 난연2급 이상의 재료를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앞으로 인테리어용 건축내장재는 불에 강하지 않으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외국에서도 난연재료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되어 있어 내수판매와 중국 등 동남아 지역과 미주나 독일 등 유럽등지의 수출전망은 아주 밝아 건축 및 인테리어업체관계자 및 바이어들의 방문과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이균길사장은 말한다.

지난번 코엑스에서 공공시설 박람회에 참가한 이후 건축 및 인테리어업체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바이어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 올 연말까지 주문량을 이미 확보하여 올 매출이 작년보다 40%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아 수출상품의 효지노릇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특히 안타민은 신기술인증으로 국가계약법 제26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군수품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이다.

그간 (주)서한메라민은 중소기업청과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고도기술개발사업에 독창적인 과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5년연속 선정되는 등 여러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면서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화장판의 제조방법, 인테리어 내장소재 제조방법 특허권과 난연성 인테리어용 석고보드, 밤라이트보드 실용신인권 등 10여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고 이미 국내외에 출원한 지식재산권만도 40여건에 이를 정도로 벤처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으며 매출액의 6%는 기술개발에 쓰고 있다. 신기술 KT인증을 계기로 올 10월에는 부산 컨벤션센터에서 e-하우징페어박람회에 참가하여 영남지방에서 또한번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켜 인테리어계의 안타민 신화를 예고했다.

• 문의 032-815-1674(대)
기술연구소 배상호부장

고신대학교 강의동 / 90

충주국민체육센터 / 94

고신대학교 강의동

Lecture Hall at Kosin University

▶ 당선작 / 건축사사무소 동경 (이성인 · 김수자)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49-3번지 일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건축면적	1,993.46㎡
연면적	7,429.89㎡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2개동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
주차대수	28대
외부마감	운천석, 인도사암
설계팀	김성래, 홍형표, 박순태, 배성만

계획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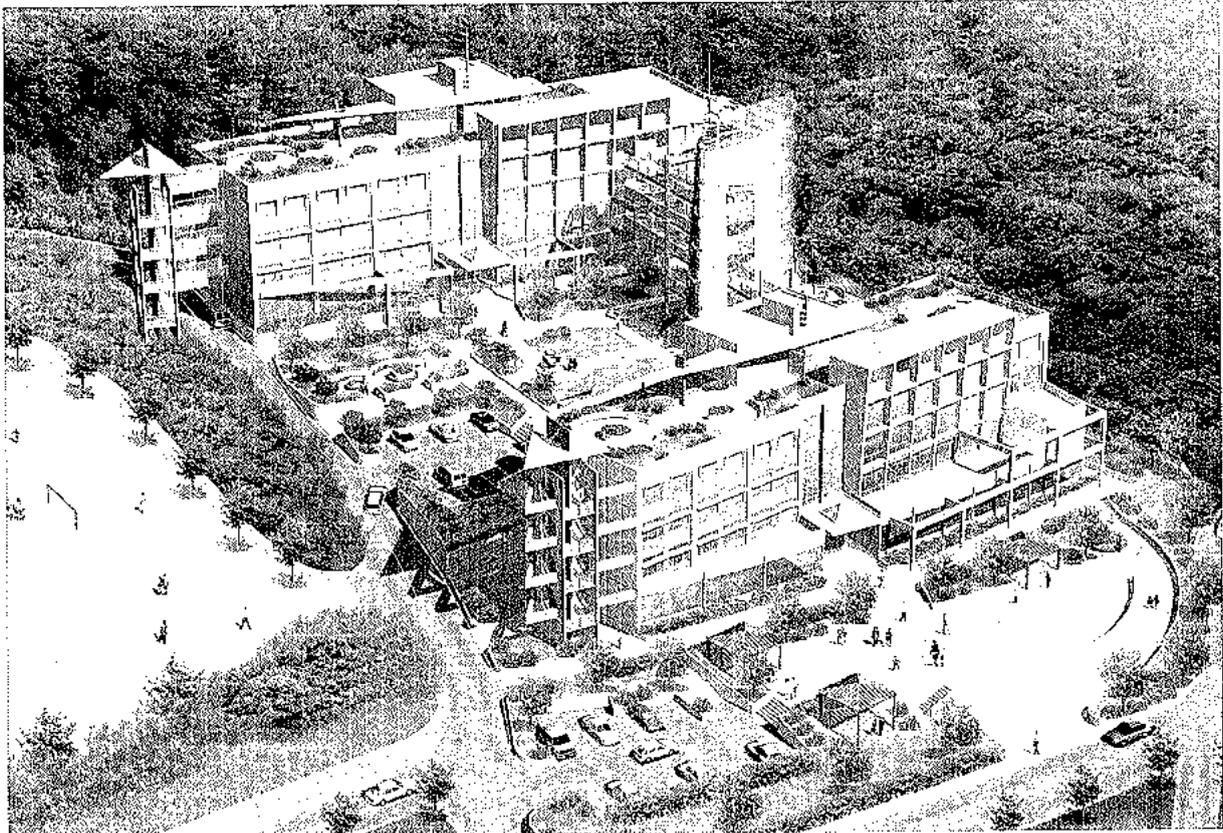
- 지역사회주민의 참여 확대 위한 지역연

계 대학기능 제공

- 공간체계에 따른 Open Space 확보 - 제한된 부지여건 극복
- 기존의 공간 및 건축물들과 조화로운 공간 설계
-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및 시설계획

입면계획

- Mass의 안정감을 고려한 입면계획 - 저층부, 중간부, 상층부의 외관의 변화 체계 수용한 입면구상
- 간 건물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수직적 요소 도입으로 분절효과
- 지역적, 시대적 위상에 따른 교육공간으로서의 강의공간, 실습공간, 연구공간 간의 Identity 부여
- A동 1층을 큰 곡면형태로 변화를 주며 그 곡선을 연장하여 외부계단과 결구시키며 장식적인 Beam과 기둥을 노출시켜 서로 결속된 외형디자인을 창출
- 잔디광장의 계단탑은 철골과 유리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미래발전과 신망심을 표현하는 상승감, 신비감을 부여 개방



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외관으로 학교
의 상징적 중심조형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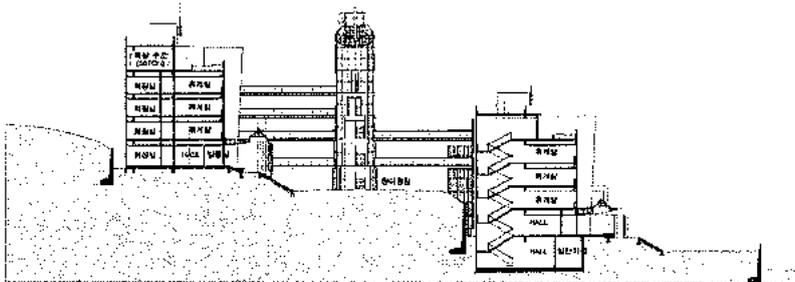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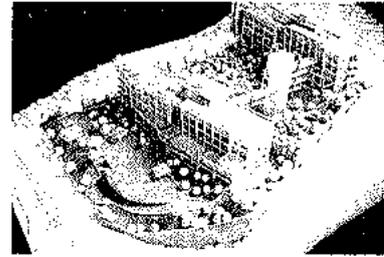
평면계획

- 각 동별 중앙 Core앞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우측에 휴게발코니, 좌측에 옥외 Open계단 설치
- 중앙잔디공장에서 2개동을 연결하는 계단실과 부릿지 설치
- A동 1층은 거대한 곡면을 도입하여 개방성과 부드러운 평면구성
- Core에는 주계단과 남녀 화장실,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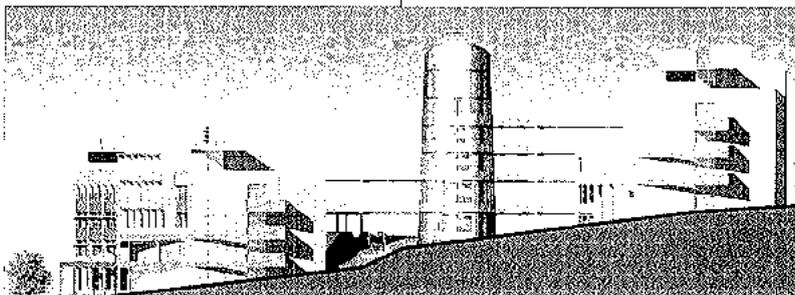
애자용 화장실과 Elevator설치

- 상시 이용되는 연구실 및 강의실은 동남측에 위치, 이용도가 낮은 실습실은 서북측에 위치
- 옥상공간을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부산항을 조망하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계획부지의 협소한 휴게공간을 극대화
- 2개동은 부지의 큰 2개의 축을 중심으로 서로 평행하지 않게 배치 기존시설과 운동장등을 향해 열려 있는 배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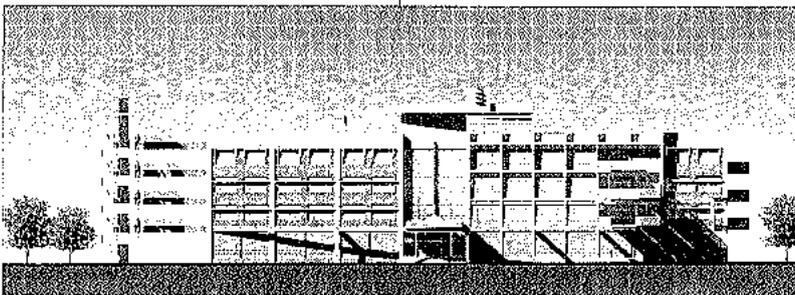
열린공간에 잔디휴게광장과 기념광장을 배치한 후 옥외 Glass계단으로 연결, Land Mark 역할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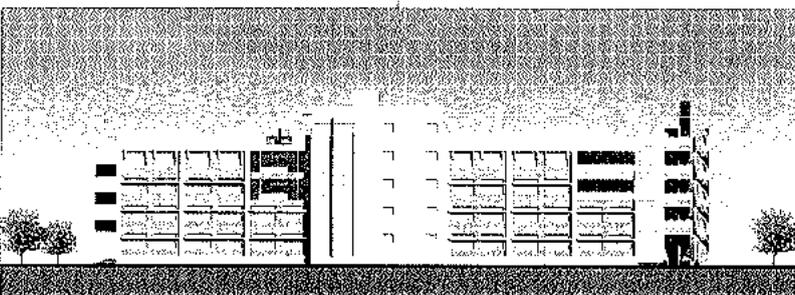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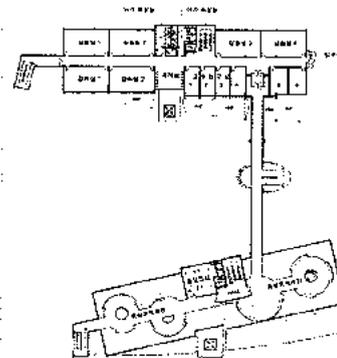
주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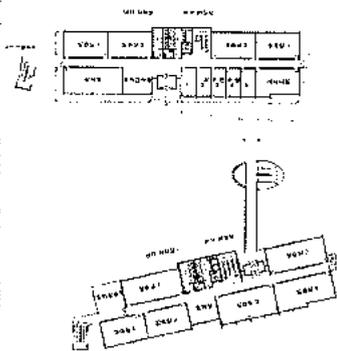
B동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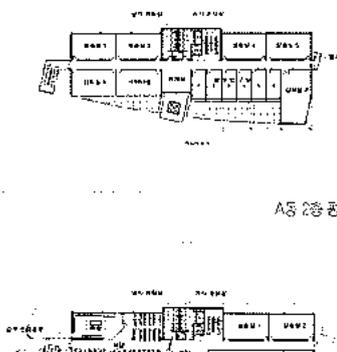
A동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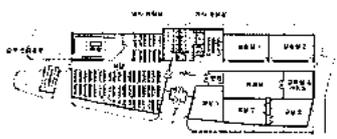
A동 옥상층, R5, 5층 평면도



A동 4층, 1층 평면도



A동 2층 평면도



A동 1층 평면도

▶ 우수작 / (주)서강종합건축사
사무소(김산재·류광홍)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149-3 번지 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학교시설 결정지구
대지면적	77,519.00㎡(학교시설 결정면적)
건축면적	2,336.58㎡(706.82평)
연면적	6,831.90㎡(2,086.63평)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대수	30대(장애인 전용주차2대포함)
외부 마감	외벽-폴리메탈판넬, 불소수지 페인트 창호-18mm복층유리 지붕-폴리테크 판넬 시스템
설계팀	이상현, 석성관, 양해주, 정동원

流(흐름)

“사내물 위를 계속 떠 내려가는 나뭇잎은 그의 의지인가? 자연에 대한 순응인가?” 교문에서 시작되는 캠퍼스의 주 흐름은 경제적인 고려와 자연환경에 대한 순응

이라는 측면에서 산의 수평적 흐름과 같은 맥락을 유지한 듯 하였고, 또한 동쪽으로 펼쳐진 수 많은 기옥들과 그 끝으로 바다와 섬, 그리고 수평선까지 이어지는 수직의 흐름 또한 신학 대학다운 느낌을 주기에 더 할나위 없는 조건이라 생각 되었다. 마치 하늘에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할 만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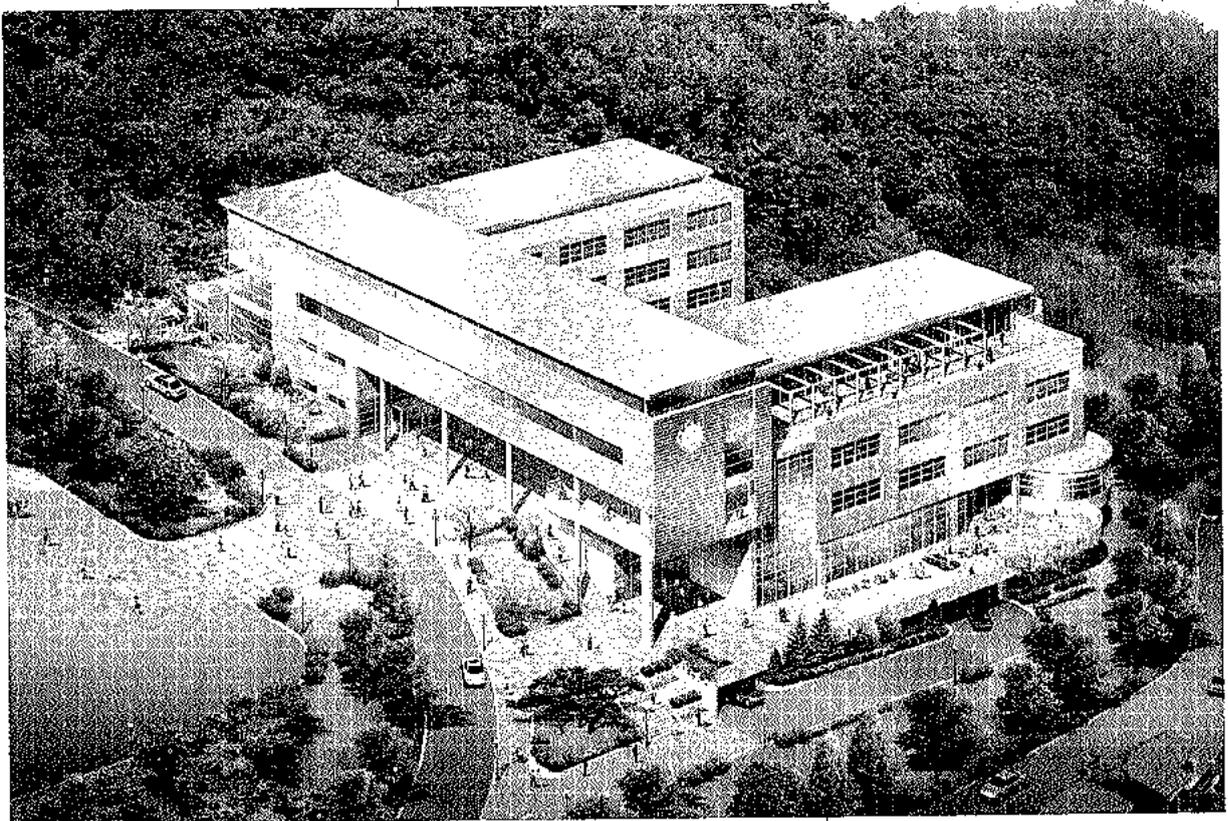
그러나, 캠퍼스 전체의 흐름이 의도 되었다고 보기에는 우리가 있는 건물의 배치 때문에 멈춰진 공간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자동차와 학생들에게는 수평적으로 나열 되어있는 대상으로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캠퍼스 전체가 마치 물과 같이 흘러만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요컨대, 나뭇잎이 자신의 의지로 물의 흐름을 거스르기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흑자가 그에게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고 자연과 하나됐다고 말한다고 해서 동적 주제인 나뭇잎은 항상 그렇게 흘러만 가야 한다고고는 믿고 싶지 않다.

다시 말하면 불가피하게 자연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지어져 왔던 기존 건물들의 의지가 있나 없냐를 떠나, 최소한 앞으로 지어질 건물들은 과거로의 답습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균일한 통일감 보다는 다양함을 통한 조화를 기대하면서 작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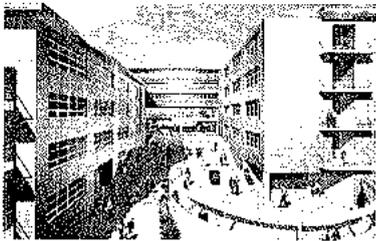
動(움직임)

계획부지는 전체 캠퍼스가 가지는 주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지양하고, 건물이 들어서면서 생기게 되는 새로운 출입구에 대한 고려와 캠퍼스 전체에 대한 변화, 그리고 서쪽 산 자락에 우뚝 자리 잡고있는 불상(佛像)에 대한 이미지는 이에 대응하는 동서의 한 축(Axis)을 형성하게 하였다. 부지내 동서 30m의 등고차와 북동방향의 20m의 등고차는 과도한 옹벽을 최소화 하기위해 계단식 중정과 단계적인 건물 배치를 제안하게 했으며 동시에 그와 연결되는 수목과의 관계도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게 하였고, 3개의 매스로 외부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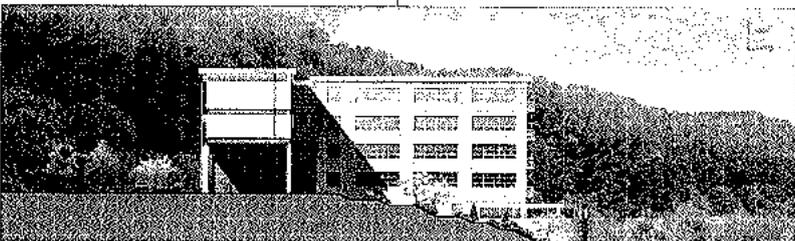


간을 한정하고 출입구 또한 각각의 경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였다. 비록 제시된 형태는 없었지만 앞으로 운동장 부지에 들어설 본관동과의 연계를 위해 기존 운동장 레벨을 고려한 진입마당 레벨을 설정하고 동서의 매스는 피로티 형태를 취해서 본관동을 대학의 구심점으로 강조할 수 있게 하였다. 각각의 매스는 떨어져 있으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남북 방향의 주 흐름에서 막혀 있는 듯 하지만 운동장 레벨과 진입 마당과의 동적인 흐름을 유도하면서 이 건물을 출입하는 도로(8M)에서 보는 적극적 이미지를 기대하였다. 대지 전면(동측)인 타인 소유의 부지로 인해 직선적인 동선의 진입 대신 캠퍼스내 부지를 통한 자연스러운 진입을 이루었고 하부 데크에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유치원까지의 개별의 동선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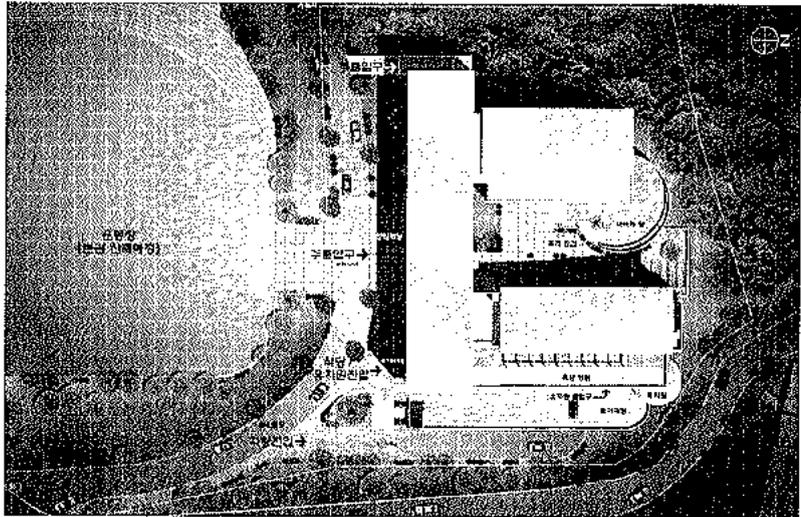
자연경사와 건물이 차지한 나머지 외부 공간은 기존 수목들이 있고 마당과 계단식 중정을 통한 완충공간은 다양한 형태의 움직임들을 기대한다. 건물 각 레벨에 따른 SKIP의 전시홀과 데크를 통한 전시,



북측면도



동측면도



배지도

휴게 공간 역시 내부 동선의 완충 역할을 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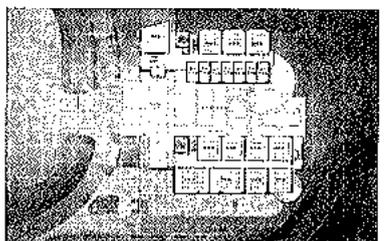
생(삶)

전지적 시점에서 백지 위에 그어 놓은 선들이 누군가의 입장에서서는 이기적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용의 점을 찾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건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또 다른 삶을 간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건물이 지탱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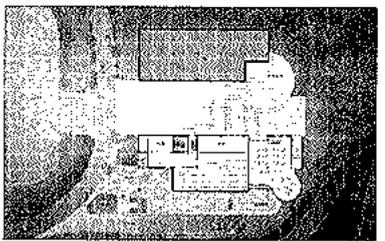


어지는 땅과 그 배경이 되는 자연, 지어지는 건물 주변의 바뀌어 가는 환경 그리고 의지...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한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가 아주 힘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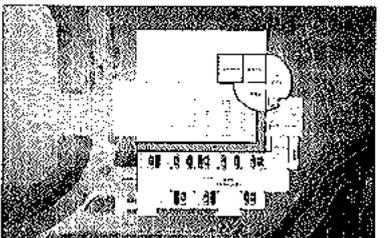
다만, 이런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 나 자신 내부의 나뉜 먹기식의 의미없는 과정이 아니라 유형, 무형의 조건들에게 최대한의 만족감을 주는 작업이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며, 그런 점에서 이번 작업은 많은 의미를 던져 주었다.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충주 국민체육센터

Civil Sports Center of Choongju

▶ 당선작 / (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김모수·최재민)

대지위치	충주시 호암동 569-4 호암공원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원
대지면적	16,520㎡
건축면적	3,224.63㎡ (975 평)
연면적	4,384.06㎡ (1,326 평)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건폐율	19.52%
용적률	26.5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83대 주차식
외부마감	알미늄쉬트, 24복층유리, 동판기 와그락 잇기

설계팀 양원숙, 오세욱, 김영관, 나상은,
이은숙

기본계획

- 지형에 순응 및 고저차 이용
- 호암공원의 개발계획과 유기적 관계

계획의 기본원칙

- 수영장 부대시설의 기능을 명확하고 합리적
- 경제성 및 공공성 부각
- 시공성, 효율성, 개방성 부각

건축계획

- 도로로부터 접근성 및 주차 동선계획의 안전성 확보
- 주광장 및 동측 도로 접근 용이 및 개방성 및 전면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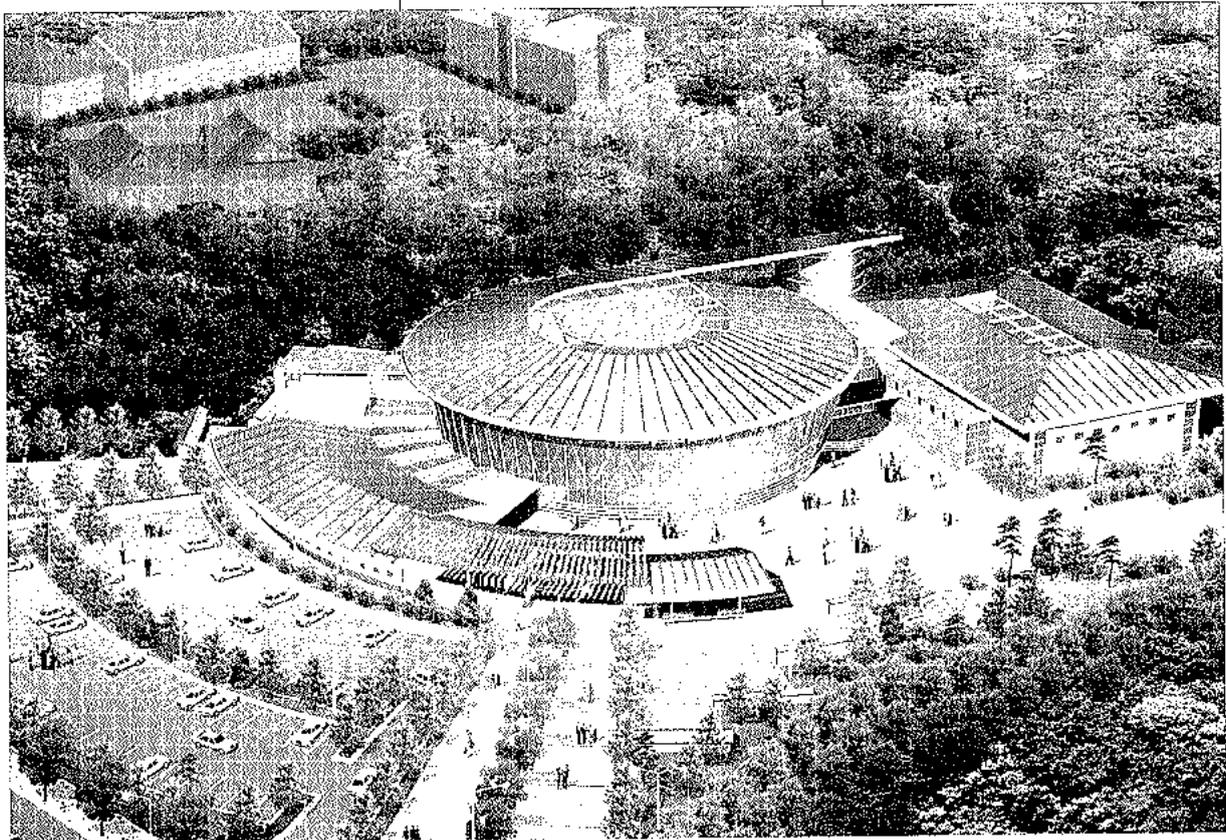
에필로그

복잡 다단한 21세기 현대사회 속에서 심신단련과 윤택한 삶에 대한 요구 충족으로 충주시민의 문화체육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충주시의 발주로 충주 국민체육센터라는 현상설계를 접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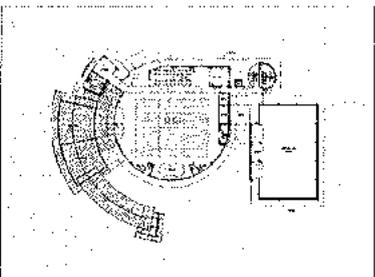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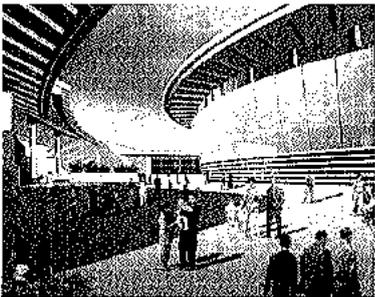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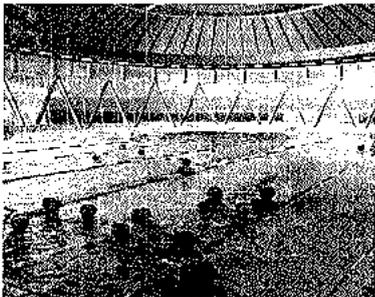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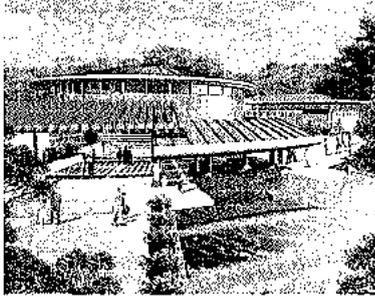
이 프로젝트에 있어, 자연지형에 순응하면서도, 일찍부터 지리잡고 있는 우륵당과 택견수련관의 전통적 요소와 새로 건설되는 현대적 건물의 요소도입의 조화와 이미지에 대한 조화미의 창출이 중요한 과제였다.

자연에 친화적이면서도 순응하는, 현대적 기능의 건물을 부합시키기 위해 단절된 느낌의 도시계획적 구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스러운 듯 하지만, 나름대로 위계적이고 연계적인 전통적 배치구성으로 각 건축적 기능의 연계되는 배치계획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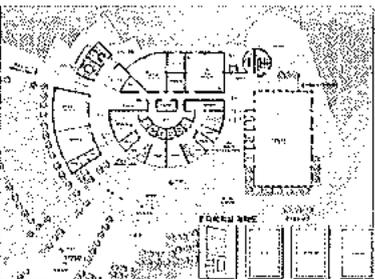
시민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여 주변의 택견수련관,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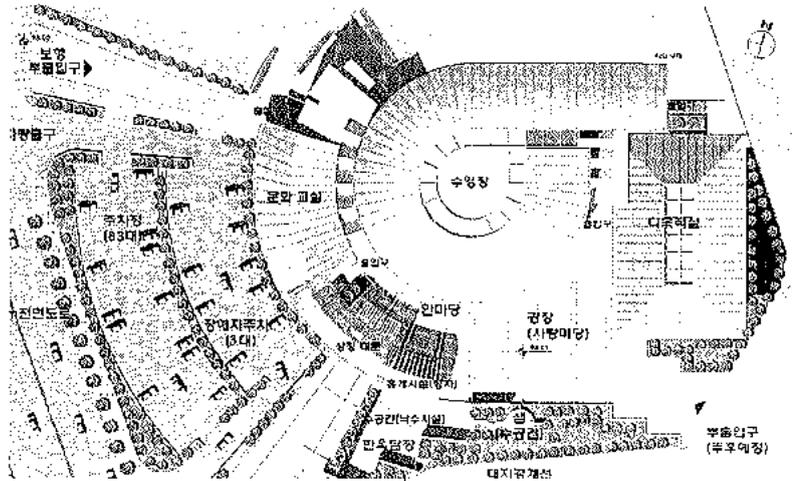
특당 그 각자의 아이덴티티를 지니면서 연
계적인 문화체육 종합단지로서 그 면모를
명실공히 자랑할 수 있는 건물이 되기를
기원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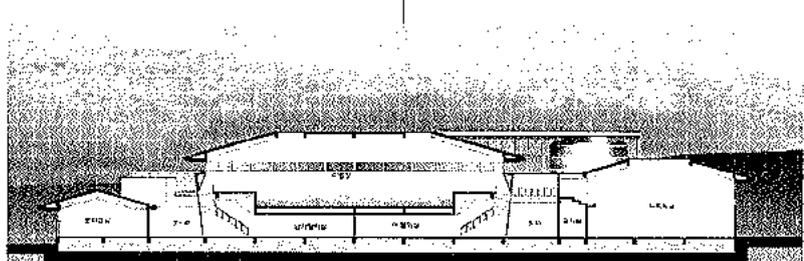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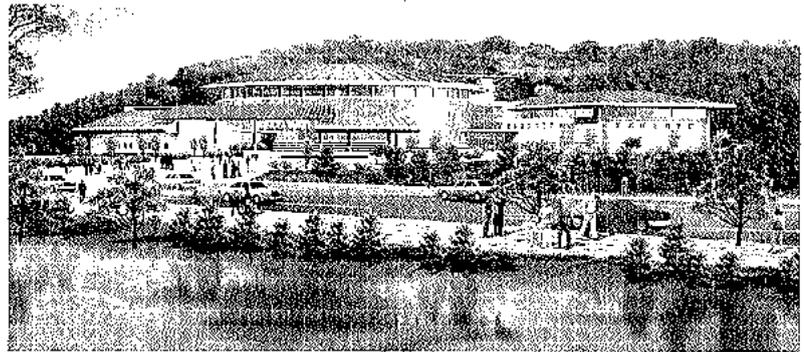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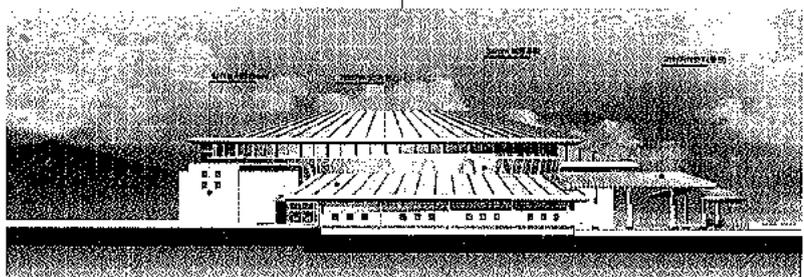
지하층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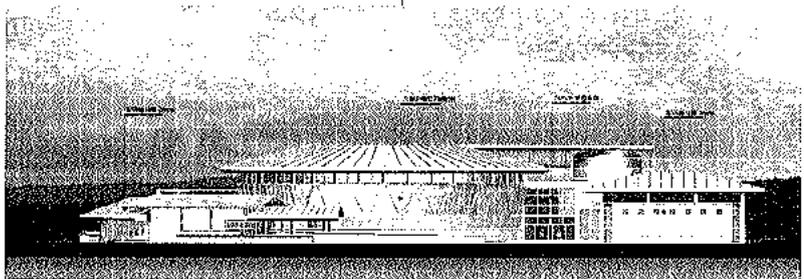
타점도



장단면도



측면도



정면도

▶ 우수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강철희·김상진)

대지위치	충주시 호암동 569-4번지 일원 (호암공원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원지구
대지면적	16,520 m ²
건축면적	2,904.78m ²
연면적	4,654.56m ²
건폐율	17.58%
연폐율	23.57%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골조
주차대수	30대(장애인 전용주차2대포함)
외부미감	알미늄복합판넬 + 칼라복층유리
설계팀	이 원, 유연희, 서승규, 박효정

건립부지는 충주시 호암동의 호암공원 지구내에 위치하며, 부지의 좌측으로는 이미 우륵당, 태권전수관, 청소년 수련원이 건립되어 있고 남서측으로 호암지

가 펼쳐진 나지막한 구릉으로 둘러싸인 향과 조망이 양호한 부지이다. 이러한 건립부지에 대한 특성과 잠재력을 현장 답사를 통해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설계개념을 도출 하였다.

첫째. 축(Axis)의 설정

- 기존 대지의 형상을 포용하여 대지의 고유한 장소성을 부여하도록 하며
- 대지 진입 축과 방위축 및 도시축(우륵당 및 태권전수관 파의 연계성)을 배치 축과 부합되도록 하였다.

둘째. 매스(MASS)의 구성

- 축을 중심으로 대지 형상과 레벨에 적응하여 기본 매스를 구성하고
- 수영장 매스의 장남향배치로 조망과 충분한 자연채광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 매스를 통한 영역 분리와, 전면도로에서의 인지성을 고려한 매스 계획을 하였으며
- 지형 레벨차를 이용한 합리적인 시설배

치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셋째. 마당(COURT)의 구성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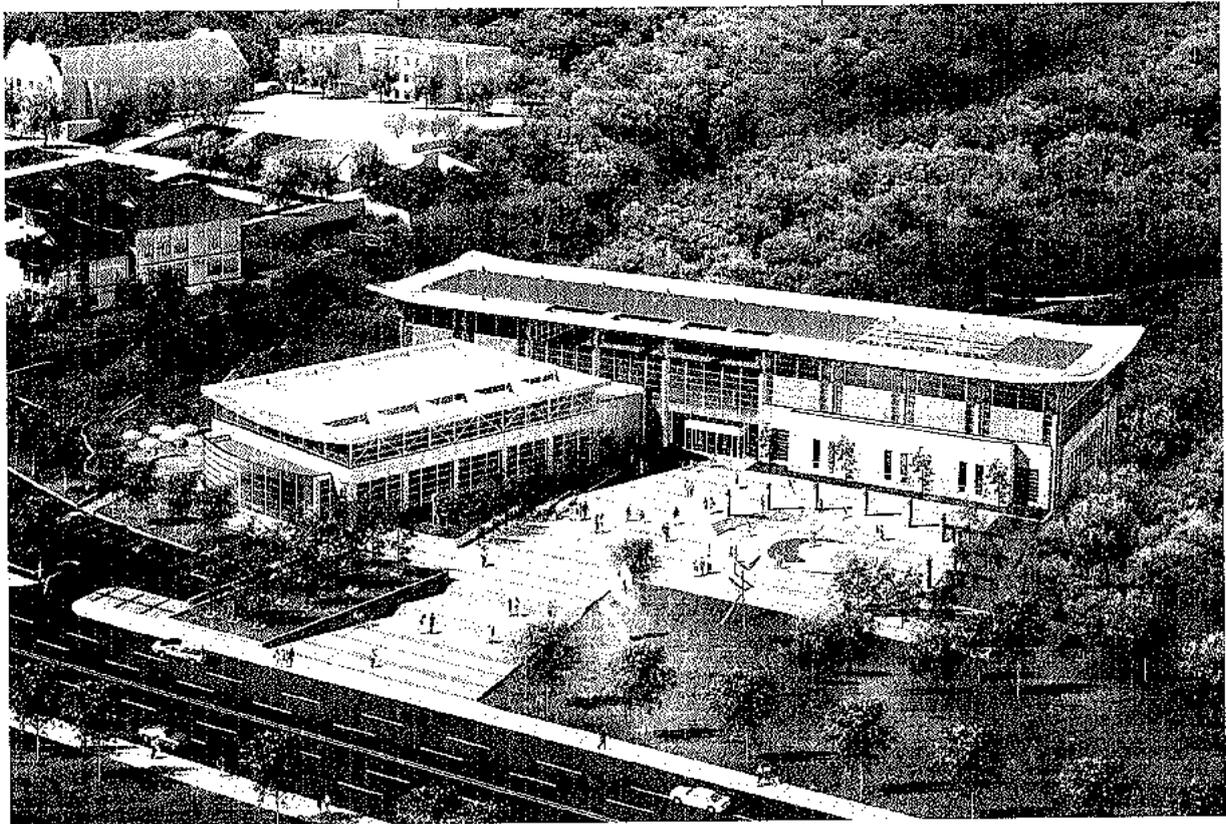
- 건립 부지의 지형치를 4단계로 구분하여 한국 전통공간 구성체계를 접목 하였다.

-1단계로서 진입영역인 바깥마당

- 지형차에 따른 전면 주차공간설치로 인접 우륵당 주차공간과의 연계 운용 체계를 확립하고
- 진입부의 광장설치로 시민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 외부 잔디광장 설치로 시야확보와 부지 우측 공원지구(유보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2단계인 중완마당영역으로 안마당

- 야외놀이마당의 설치로 충주시민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여
- 교류 친교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이벤트 광장으로서
- 부지 우측 공원지구(유보지)와의 공간적 연계성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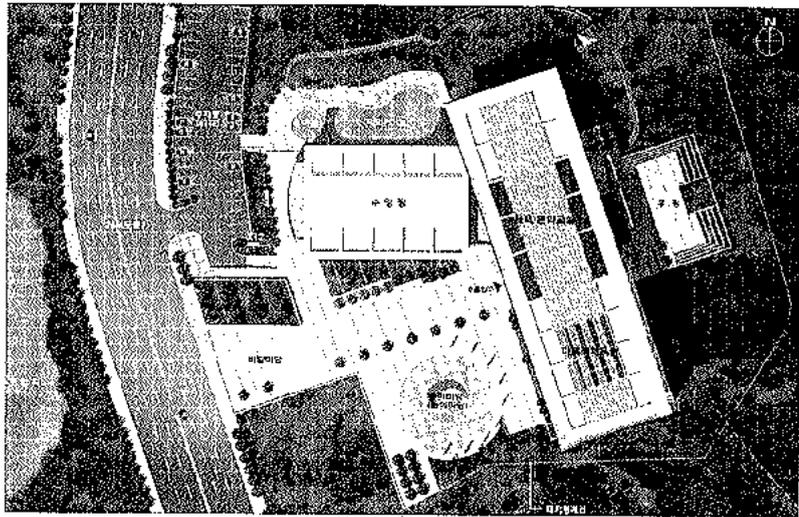


- 3단계인 체육문화 활동공간영역인 건물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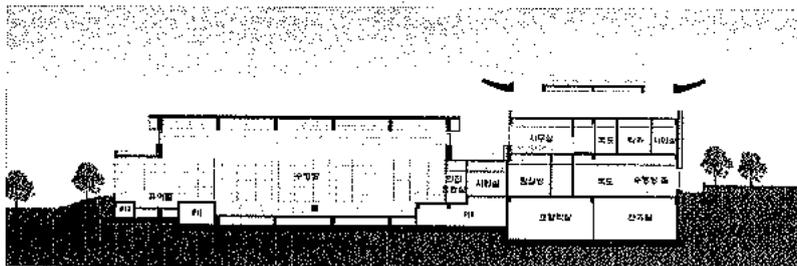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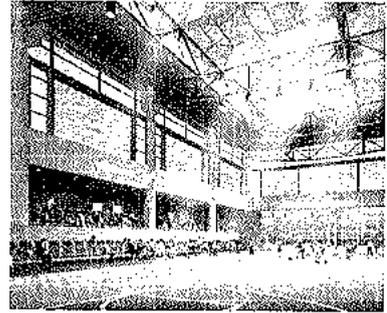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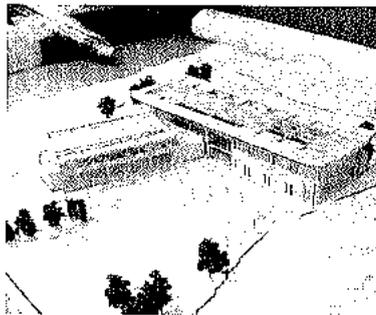
- 인지성 확보와 호암지를 조망 가능한 지역문화 중심시설로서의 상징성을 부각하고
- 수영장의 남향배치로 자연채광 및 경관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 특히 야외수영장의 설치로 충주시민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4단계인 쉼터 영역으로 뒷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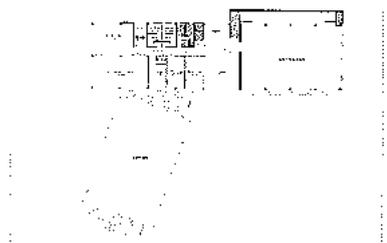
- 시설공간을 위요하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사색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 자연지세를 이용한 산책로 설치로 인접한 우륵당, 청소년수련원과의 연계를 위한 동선체계를 형성하고,
- 화계를 조성하여 한국전통정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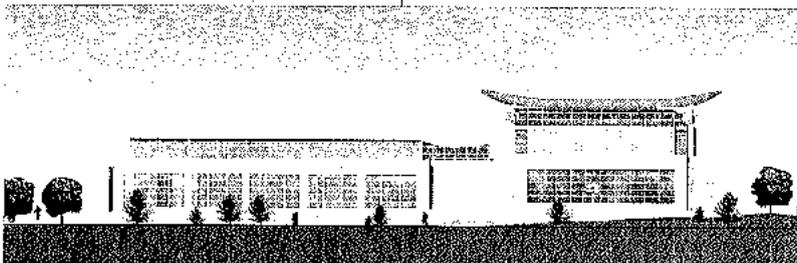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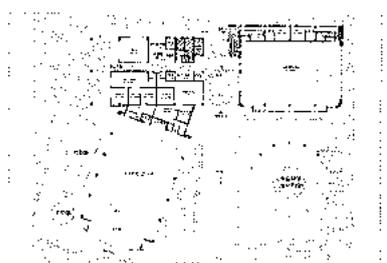
단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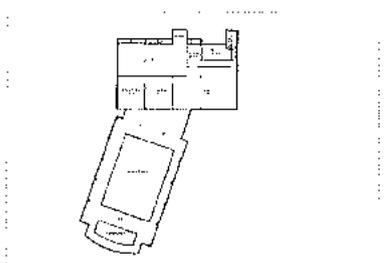
유축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지하층 평면도

Architectural Record

Domus

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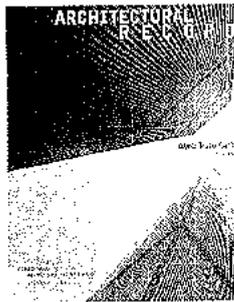
건축문화

신건축

Architectural Record

2001년 10월호

지난 9월 11일 테러로 사라진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뒤돌아보는 코너를 마련한 이번 호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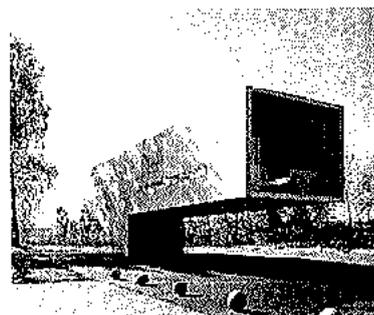
최근 완공된 Gehry, Piano의 건물들과 아울러 종교 건축계를 조명해보고 있다.

■ 뉴스 -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

여객기 충돌 테러로 붕괴된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1973-2001)에 대한 다양한 기사가 마련되어 있다. ▶본 건물과 관련된 세부 건축 정보, ▶구조 시스템 분석, ▶이 사건과 관련된 유명 건축가들의 반응, ▶Minoru Yamasaki의 설계 및 시공 과정, ▶그리고 과거의 당당했던 모습을 담은 Eduard Hueber의 사진 작품들이 실려있다. 건물이 충격과 화재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점에 대해 구조 전문가들은 사고 후 사용자 피난에 필요한 최대의 시간을 버는 것이 설계의 목표였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버텨낼 구조 시스템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사건으로 초고층 건물에 대한 수요는 한동안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 프로젝트

▶Baumschlager & Eberle의 오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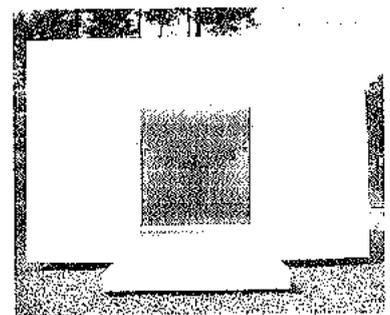
오스트리아 Fussach Rohner Office Building

리아 Fussach Rohner Office Building Constance 호수기에 세워진 이 작은 사무실은 마치 가늘픈 다리로 서있는 새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중심에서 어긋난 지지부에 올려진 캔틸레버 구조로 이뤄져 있어 미니멀리즘 조각 작품 같은 느낌을 전달한다.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외부와는 달리 내부는 바닥, 벽, 천장 모두가 목재로 마감되어 있어 밖스 내부에 또하나의 박스가 들어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Gehry Partners Architects의 독일 베를린 DG Bank,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의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고층 건물 Aurora Place와 Piano와의 인터뷰가 소개되어 있다.

■ 건물 타입 연구 - 종교 건축

종교 건축은 대규모 집회 공간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성스러운 분위기를 추구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소규모로 지어진 교회로 ▶Alexander Gorlin Architects의 미국 뉴욕 North Shore Synagogue, ▶Errol Barron and Michael Toups Architects의 미국 미시시피주 해변가 St. Peters, ▶Fernando Domeyko Perez의 칠레 Santa Maria de las Brisas을 소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양의 불당 건축 사례로 ▶Takashi Yamaguchi and Associates의 일본 교토 White Temple를 다루었다. 각각 다른 재료와 스타일, 공간 구성을 하고 있는 이 건물들은 그러나 빛을 드라마틱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일본 교토 White Temple

■ 주거 건축

재료에서 공간 구성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주택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급진적인 주거 건축 작품들을 다루고 있다. 벽돌, 석재, 나무 등의 사용으로 견고함을 강조하는 일반 주택들과 달리 이들은 스위트 메탈을 이용하여 가벼운 느낌을 전달하며 지면으로부터 실제로 분리된 경우도 많다. 소개된 작품으로는 ▶Godfredsen Sigal Architects의 Butterfly House, ▶De Architectengroep와 MVRDV의 Villa KBWW, ▶Frederick Phillips and Associates의 Phillips House, ▶Frederick Phillips and Associates의 The Yardbird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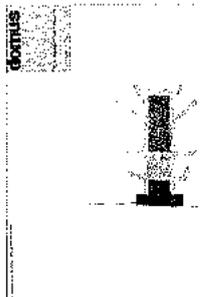
■ 기타

▶Libeskind의 독일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의 첫 전시회 소식, ▶IT Crown Hall 등 미국 역사 기념물로 새로 지정된 15개 건물, ▶이동 가능한 건축을 탐구하고 있는 Jennifer Siegal의 Office for Mobile Design, ▶Rafael Moneo, Steven Holl, Richard Meier와 최신 건축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21세기 형의 다양한 콘크리트에 대한 기술적 보고가 실려 있다.

Dom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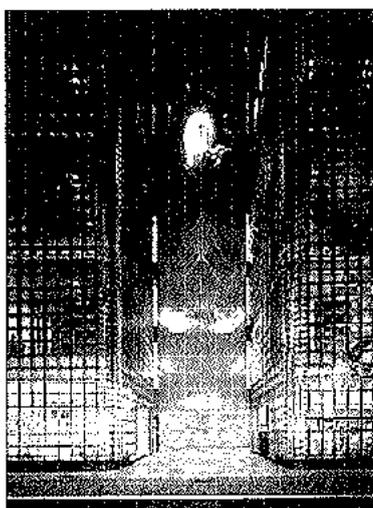
2001년 10월호

Renzo Piano의 근작, 미국 디트로이트 이야기. 이탈리아의 설계 경기 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특집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 Renzo Piano의 일본 도쿄 유리 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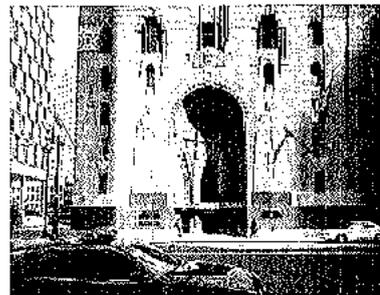
▶도쿄에 세워진 Piano의 Hermés 상점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상업 건축의 하나이다. 입구와 중정을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이 타워는 외피 전체가 유리 블록으로 덮여 있어 일본적인 가벼움을 나타낸다. ▶유리 블록의 표면은 내부의 다양한 시설에서 나오는 빛을 반영하며, 이러한 특성은 특히 밤에 잘 나타난다. ▶5층에는 Hilton McConico의 Hermés 박물관이 마련되어 있는데, 외피의 유리 블록을 다시 파티션이나 전 시대 재료로 사용하여 내외부 사이의 일관성을 얻고 있다. ▶유리 블록의 공장 제작 과정도 함께 소개되어 있다.



Renzo Piano의 일본 도쿄 유리 타워

■ 유명 도시

▶현재 미국 디트로이트는 전성기 시절의 2백만 인구 중 절반이 떠나간 상태다. 마천루로 이루어진 드라마틱한 스카이라인은 그대로 있지만, 빈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거리의 활동량도 줄어들고 있다. 기업과 시민이 도시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며, 이런 현상은 도심부터 시작하여 교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Guardian Trust Building, Fox Theater 등 디트로이트의 여러 역사적 건축물을 방문해보았다.



Guardian Trust Building

■ 설계 경기 문제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설계 경기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 정부에서는 주요 공공 사업에 설계 경기 과정을 통해 건축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방식이 최선의 건축 환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선정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열리는 설계 경기는 대규모 사무실의 작품을 선호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젊은 건축가들은 거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또한 선정 과정에서 판단 기준 항목들과 그 비중이 잘못 설정되어 최종 당선안이 건축적인 품질이 아닌 관료주의적인 이유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여러 설계 경기의 당선작이 소개되어 있다.

■ 기억의 박물관

▶Jabomegg & Páffy에 의해 설계된 비엔나 유대인 박물관은 이곳에서 사망한 유대인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며 유대인 지구의 중앙 광장에 위치해 있다. ▶

지상에는 조각가 Rachel Whiteread의 작품만이 놓여있으며, 이곳으로부터 긴 복도로 이어진 지하 공간에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다.

■ Pawson과 Citterio의 공동 작품

▶런던 B&B 쇼룸의 건물 자체는 John Pawson에 의해 설계되었고, 그 인테리어는 Antonio Citterio가 맡았다. 거리에서 보여지는 Pawson의 건물은 석재, 청동, 유리로 만들어져 내부를 제한적으로만 노출시키며, 장방형의 평면은 지붕 형태에서 드러날 뿐이다. ▶가구 전시장으로 계획된 내부는 슬레이트 벽면과 석재 바닥면, 볼트형의 천정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 기타

▶전시회 소식으로 Vicenza의 Toyo Ito 전시회, 런던 디자인 박물관의 Isamu Noguchi 전시회, 파리 오르세 미술관의 Arnold Böcklin 전, ▶닷컴 사업이 사무실 환경에 미친 영향을 담은 Lars Tunbjörk의 사진들, ▶Ron Arad의 왕립 예술 대학 학생들의 최근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a+u

2001년 10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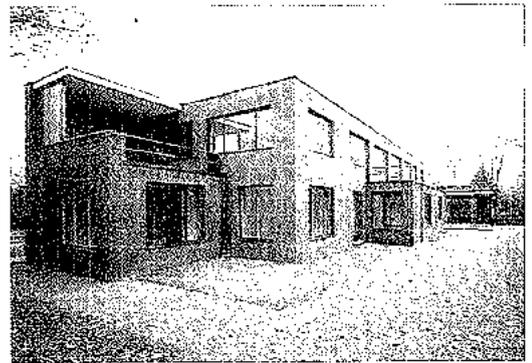
이번 호의 특집은 벽돌 건축(Brick Architecture)이다. 벽돌은 인류에 의해 발명된 이래 수 천년간 건축재료로 사랑 받아온 자재이나 근대건축 이후로는 새로이 개발되는 신 소재들에 밀려 세계적인 주목을 끄는 건축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번 특집은 미스 반 데르 로에와 알바 알토의 벽돌 건축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의 벽돌 건축들을 재조명하여 벽돌이 가지는 가능성과 현재적 가치를 되새기고 있다.



■ 특집: 벽돌 건축

인류가 건물을 만들어오면서 가장 오랜 기간 꾸준히 사용된 건축 재료 중 하나가 벽돌일 것이다. 벽돌의 사용도 나름대로 번성기와 쇠퇴기가 있었지만 현재에도 꾸준히 이용되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유리나 철의 적극적인 사용이 이루어진 근대건축 이후로 새로이 개발되는 신 소재들에 밀려 벽돌은 이제 낡고 고루한 재료라는 인식과 함께 세계적인 주목을 끄는 건축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 미스 반 데르 로에의 랑게 주택(House Lange)과 에스테르 주택(House Esters)은 그의 벽돌조 전원주택 계획안과 함께 벽돌이 근대건축의 정신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사용될 수 있는, 신·구의 개념이 아닌 중립적인 재료임을 보여준다. 켄트 클라이먼(Kent Kleinman)과 레슬리 판 듀저(Leslie Van Duzer)의 에세이 'Art of



에스테르 주택(House Esters)

Instruction'은 이 두 주택의 외벽 어느 부분에서라도 영국식 쌓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미스가 치밀하게 벽돌 모듈에 의한 계획을 했음을 밝히고 있다. 건축은 하나의 벽돌 옆에도 하나의 벽돌을 놓은 것이다 라는 그의 말처럼 벽돌쌓기에 의해서도 그의 엄격함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국식 쌓기는 외벽에서만 그러하고 내벽에서는 그러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구조용의 철골재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 영국식 쌓기는 구조재로 사용된 것이라기 보다는 의장적 효과가 더 크다는 점 등은 그의 건축이 갖는 모순적 성격을 말해준다. 우리가 그 동안 순수한 기술의 전형으로 생각해온 미스의 벽돌 건축에서 기술의 순수함이란 단지 인상에 불과했고, 건설의 수단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때의 당황스러움을 클라이먼은 지적하였다.

▶ 아르노 레데레르(Arno Lederer)의 작품과 에세이: 에데레르의 에세이 '벽돌 건축에 관하여'는 클라우스 디에터 바이스(Klaus-Dieter Weiss)에 의한 이번 특집의 권두 에세이 '현대의 표현으로서의 건축'보다도 벽돌 건축 특집에 더 적합한 에세이로 보인다. 바이스의 에세이는 19세기 말 벽돌건축을 기점으로 건축의 재료에 나타나는 현대성의 표현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건축 재료에 초점을 맞춘 반면, 에데레르는 수 천년간 사용되어온 벽돌의 현재적 의미를 미스 반 데르 로에(랑게 주택과 에스테르 주택), 발터 그로피우

스(피구스 공장),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로비 하우스), 르 꼬르뷔제, 알바 알토 등 근대 거장의 작품들과 더불어 자기 자신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다. 그는 벽돌이 근대 건축에 있어서도 훌륭히 사용된 재료임을 밝히고, 벽돌조의 벽이 벽체를 이루는 여러 겹 중 하나로 사용되어 마치 벽돌이 벽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외부와 내부가 다름을 명확히 해주는 제스처로 벽돌의 사용을 옹호하는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을 결론부에 내비치고 있다.

▶ 소개된 최근의 벽돌조 건물들은 벽돌과 유리, 철 등의 다른 재료들의 혼합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다. 그 중에서 특히 하인츠 베네펠트(Heinz Bienefeld)의 바바넥 주택(House Babanek)은 벽돌조로 이루어진 건물의 한 쪽 면에 유리와 철골프레임을 덧붙여 새로운 공간을 한 켠 더 만들어 내고 있다. 벽돌조로 이루어진 부분 중 외부에 직접 면하는 3개의 면은 견고한 입면을 보여주는 반면 유리로 감싸인 실내공간과 접하는 입면은 독립계단과 노출된 계단 등이 조각적인 입면을 만들어내고 있다. 유리와 벽돌조의 벽이 중첩되어 만들어내는 파사드는 이질적인 재료의 새로운 조합방식이며, 유리로 둘러싸인 공간은 벽돌조로 이루어진 공간에 대해서는 외부이자 정원에 대해서는 내부인 중간자적인 매개공간이 되고 있다. 이와같이 벽돌조의 매스에 유리로 둘러싸인 투명한 공간을 덧붙여 만들어내는 공간의 효과는 브카르드 마이어 아키텍츠(Burkard Meyer Architects)의 브뤼엘 스쿨 아넥스(Brühl School Annex)에서도 나타난다. 교사(校舎)의 남동쪽 입면은 수직으로 깊게 파인 창문들이 짙은 음영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벽돌조 건물 입면 중의 하나이나 북서쪽 입면은 유리 커튼월이 건물에 감싸지면서 유리 커튼월과 벽돌조의 벽면이 중첩되어 만들어지는 파사드를 보여주고 있다.

▶ 소개된 대부분의 작품은 벽돌조 건물의 일반적인 특징인 수직으로 긴 창이 열을 지어 나타나는 입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핑크+웃하(Fink+Jocher)의 하노버의 집합주택에서는 창들의 수직열들이 어긋나면서 파사드를 만들어내, 구조체계와 관계하여 벽돌조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입면의 이미지에 낯선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핑크+웃하(Fink+Jocher)의 하노버의 집합주택

건축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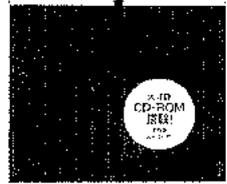
2001년 12월호

이번 호의 특집은 작은 집의 현주소이다. 유난히도 작은 소규모의 주택은 일본 건축의 한 특징이 되어

建築文化

小住宅の現在形

650



왔다. 소주택은 일본의 건축가들에게는 또 하나의 개척지인 것이다. 이번 특집에서는 연면적은 80㎡~110㎡이지만 놀랍게도 건축면적은 30㎡~80㎡정도 밖에 되지 않는 일본의 독특한 소주택들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소주택에서 건축가들이 실험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들을 소개하고 있다.

■ 특집: 작은집의 현주소 - 작은 것이 현대주택의 새로운 가능성

도시화가 여기저기서 진행되는 현재 일본에서 소주택(小住宅)은 일부 도시의 문제가 아닌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테마가 되고 있다. 이번 특집에서는 소주택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소개하여 오늘날 일본의 보편적인 테마의 단면을 보려는 것이다. 소주택에서는 통상의 경우보다 한정된 조건에 의해서 주택에 내재하는 문제가 첨예화되고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설계자는 참신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해결책을 중심으로 15개의 작품이 소개되고 있다. 또한 설계자의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공간의 배치와 구조 등 실무자에게도 유용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소주택에서 펼쳐지는 건축가들의 모험을 통해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려는 것이 본

특집의 목표이다.

▶ 본 특집에 소개된 작품들을 포함하여 일본의 소주택들은 협소한 대지여건으로 인해 주택의 정면 폭이 좁고 3층 이상의 높이를 갖게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주택에 있어서 최소한의 공간만으로 구성해야하는 조건하에 이러한 특수한 여건이 덧붙여지면서 일본의 건축가들은 소주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건축적 모험을 하게 된다. 본 특집에 소개된 작품들을 통해 보면 프로그램상의 모험, 구조적 모험, 그리고 공간적 모험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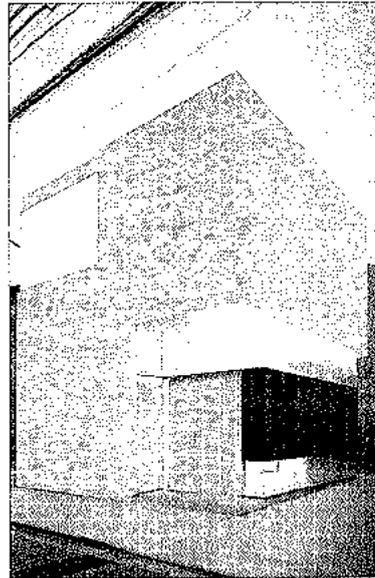
▶ 면적의 협소는 통상적인 주택을 구성하는 공간들 중 일부를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통합하고 변화시키는 해결책을 제시하게 한다. 이리이 케이이치(入江經一) + Power Unit studio + 이케다 마사히로(池田昌弘)의 'C-house'는 1층에 개인 침실들과 화장실을 배치하고 2층에는 주방 및 식당을 2층 공간 전체를 할애하여 가족 공용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2층에서 연결되는 매자닌은 기둥없이 철골 빔과 측벽으로만 지지하여 떠 있는 듯한 매스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모험은 설계조직 ADH의 TO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건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을 캔틸레버로 내민 이 주택은 1층의 옥외공간에 상부의 건물을 지지하는 기둥이 제거됨으로서 좁은 공간의 효율성을 높



치바 마니부(千葉學) 건축계획사무소의 '검은 집'

이고 주택에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한편 C-house의 1층은 사적 공간인 침실들로만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실들을 연결하는 복도의 측벽이 유리로 마감되어 시각적으로 개방되는 과감한 구성을 보여준다. 이는 좁은 공간에서 개방감 확보를 위해 프라이버시 부분의 침해를 감수하고 개방된 공간을 확보한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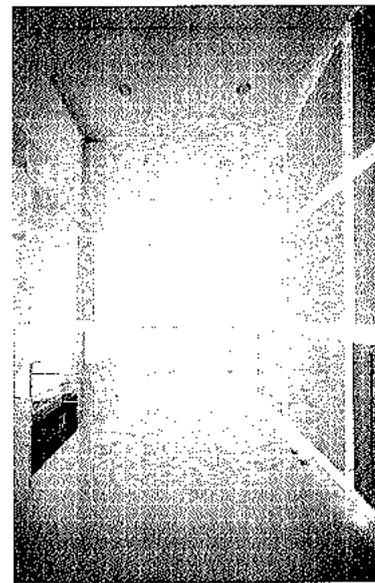
▶ 이러한 전략은 치바 마니부(千葉學) 건축계획사무소의 검은 집의 1층 부분에도 나타난다. 1층의 용도가 스튜디오와 피아노실이라는 하나 주택과 연결된 부분이고, 주택의 현관부분임을 감안한다면 가장 시각적인 노출이 용이한 1층부분을 모두 유리로 개방한다는 것은 파격적인 시도이다. 사토 미츠코(佐藤光彦)건축설계사무소가 설계한 주택의 1층 부분도 주택의 현관이자 서재로 계획되면서 시각적으로는 과감하게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적 노출은 C-house와 바로 옆에 인접하여 계획된 'nkm' 주택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 개의 작은 건물을 1,2층으로 나누어 다시 2개의 작은 주택이 자리잡은 이 건물은 1층의 식당에서 2층에 자리잡은 다른 주호의 식당이 서로 보이는 구성을 하고 있다. 이는 1층 주호의 창문을 2층 주호에서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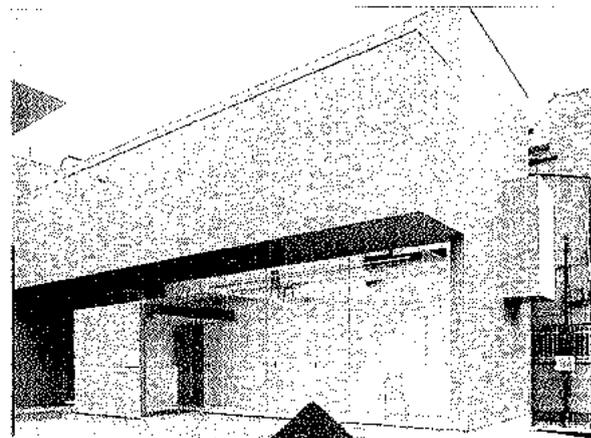
'nkm' 주택

개구부의 크기를 줄이고도 프라이버시에서는 빈틈이 나타나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 좁은 공간의 폐쇄감을 줄이려는 노력은 과감한 시각적 노출 외에도 적절한 은폐에 의해서도 달성되고 있는데, '검은 집'의 최상층에는 최상층을 가로지르는 옥외 테라스를 마련하고 테라스를 바라보는 면만을 유리창으로 개방함으로써 시각적 은폐와 개방감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적절한 은폐는 이케다 마사히로의 '내츨일루미넌스' 주택에서와 같이 입면을 사각형의 패널을 그리드 모양으로 배치하고 패널



이케다 마사히로의 '내츨일루미넌스'



이리이 케이이치(入江經一) + Power Unit studio + 이케다 마사히로(池田昌弘)의 'C-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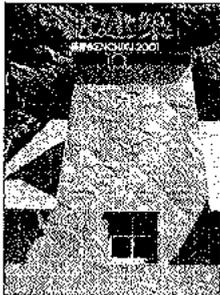
사이 사이를 유리로 마감하여 시각적 은폐와 채광을 동시에 확보하는 해결법으로 나타나거나, 사이토 미츠코의 '나무의 주택'에서처럼 반투명 유리의 외벽을 통해 달성되기도 한다.

▶ 소개된 소주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미니멀리즘적인 의장이다. 단순하고 간결한 입면처리 속에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새로운 건축의 개척지에서의 건축가들의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신건축

2001년 10월호

이번 호에서는 최신작품의 소개보다는 특집 기사를 포함한 기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특집으로는



변용하는 도시-21세기에 들어선 동경을 굽어보다가 마련되었고, 유럽의 저층 집합주택 계획을 다룬 저층 집합주택으로의 회귀 등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소개된 최신작품은 아츠시 키타가와와의 '나무의 나라 사이트 정보관', 요코가와 켄의 '글래스 오피스 히로시마' 등이다.

■ 특집: 변용하는 도시 - 21세기에 들어선 동경을 굽어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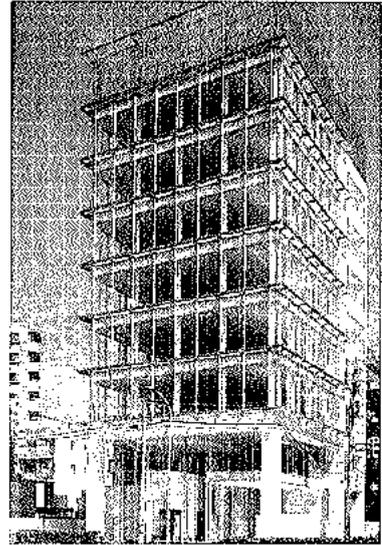
21세기에 들어선 동경. 도심에서는 몇몇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다. 여기서 전개되는 프로젝트는 50년, 100년의

간격으로 도시의 인프라를 결정짓고, 도시풍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다. 현재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다. 한편 남작하게 주택들만이 들어선 지역도 있어 그 곳에서는 더 작게 세분화된 변용이 관찰되어진다. 이렇듯 변화해가는 동경의 현재 모습을 미루노 우치, 신주쿠, 목본기, 시부야 등 구역별로 항공사진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 작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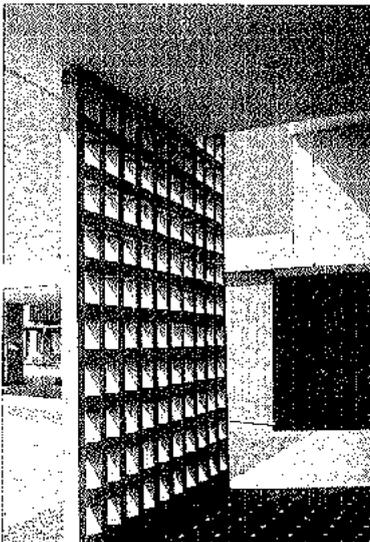
▶ 키타가와와 아츠시(北川原 潤)의 '나무의 나라 사이트 정보관' - 건물의 프로그램에 걸맞게 목재로 이루어진 격자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주된 디자인의 개념이다. 면격자(面格子)들이 직각으로 접하면서 연속되어 3차원적으로 공간을 진행해가는 컨셉으로 임은 이 건물에서 목재의 면격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설계자와의 대담 내용은 '면격자를 사용하여 새로운 베이스를 만든다'라는 제목에서 그 내용이 함축적으로 드러나 있다.

▶ 요코가와 켄(横河 健)의 '글래스 오피스 히로시마' 외 - 이번 호에 소개된 작품은 요코가와 켄의 '글래스 오피스 히로시마'를 비롯, 미야자키 히로시(宮崎 浩)의 'SKK 松山' 빌딩, 모로즈미 케이(諸角 馨)의 '실리칸스빌딩' 등 철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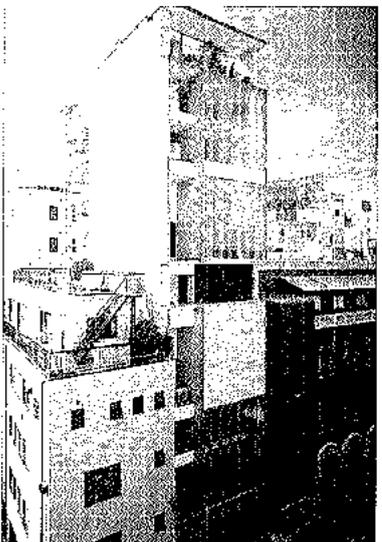


요코가와 켄의 '글래스 오피스 히로시마'

유리로 구성된 경쾌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건물들이 연속되어 소개되고 있다. 소개된 작품들은 얼마전 '建築文化'誌에서 마련한 'Light Architecture'에 소개될 만한 것들이다. '글래스 오피스 히로시마'는 미니멀리즘적이면서도 다채로운 공간구성을 보여주는 1층의 홀 부분과 함께, 유리 커튼월의 외부에 롤스크린을 부착하여 과도한 햇빛을 차단함과 동시에 독특한 입면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리칸스빌딩'은 수직으로 긴 전면을 3등분에서 5등분 정도로 읽을 수 있는 단위로 분절시켜 철골프레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입면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키타가와와 아츠시(北川原 潤)의 '나무의 나라 사이트 정보관'



모로즈미 케이(諸角 馨)의 '실리칸스빌딩'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ARCASIA)
참관기

ARCASIA FORUM 11

국제문제 일원화된 목소리로 국제 사회에 대응해야

제 22회 아시아 건축사 이사회(Council Meeting)와 제 11회 Forum 이 싱가포르 건축사협회 주관으로 2001년 9월 3일 부터 5일간에 걸쳐 싱가포르 중심가에 위치한 Suntec City, 국제 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국내 대표단은 이철호 본 협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국제위원 5명이 참가하였다. 필자는 작년 말레지아 이사회에서 "C" 지역 부회장으로 선출된 후 처음 회장단으로 참석하게 되어 감회가 새로웠다. 참석전 예전과 같지 않게 사전 회의 자료들이 E-Mail로 전송되어 정보화 시대에서의 국제 회의 양상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대표단 구성 중 벌써 제일 고참이 되어 있는 필자를 볼 때 빠른 세월이 피부에 와 닿는다. 9월 2일 이미 아시아회의의 진행 사항들과 주안점 등이 자문협의회(Fellowship Meeting)에서 한차례 정리되었다. 본 협회에서도 Fellowship Member가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참석치 못하였다. 이에 회의 진행 내용을 접수하지 못하게 되어 유감으로 생각되었다.

이사회회의 논의 내용과 Forum 발표 내용은 국제위원이 분담하여 작성, 보고하기로 하여 필자는 본 란을 통해 대한 건축사 협회가 국제회의에 임하여야 하는 자세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아시다시피 국내 건축 3단체가 FICA(3단체 건축 연합회)를 구성하여 그 세부 역할을 조정하고 있고, WTO 산하에서 급변하는 국제 건축동향을 국내 실정에 맞추어 조정, 개선, 건의해야 하는 통로로 우리가 속해있는 국제회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국제단체에 가입한 기본 정신이며 후배들에게 물려 줄 소산의 일부이기도 하다.

지난 8년간 본 협의회를 참석하며 느끼는 점이지만 참석할 때마다 본 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가는 나라의 대표단은 동일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P.Kasi, Jaigham Jaffery, Ronald Poon, Goh Jeong Chia, Edward Silver, Kington Loo, Tony Wong, Keneth Yeang, Ruwis, Khambatta, Mohamed Esa, Hisham, Albakri, Koichi Nagashima, Lakshman, Alwis, Surath, Barry Will, Tay Kheng Soon 등, 본 회의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회원들은 그들의 이름을 어렵잖이나마 기억할 것이다. 이들이 지금도 아시아 16개국으로 구성된 본 협의회를 이끌고 가며 계속적으로 국제사회(UIA, CAA, SERTH 등)의 건축 관련 정책 결정에 임감을 쏟고 있다. 특히 이들은 UIA에서 "국제 건축사 상호 인정 표준안" 작성을 WTO로부터 위임 받은 이후 아시아 국가를 대변하여 세부 지침 작성에 적극 참여하여 "Host Nation에 대한 특례 조항", "건축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지적재산권 보호" 등 저개발 또는 개발도상국이 많은 아시아 국가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이는 자국의 지원하에서 개인의 열정이 결합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이라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실감할 수 있으며 개인과 국가간의 친분과 외교력의 산출일 것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UIA문제는 회원협회인 한국건축가협회(KIA)가 창구이었으며 ARCASIA는 대한건축사협회(KIRA)가 담당하였으나 FICA가 발족된 이상 점진적으로 국내의 국제 문제가 일원화된 목소리로 국제사회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그간 국제 문제에 식견이 많고 경험이 많은 회원들로 구성된 지문회의(inner Circle) 즉 내부 조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는 국제문제의 사안별 책임자 선정, 국내이익을 극대화한 대안제시, 국제사회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 및 접근 방향 모색 등 국내 제도개선을 점진적으로 최소화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연구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좋은 예로 지금 많은 대학이 UIA 기준에 맞는 5년제로 학제를 개편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UIA 기준 효력은 생방 또는 다지 협상에 의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는 이상 실제 현 국내제도와 학제를 전제로 어느나라가 협상에 임해 보았는지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글/이근창)

비롯하여 각국 대표들이 함께 자리를 같이 하였다. 참석대표들은 싱가포르 대표단을 비롯하여 방글라데시, 중국, 홍콩, 인도·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고,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대표 등 총 16개국이 참석하여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먼저 아카시아 회장인 Arch 자이아그람 제프리씨의 개회사와 포럼이 성황리에 진행되도록 본 대회를 준비하였던 싱가포르 건축사회에 감사를 표시하였다.

이어 직전회장이었던 P. Kasi의 인사말과 본 대회 convener의 이번 포럼 준비 내용과 포럼 주제를 설명하고 각국 대표단에게 환영인사를 하였다. 또한 UIA 회장인 Arch, Sgoutas씨의 축사로 회의장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곧이어 지난해 Kuala Lumpur에서 개최되었던 제 9차 아시아 건축사대회 결과 보고가 있었다.

이어 인도 건축사회에서는 2002년에 개최예정인 제 10차 아시아 건축사대회를 델리에서 준비하고 있는 현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에 따른 회의장소, 숙박편의시설 또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건축물을 보여주는 Presentation을 가졌다.

인도에서 개최되는 아카시아 건축사 대회에는 학생 Jamboree가 동시에 개최된다.

이어서 Chairman이 각국 대표에게 권유하는 말로 아카시아 건축사 대회의 Sprite중의 하나는 각 국가별로 빠짐없이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3년에는 제12차 아카시아 포럼이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자료 및 Flyer가 배부되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제11차 건축사대회가 마카오 건축사회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도록 지난번 회의에서 결정 내려졌으며 마카오 건축사회는 차차기 대회의 회의장, 호텔, 마카오의 문화

아시아 건축인의 미래를 밝히는 초석으로 발전해야

제11차 아카시아 포럼이 MAN, Architecture, Nature란 주제로 2001년 9월 5~6일에 싱가포르의 Suntec city Auditorium에서 개최되었다. 포럼 개최직전 9월 3~4일 아틀란에 아카시아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9월 2일 오후 늦은 시각에 한국 대표단이 호텔에 도착하니 이미 Fellowship Meeting이 있었으며 우리는 Hotel 로비에서 Fellowship Member와 인사를 나누었다. 모두가 반가운 얼굴들이었다.

아카시아 포럼 진행 순서를 보면 포럼 개최 전날에 Fellowship Meeting이 하루종일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 대표단이었던 김지덕 전 국제위원장과 이정근 이사께서 활동을 하고 있다.

포럼 첫째와 둘째날은 아카시아 회원국 이사회가 개최되며 셋째·넷째날에는 M·A·N을 주제로 토론 발표회를 갖는다. 마지막 날에는 개최국에서 주관하는 건축기행을 끝으로 포럼이 막을 내리게된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대표단은 호텔에 Check-in한 후에 East Coast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금번 포럼에서

담당할 역할 등을 논의하고 예상되는 행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 분담을 하였다.

아카시아 이사회 한국대표에는 이철호 부회장, 이필훈 위원이 담당하고 아카시아 교육위원회에는 이인호 위원, 민규암 위원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9월 3, 4일

아카시아 이사회가 열리는 첫날이었다. 우리는 대회 개최 장소에서 좀 떨어진 저렴한 호텔에서 숙박하였기에 일찍 서둘러 Suntec city 대회장에 도착하였다. 대회 개최 장소는 우리나라 현대건설과 쌍용건설이 공동 시공하였던 싱가포르의 매머드급 국제회의장이었다. ARCASIA 이사회가 개최되는 3층 회의실에는 벌써 각 나라별 대표단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지난해에 Kuala Lumpur에서 만났던 다른 나라 대표단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오전 9시 30분쯤 회장단을

등에 대한 Presentation이 있었다. 한 가지 문제는 학생 Jamboree대회가 동시에 개최되나 마카오내에는 건축대학이 전무한 고로 바로 이웃에 접해있는 Hongkong 건축사회에서 학생 Jamboree를 대신 맡아 주기로 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에 3개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실감케 되었다. 금번 Fellowship Meeting에 대한 Summary가 Arcaisa Adviser인 Arch. R. Poon씨에 의해 정리 발표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아카시아 대회의 확대 방안, 회비 각출문제, 아카시아 대회의 이상적인 방향 제시등에 대한 토의내용을 요약 보고하였다.

Coffee Break후 이사회에서는 지난 일년간 각 국가별 건축사회의 행사내용 발표가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말레이시아 건축사회에서 계획중인 Arcasia Resource Center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금번 제 11차 포럼에서는 Man, Architecture, Nature를 주제로 포럼의 High Light인 주제 발표자의 소개가 싱가포르 건축사회에서 있었다.

인도 건축사회에서는 Housing for the Poor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던 바, 이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서 소개하였으며 각 회원국은 빈민을 위한 주거 공간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고, 필리핀건축사회에서는 International Health Care를 주제로한 국제 세미나 실례를 발표하였다.

이어 홍콩 건축사에서는 건축교육에 대한 세미나 개최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일본 건축사회에서는 2008년 UIA 대회를 준비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2008년 UIA대회는 2002년 베를린 UIA 총회에서 경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다.

각 국가별로 건축활동에 대한 보고가 끝나고 이어서 아카시아 현장에 대한

항목 보완수정이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오후 Session에서는 아카시아 건축상의 심사위원 선발에서 Zone "c"를 대표하여 한국 대표로는 황일인 건축가 협회 회장을 위촉하였다.

싱가포르 건축사회에서는 Arcasia Web Site를 준비중에 있으며 각 국가별로 영문 Home page를 준비하여 SIA로 통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Web Site 주소는 "www. arcasia.com"으로 잠정적으로 채택하였다. 말레이시아 건축사에서는 ARCASIA Magazine을 준비중에 있으며 각국에서는 건축작품에 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 아카시아 교육위원회 회의 보고와 UIA Region 4의 최근 소식으로는 북한과 미얀마가 건축분야 국제 교류활동을 준비중에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였다. 이어 UIA Region4의 부회장에 호주 건축사회 대표자가 나설 예정이며 많은 성원 당부하였다.

UIA Region 4 이사로는 금번으로 한국 대표가 임기 만료되었고 이어서 새 이사로 스리랑카대표, 일본대표 및 중국대표가 거명되었다. 이어서 2002~2004년도 아카시아 회장 선거가 있었다. 지난번 회장에 출마를 했다 낙선한 Hongkong건축사회 전 회장이었던 Arch. B. Will씨와 필리핀 건축사회 전 회장이었던 Arch. Yolanda씨의 경합이었다. 사전에 유입물을 각국 대표부에 FAX로 송부할 정도로 후보들은 열성적이었다.

16개국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단 한 표 차이로 HongKong의 Arch. B. Will씨의 승리였다. 승리한자의 기쁨소감과 낙선한 사람에 대한 우정어린 배려는 아시아 건축사들은 하나라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하였다.

이들간의 짧은 시간으로 많은 국가별 쟁점 사항이나 건축 전문인으로써 정진해야 할 항목과 건축학술 자료제출

및 각 회원국의 숨은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금번 이사회일정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제 11차 아카시아 포럼을 성황리에 진행되기를 빈다. 금번 ARCASIA 이사회를 통하여 아시아 16개국의 건축사들의 우정과 아시아 특유의 건축을 창조하자는 보다 아시아 지향적인 화합이었다는 자긍심을 가짐과 동시에 전 아시아 건축인의 미래를 밝히는 초석으로써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고 있다고 믿는다. 圖 (글/오근석)